

共產主義 와 現代急進思潮

1989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發刊에 즈음하여

1989년은 南北韓關係가 냉전적 對決狀態에서 동반자적 協力關係로 전환하여, 「平和統一史의 元年」으로 기록되는 가장 뜻 깊은 한해이기를 기대한다.

國內적으로는 지난해에 이룩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뒤이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民主化의 착실한 진전을 밑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統一熱望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일부 急進勢力의 體制否定, 駐韓美軍撤收 주장 등 理念的 混亂이 있는 가운데 統一論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中·蘇등 공산제국의 開放·改革政策의 가속화로 우리의 北方外交 추진 및 한반도 平和體制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세계청년학생 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폐쇄경제의 한계성이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과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미 밝힌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대통령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새 통일방안을 천명하고 多角的인 남북한 人的·物的交流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민주적 統一論議 정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的 合意 基盤을 확충하여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當院에서는 금년에도 통일안보교육 표준교재로서 「民主統一論」과 「共產主義와 現代急進思潮」를 발간하였으나,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새 통일방안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새 통일방안 내용은 별책으로 후속 발간에정임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우리 統一政策의 정당

성 인식과 北韓實態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어 統一論議·北韓資料開放 등에 따른 理念的 혼란이 극복되고 확고한 統一安保觀 定立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집필과 내용 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內外 教授陣 및 斯界專門家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統 一 研 修 院

目 次

I. 共產主義 本質

1. 序 言	9
2. 마르크스·레닌主義	10
가. 마르크스主義와 時代性	10
나. 레닌主義(볼세비즘) 生成背景	11
3. 共產主義 革命理論	13
가. 唯物論的 歷史觀	13
나. 階級鬭爭論	17
다. 資本主義 必然崩壞論	20
라. 프롤레타리아 革命論	27
4. 共產主義 運動	33
가. 初期 國際共產主義 組織	33
나. 國際共產黨 組織	34
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37
라. 共產主義運動의 展望	39
5. 共產主義社會	40
가. 社會主義社會	41
나. 理想과 現實	46
6. 結 言	50

II. 共產主義 革命 戰略戰術

1. 序 言	55
2. 共產主義·戰略·戰術의 一般運用原理	57

가. 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	57
나. 共產化革命戰略 및 戰術類型	62
다. 共產化革命戰略 및 戰術計劃	68
3.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73
가. 對南革命 및 「祖國統一」觀	73
나. 對南革命戰略의 基調	76
4. 北韓의 對南革命戰術	84
가. 對南革命戰術의 基調	84
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	89
5. 結 言	105
가. 北韓의 對南策動 展望	105
나. 우리의 對應方向	106

Ⅲ. 共產圈의 變化相

1. 序 言	111
2. 共產體制의 特性과 構造	112
가. 일반적 特性	112
나. 政治 經濟的 構造	115
3. 共產圈 變化의 배경과 理念의 修正	119
가. 變化의 背景	119
나. 理念의 수정	124
4. 政治 改革의 實態	131
가. 政治의 문제점과 改革의 과정	131

- 나. 政治改革의 方向과 實態 134
- 다. 최근의 政治改革 動向 138
- 5. 經濟管理構造의 變化實態 143
 - 가. 경제관리구조의 문제점과 변화과정 143
 - 나. 경제관리구조의 改革方向과 實態 147
 - 다. 최근의 經濟관리의 改革 動向 150
- 6. 社會文化의 變動 155
 - 가. 社會문화 變動의 要因과 過程 155
 - 나. 社會문화 變化 實態 157
- 7. 結 言 161

IV. 現代急進思潮

- 1. 머리말 167
- 2. 네오 마르크시즘 168
 - 가. 네오 마르크시즘의 概念과 背景 168
 - 나. 네오 마르크시즘의 主要論點 170
 - 다.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評價 175
- 3. 유로코뮤니즘 179
 - 가. 유로코뮤니즘 (Euro-Communism)의 概念과 背景 179
 - 나. 유로코뮤니즘의 理念과 路線 180
 - 다. 유로코뮤니즘의 展開와 評價 183
 - 라. 유로코뮤니즘의 將來 189
- 4. 從屬理論 190

가. 從屬理論의 概念과 背景	190
나. 從屬理論의 主要論點	194
다. 從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연계성	203
라. 從屬理論의 問題點과 受容 可能性	205
5. 解放神學	208
가. 解放神學의 概念과 背景	208
나. 解放神學의 主要論點	211
다. 解放神學에 대한 評價	215
6. 맺는말	219

I. 共產主義 本質

陳 性 桂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私有財産制度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의 社會的·道德的인 害毒을 없애고, 재산의 共同所有를 기반으로하여 平等社會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소박한 理想은 인간의 政治意識이 생겨날 무렵부터 싹튼 것으로서 그 뿌리는 멀리 2000년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古典的인 소박한 개념은 近代的인 共產主義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近代的共產主義」는 古代나 中世의 共產主義的 思想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은 이 近代的共產主義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는 어떻게 理解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政治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理論과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產黨과 實踐運動으로서의 戰略戰術이라고 하는 三重構造가 權力奪取라는 目的으로 統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前衛隊로서의 共產黨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는 運動으로서 權力奪取를 위한 종합적인 투쟁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共產主義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理論과 組織과 實踐運動의 세가지 要素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마르크스·레닌主義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共產黨이 核心이 되어서 전개하는 종합적인 運動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부르는 이 共產主義는 短期的으로는 非共產主義體制를 타도하여 共產黨이 政權을 상악하고, 長期的으로는 階級없는 「共產主義社會建設」을 부르짖으면서 공산당의 一黨獨裁體制의 유지와 勢力擴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全世界의 共產化를 달성하려는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는 공산당이 政權을 장악한 다음 共產黨獨裁體制를 확립하여 社會主義社會를 거쳐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하는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17年 러시아에 共產革命이 일어난지 70年이 지나 는 동안에 몇개 나라에서 공산당이 政權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一黨獨裁體制를 수립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共產主義社會는 고사하고 그 中間目標라고 하는 社會主義社會 마저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發展된 社會主義段階」에 들어섰다고 하던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中國도 開放과 改革을 표방하면서 변하고 있다. 東歐共產國家들도 自由·開放 資本主義理論을 援用하고 共產主義로부터 탈피해 보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가. 마르크스主義와 時代性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始祖인 칼·마르크스는 1818年에 독일에서 태어

나서 18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19세기는 産業革命과 프랑스革命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풍랑속에서 흔들리던 時代였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방법을 모색하던 고민의 시대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그 당시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여 急進的인 自由主義者로서 봉건적 특권계급에 항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叛旗를 들었다.

오늘날과 달리 국민의 民主的權利가 아직 보장되지 못했던 初期産業資本主義 당시에 있어서는 불만스러운 사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격한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당시에 성행하던 階級鬪爭 즉 暴力革命이었다. 말하자면 19世紀의 유럽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政治的·社會的 조건과 思想的 분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르크스도 무릇 다른 思想家나 革命家와 마찬가지로 時代的인 인물이었다는 것이며, 그의 이론과 실천도 時代性的의 制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구성한 이론적인 구조에는 어느 정도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또한 거기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오류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反抗的인 革命家가 지니고 있는 獨斷性和 排他性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目的論的인 과장표현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主義는 어떠한 時代에나 어떠한 社會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당시의 환경에서 部分的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時代的인 產物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 레닌主義(볼셰비즘) 生成背景

專制政治에 대한 反抗속에서 싹터 初期産業資本主義의 우울한 모순 위에서 자란 마르크스主義의 토대에 짜리즘과 農奴制로 대표되는 러시아

社會의 문제점 극복을 둘러싼 정치투쟁의 선봉속에 社會主義 暴力革命的 계기를 마련한 것이 레닌主義 즉 볼셰비즘이다.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實踐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主義의 革命的 世界觀은 레닌의 現實的이고 實踐的인 革命戰略과 결합되어 있다. 理論家로서의 입장이 앞섰던 마르크스는 모든 정치현상을 경제적 측면에 종속시킴으로써 마르크스主義는 실천적인 정치이론 즉 組織과 制度의 개념이 缺如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過渡的인 프롤레타리아獨裁를 短期的으로 예측한데 비하여 레닌은 현실정치적인 관점에서 長期的인 프롤레타리아 獨裁國家 개념으로 파악했다.

레닌은 일반적인 마르크스主義의 敎理를 후진국인 러시아의 社會主義 革命을 위한 戰略戰術的인 요구와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을 결합시켰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化를 의미한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指導하는 前衛黨組織이 없으면 혁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自然崩壞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있지않고 오히려 혁명투쟁의 政治的意志와 陰謀를 통하여 戰鬪的인 攻撃을 가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결국 마르크스·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와 레닌主義의 合成物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며, 마르크스的인 것보다는 보다 레닌的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共產主義 革命理論

가. 唯物論的 歷史觀

마르크스·레닌主義者에 의하면 歷史的唯物論은 사회의 발전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단계의 일정한 사회형태에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全歷史에 공통된 법칙으로서, 객관적이며 사람의 意志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唯物史觀의 構造

唯物史觀에서는 社會와 政治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떤 理想이나 精神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産과 交換方法의 변동 즉 經濟生活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唯物史觀에 의하면 생산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素가 있는데, 生産力과 生産關係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物資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生産道具와 생산의 경험과 勞動에 대한 숙련에 의하여 勞動機具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勞動力을 종합해서 生産力이라 부르고, 生産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樣式 안에서 兩面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生産力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해서 生産關係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생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의 生産力에 대응한 必然的인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생산관계의 總合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경제적 구조야말로 下部構造 즉 社會의 土臺이며 法律·政

治等 上部構造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社會의 生産力과 生産方法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生産關係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社會의 政治·法律·道德·宗教·藝術등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上部構造는 下部構造(土臺)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상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支配階級の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낡은 生産關係가 새로운 生産力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낡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念形態(上部構造)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唯物史觀에서는 生産方式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5段階로 구분하였는데 原始共同社會·古代奴隸社會·中世封建社會·近代資本主義社會·未來共產主義社會가 그것이다. 그런데 奴隸社會와 封建社會 그리고 資本主義社會는 다 같이 私有財産을 토대로 한 社會였던 까닭에 사회발전은 크게 나누어 原始共同制·私有財産制·共產主義制의 세단계로 구분된다고 한다.

2) 唯物史觀의 限界性

唯物史觀은 共產主義 革命理論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평가되는 이론으로서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개의 思想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기본이라는 것과 사회의 발전은 辨證法的 法則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唯物史觀에 의하면 生産力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生産關係가 변하고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觀念形態는 이에 대응하여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生産關係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法律·政治를 포함한 모든 精神文化는 그 時代의 지배계급이 그 支配關係를 유지하는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계급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精神文化는 生産關係라는 單一原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만일 上部構造가 下部構造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똑같은 生産條件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文化를 발전시켰고 서로 다른 生産 조건 밑에서 같은 文化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生産關係를 각각 달리하는 古代로마와 現代資本主義 나라들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마저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唯物史觀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같은 資本主義的 生産關係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共產主義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異質的인 思想이 복잡하게 엉켜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支持者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유물사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만일 唯物史觀에서 주장하는대로 政治가 經濟關係의 反映이라면, 경제관계가 성숙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共產主義的 政治체도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政治權력을 장악하고난 다음에 政治의 힘으로 共產主義的 生産關係를 만들려고 한다. 즉 上部構造의 힘에 의하여 下部構造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下部構造인 經濟關係가 政治, 法律 및 人間의 思想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공산주의자 못지않게 알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精神文化의 성격이 오로지 경제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인간의 精神文化는 경제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다.

世界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커다란 사건들은 物質的 條件과 人間精神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적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지능이 낮아서 生産力이 유치했던 未開한 時代에는 생활자료의

획득이 인간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여 물질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은 衣食住라는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文化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것이 거꾸로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社會에는 반드시 그 生産關係에 대응하는 하나의 文化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文明社會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唯物史觀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을 原始共產社會·古代奴隸社會·中世封建社會·近代資本主義社會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는 각각 그 內部的 矛盾에 의하여 다음단계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唯物史觀에서는 私有財產制의 마지막 단계인 資本主義社會는 무너지고 共產主義社會로 넘어가는 것은 歷史的必然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유물사관은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資本主義制度는 부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社會는 발전하는 生産力과 현존하는 生産關係와의 충돌로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멸망하여 共產主義社會가 온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도 인류사회가 변천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資本主義도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可能性인 것이지 必然性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설혹 자본주의사회가 변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 결과로 共產主義社會가 오지않고 共產主義와 관계없는 어떤 社會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사회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도 다시 몰락해서 資本主義社會나 그밖의 다른 社會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共產主義社會의 출현이 生産力의 발전으로 생기는 필연적결과라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共產主義 革命運動에 뛰어

들 필요가 있겠는가.

唯物史觀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사회는 歷史的必然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오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 必然的인 것에는 원래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唯物史觀에서는 人類歷史가 辨證法的인 발전과정을 거쳐서 必然的으로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共產主義社會는 다시 무엇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는 변증법적 법칙이 역사를 지배하고 일단 共產主義社會가 실현되면 辨證法的인 발전은 정지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辨證法이 아니다.

나. 階級鬭爭論

共產主義에서 唯物史觀을 내세우는 것은 階級鬭爭理論을 전개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資本主義社會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론의 결론이다.

그런데 계급투쟁이론은 몇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계급에 관한 개념이 문제이다. 共產主義에서는 계급이란 共通된 經濟的 利害關係를 가지며, 그 意識에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고,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오직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社會의 構成部分으로 해석되어야지 合計에 의하여 성립되는 團體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적 계급구성도 반드시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일부 계층 가운데는 階級意識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꼭 계급간에 있어서의 相反된 經濟的인 利害關係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人間的 歷史는 본래가 協同의 歷史인데, 經濟上의 利害關係가 심하게 相反될 때에 비로소 共產主義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단순하게 經濟的 利己主義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經濟的 欲望 외에도 많은 精神的 欲求를 가지고 있다.

人間社會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에 많은 계층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않은 노동자는 善良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는 惡毒하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갈라놓을 수는 없다.

둘째, 階級意識이 民族意識보다 강하다는 假說은 이해가 안된다. 본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을 바탕으로 한 文化的 類似性에 따라 自然的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級이라는 것은 人爲的인 요소를 포함한 利害關係에 따르는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發生的으로 볼 때 民族은 당연히 階級에 앞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民族은 基本的이고 階級은 派生的이다.

또한 民族은 不變的이며 永久的이고 階級은 可變的이고 一時的이다. 한국민족은 아무리 변해도 한국민족이지만,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본가도 될 수 있고 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될 수 있다.

階級の 對立과 투쟁이 歷史를 움직이는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서 國家와 民族이 세계역사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오늘날 인류는 계급의 대결보다는 國家와 民族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도우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歷史는 역시 國家와 民族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그가 속해있는 계급여하에 따라 利害關係나 思想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國家와 民族에 따라 한층 더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계급투쟁이론에서는 “노동자에게는 祖國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있어서 노동자들은 그가 속한 노동자계급을 위하기 보다는 그

가 속한 祖國과 民族을 위해서 敵對國의 노동자와 싸워왔다. 世界大戰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자체가 계급투쟁이 아닐뿐더러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敵國의 노동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비록 속해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일지라도 자기民族과 祖國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서로 싸웠던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祖國과 民族을 초월해서 階級으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階級鬭爭理論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階級은 必然的으로 서로 투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사회에는 때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社會의 本質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變態的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오늘날 富益富 貧益貧으로 인한 貧富의 격차가 현저하고 安定과 希望이 없는 곳에서 대립과 투쟁의 경향들이 있고 그 투쟁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人類歷史를 모조리 계급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誇張이다.

인간에게는 生存競爭이라고 하는 투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相互扶助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階級鬭爭理論에서는 中間階級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노동자계급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간계급은 몰락하지도 않았고 노동자계급으로만 흡수된 일도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中間階級은 大資本家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私有財産制度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것도 아니다. 중간계급의 태도는 階級的의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國民的이며, 부분적인 階級利益 보다는 全體的利益을 중요시한다.

階級鬭爭理論에서 몰락해버린다고 주장하는 중간계급은 오늘날 몰락

하지 않고 점점 肥大해져서 한 社會와 한 國家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中間階級이 緩衝作用을 하는한 階級鬭爭의 可能性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다. 資本主義 必然崩壞論

唯物史觀에서는 辨證法的 발전법칙에 의하여 社會가 歷史的으로 각종 형태로 변해왔다는 것과 社會變化의 근본적인 原動力은 生産力의 自己發展이라고 주장하며 社會發展의 過渡의 段階로서의 資本主義社會는 그 自體內的 矛盾에 의하여 무너지고 새로운 社會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舊社會의 構造와 運動法則의 분석을 위하여 근대자본주의경제의 분석을 시도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資本主義生産에 있어서 資本家에게 돌아가는 利潤은 勞動力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創造的 活力을 가진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노동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 利潤을 剩餘價値라고 불렀고, 이 잉여가치야말로 生産의 직접적인 목적이요 결정적인 자극이라고 말했다.

자본가가 生産에서 얻으려고 하는 잉여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잉여가치설이 전제로하고 있는 勞動價値說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

1) 勞動價値說

勞動價値說은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잉여가치설을 유도하고, 資本主義 발전과 그 몰락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共產主義經濟學의 전체 이론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란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平均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勞動은 商品價値를 형성하는 原因이고, 노동은 상품가치의 實質이며, 노동은 상품가치를 측정하는 尺度”라는 것이

다.

이 勞動價値說이란 것은 이미 쓸모없는 학설로 되어버린지 오래된 時代錯誤的 이론으로서 허다한 논리적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商品의 價値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勞動量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勞動이란 것은 단순한 同質的인 것이 아니라 異質的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勞動量의 엄밀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급기술자가 열심히 하지않은 한시간의 勞動量은 보통기술자가 열심히 일한 몇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勞動生産物이 아니라 할지라도 供給에 비하여 需要가 많으면 그 가치가 큰 것이다. 勞動이라는 것은 供給을 결정하는 한개의 要因에 지나지않는 것이다.

둘째, 勞動價値說은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이외의 生産要素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과 더불어 土地나 기타의 天然資源과 같이 노동없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에 의하지않는 물건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은 설혹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般論은 될 수 없고 오직 勞動生産物의 價値를 말할 때에 국한해서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셋째, 勞動價値說은 「勞動이 商品價値의 尺度」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勞動自體의 價値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勞動의 價値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投入된 勞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된다. 투입된 노동은 財貨 및 用役의 사용으로써 유지되는 것인데, 그 財貨와 用役은 勞動의 生産物이다.

결국 商品의 가치는 勞動에 의하여 결정되고, 勞動 그자체의 價値는 勞動生産物의 價値로 설명하게 되고 그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또다른 勞動으로 설명하게 되어있다.

넷째, 勞動價値說에 의하면 生産物의 價値는 투입된 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勞動人口가 일정한 勞動時間 동안 일해

서 생산한 生産物의 價値의 總量은 일정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勞動 價値說을 가지고서는 經濟成長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勞動價値說은 一定量의 價値가 모든 계급사이에 어떻게 분배 되는가 하는 分配論으로서는 說得力이 있을지 모르나, 總生産의 增大를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그런데 勞動價値說이 經濟理論으로서는 도저히 수궁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은, 이 노동 가치설이 商品價値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품의 가치가 勞動者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결과라는 道德的인 요소를 내세우는 점이라 하겠다. 勞動價値說이 어떤 政治的 效果 즉 暴力革命을 노리는 宣傳資料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經濟學說이 아니라 政治的인 宣傳道具로 보아야 한다.

2) 剩餘價値說

이 이론은 勞動價値說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어떤 生産物의 價値가 단순히 그것에 投入된 勞動量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勞動價値는 또다시 노동 그자체의 再生産에 필요한 노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勞動價値說이 무너지면 잉여가치설이 무너지고 잉여가치설이 없으면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론은 껍질만 남게 된다.

잉여가치설은 科學性이 결여되어 있고, 經濟理論의 각도에서 볼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의 근본적인 난점은 「生産物의 價値와 利潤의 근거가 勞動에 의해서만 創造된다」는데 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勞動 이외에도 資本과 原料와 企業家의 能力등 여러가지의 生産要素들이 필요하다.

資本에 의해서 기계나 원료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商品의 價値는 자본과 노동의 協同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價値는 마땅히 資本과 勞動의 양쪽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이론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勞動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勞動價値가 상품의 가치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勞動의 생산성만 인정하고 資本의 생산성은 인정하지 않는데서 연유하는 주장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체제에 있어서 資本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자본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勞動만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資本家가 착취한다는 이론은 타당성을 잃은 獨斷論에 빠지게 된다.

둘째로 搾取라는 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企業家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賃金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서 生産物을 판다. 그때에 그 생산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需要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격으로서 생산물이 팔리면 이 가격으로부터 生産費를 빼낸 후에 남는 것이 利潤이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에서는 이 利潤을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利潤은 “支拂되지않는 勞動”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勞動과 그것에 대한 支給은 不等價交換이며 노동자는 주는 것보다도 적게 받는데 그 差額이 결국 利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착취이론은 엄격하게 勞動價値法則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價値는 생산에 소비된 勞動量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需要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不等價 交換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착취란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노동력으로 생산된 商品이 市場에서 매매되지 않아 자본가가 손해를 본다든지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 상품일 때에도 계약에 의하여 勞動賃金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에 결국은 資本家가 搾取당하는 결과가 된다.

勞動價値說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설도 적지않은 결함과 오류를 가지

고 있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아직도 이 이론을 버리지 않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론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은 理論的인 探求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社會正義가 땅에 떨어져서 富益富 貧益貧하고, 不正과 腐敗가 극심한 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搾取理論으로서의 잉여가치설을 合理化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잉여가치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資本家の 利潤은 勞動者를 착취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勞動者는 資本家에게 자기의 몫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데 있다.

分配의 不平等을 시정하고 中産層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서 福祉國家가 이룩될 때 착취이론인 잉여가치설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3) 資本主義 自滅法則

노동가치설을 토대로해서 만들어진 剩餘價値說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자본가의 利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의 역할은 노동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資本主義沒落의 법칙을 유도해내는데 동원된 것이다.

資本主義가 몰락한다는 법칙에 따르면

첫째,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점점 더 혹심해 가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빈곤은 더한층 커진다는 것이며,

둘째, 그 위에 資本의 集中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中小資本家가 노동자로 떨어지는 까닭에 노동자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 勞動市場에는 産業豫備軍 즉, 失業者가 증대하고 이것은 勞動賃金을 더한층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칙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점점 단결하여 드디어 資

本主義社會 타도에 필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資本主義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마르크스時代의 初期産業資本主義와 달라서 오히려 自由企業體制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資本主義體制라고 부르는 自由企業體制는 지난 200년 동안의 생성 발전 과정에서 자기자신을 살려나갈 活力과 彈力性을 갖추게 되었다.

資本主義制度(自由企業體制)는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첫째로 가장 큰 長點으로서 국민 각 개인이 자기의 創意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創意性이 발휘되는 조건은 각 국민이 政治的·經濟的·社會的으로 자유롭다는데 있다. 물론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납이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이와같은 經濟的自由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自由企業의 制度 즉 資本主義制度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제도 밑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生産力이 발휘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발명이 연이어 일어났고 새로운 제품이 부단히 등장하여 새로운 生産樣相과 경제방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을 조정하는 장치가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資源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이지않는 손」에 의하여 物資의 需要와 供給이 조정되는 까닭에 표면상으로는 無政府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資源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政府의 명령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生産되고 消費되는 共產國家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物資의 供給과 需要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않는 景氣變動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셋째로 自動安定裝置라는 것이 마련되어 이들의 작용으로 심한 好景氣나 不景氣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데 있다. 累進稅率을 가진 租稅制度, 失業保險制度和 기타의 社會保障制度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국민의 可處分所得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景氣變動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自動安定裝置의 작용만으로 景氣의 안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政府가 財政과 金融上的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不景氣의 경우에는 減稅措置로 국민의 購買力을 높이고 公共事業을 일으켜 景氣를 好轉시키는 財政政策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好景氣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增稅措置를 취함으로써 景氣의 過熱을 방지할 수도 있다.

財政政策과 아울러 景氣調整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金融政策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通貨量과 金利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資本主義가 발전해 온 경로를 살펴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家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이미 第1次 世界大戰 동안에 나타났으며 第2次 世界大戰 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共產主義에서 말하는 「資本主義沒落」이나 「資本主義終末」은 적어도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資本主義가 발전한 것 때문에 몰락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발전해 가기만 하는데 오히려 資本主義가 가장 뒤떨어진 곳에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民主主義의 정신은 資本主義의 矛盾과 폐단을 法과 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社會改革과 福祉增進政策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100여년 전에 마르크스는 資本主義下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하였으나 그 예상은 적중되지 않았다. 노동자 자신의

각성과 勞動組合活動, 福祉政策, 特定產業의 公有化등의 조치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資本主義體制에 不平等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自由民主主義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해 왔고 해결할 것이다.

라. 프롤레타리아 革命論

共產主義運動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資本主義社會를 없애버리고 착취없는 자유로운 풍부한 공산주의경제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변혁은 결코 단순한 經濟的過程 그 자체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政治的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共產黨 宣言」에서 “모든 階級鬭爭은 반드시 政治鬭爭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경우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政治鬭爭에 의한 社會革命을 역설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國家를 통하지 않는 政治鬭爭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투쟁이 직접 통하는 길은 國家이며 階級鬭爭의 政治化를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國家가 중대한 관심사이다. 나아가서 國家權力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서의 暴力革命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은 연관성을 가진 이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階級國家論

共產主義에서는 “國家는 社會的 階級の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본질적으로 暴力的 彈壓機構이며, 國家에 의하여 支配階級은 被支配階級을 착취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전반적 福利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古典的 國家理論」을 共產主義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즉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經濟的 利害關係를 가지는 계급이 투쟁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한 충돌을 완화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權力

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經濟關係의 階級的 對立에서 오는 충돌을 막기 위하여 발생한 國家는 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다고 해도 暴力的 抑壓性을 本質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敵對階級에 대한 탄압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國家에서 彈壓性을 배제할 때는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며 국가가 아닌 것으로 될 때 다시 말해서 國家가 死滅해버리는 社會는 이미 階級的 對立이 消滅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國家라는 것은 아무리 民主主義의 制度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階級國家일 뿐이지 人民 전체의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共產主義 階級國家觀은 超階級的 國家관 즉 “國家는 外部의 敵으로부터 國民 전체와 國토를 방위하기 위한 防衛機構이며,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治安機構”라는 國家理論을 무시한다.

물론 국가에 강제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으로 國家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이외에 教育·保健·文化·社會保障 등과 기타의 公共福利를 위하여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설혹 支配階級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국가의 意思가 지배계급의 意思였다고 하더라도 國防과 治安의 기능을 순전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순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까지의 歷史的 경험으로서는 戰爭은 주로 民族과 民族과의 싸움이었으며 패배한 국가에 있어서는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을 막론하고 民族 전체가 전쟁에 승리한 國家나 民族에게 예속되어 왔던 것이다.

階級이 소멸된 共產主義社會가 실현되었다고 가상할 때 생산의 無政府狀態를 극복한다는 공산사회의 경제체제는 生産과 分配의 모든 과정이 어떤 중앙기관에 의하여 체계적인 계획밑에 운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計劃經濟가 어떻게 강제력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共產社會에서 強制權力이 배제된다면 새로운 계급과 착취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強制力은 필요할 것이다. 階級國家觀으로서의 國家死滅論은 非科學的이고 非現實的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2) 暴力革命論

共產主義理論에 의하면 革命은 階級鬭爭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가 共產主義社會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被壓迫階級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革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現存制度를 暴力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血革命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暴力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非組織的인 대중의 산발적인 봉기나 무계획적이고 一時的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一階級으로 뭉쳐진 노동자들의 전체적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暴力革命이란 것은 政治勢力으로 묶여진 프롤레타리아트가 피흘리는 폭력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이론에 따르면 資本主義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 빈곤해져서 그 결과로 드디어 꺾기하여 國家權力을 탈취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機構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지라도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던져 가면서까지 革命을 위하여 폭발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의 실정이다.

공산주의에서 資本家의 獨裁機構라고 저주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들을 공정하게 볼 때, 그 나라들은 대중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支持에 의해서 잘 지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의 支持를 받는 多數政黨은 政府를 움직이고, 정부는 軍隊와 警察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의 革命이 폭발하지 못

하는 것을 가지고 “少數의 獨占資本家が 武力으로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先進工業國家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민주정치가 발달됨으로써 共產主義革命의 가능성과 그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少數의 職業革命家の 陰謀에 의한 政變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共產主義理論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革命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러한 政變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봉건국가나 社會主義·共產主義國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時代 어떤 國家에서나 暴力革命은 결코 必然的인 것도 아닌 동시에 찬양할만한 것도 아니다. 暴力은 최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惡이며 必要 惡일 뿐이다.

만일 暴力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 파괴가 극심한 까닭에 革命에는 성공하고도 破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에서는 共產革命 즉 暴力革命을 正當化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理論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마치 社會發展法則인 것처럼 力說해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 폭력혁명이론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批判을 모면할 수는 없다.

첫째, 共產革命은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않고 必要不可避한 必然性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科學的理論이라기 보다는 特定國家의 暴力革命을 합리화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共產革命理論에서는 “暴力革命은 勞動者와 共產黨의 歷史的 使命”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

넷째, 오늘날까지의 共產革命은 어느 경우에서나 少數의 職業革命家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지 결코 多數의 支持를 얻은 혁명은 아니었다는 점.

다섯째, 暴力革命의 결과는 모두 不幸해졌다는 것 등이다.

3) 階級獨裁論

공산주의혁명이론에 의하면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주아制度的 暴力的인 타도가 필요하나 타도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階級이 소멸되고 國家가 死滅하는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機構가 타도된 후에 우선 國家權力을 장악하고 자기자신을 支配階級으로 높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부활과 보복을 막고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過渡期 즉 獨裁期間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기간의 국가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國家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중에는 국가는 여전히 탄압적 기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그것은 資本主義國家와는 반대로 多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少數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강행하는 階級獨裁機構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반드시 共產社會를 실현하리라는 것은 하나의 希望的 豫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希望에 대한 幻滅은 오늘날의 共產國家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獨裁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에 있다고 하면서도 階級獨裁와 階級解放의 美名下에 全體主義的 一人獨裁 혹은 集團指導體制라고도 불리우는 극소수의 集團獨裁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현실이다.

노동자에게 노동부담을 加重시키지 않고도 生産力을 加速的으로 높일 수 있는 現代의 生産方法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뒤떨어진 生産力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추켜올리고 앞세우는 어떠한 社會改造論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無知에서 오는 한낱 時代錯誤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社會改造보다도 權力에 대한 欲求不滿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煽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와같은 社會改造論者, 예를 들어 共產黨이 政權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과 政權을 장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다.

첫째, 階級없는 共產社會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를 선동하여 그 선동에 휩쓸려 쫓겨난 노동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權力을 장악한다.

둘째, 共產黨이 노동자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政權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政權이 바뀌었다고 해서 生産力이 갑자기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낙후된 生産力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權力은 승리는 했지만 최초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노동자들의 自由와 飽滿에 대한 希望은 완전히 失望으로 바뀌게 된다.

셋째, 生産力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希望은 부득이 보류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속히 生産力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나아가서는 強制勞動 등 노동력착취를加重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점차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共產黨權力을 위협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自己防禦를 위해서 權力을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權力의 강화와 노동자의 불만은 交互作用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불만이 政權을 침해하게 되니 정권을 장악한 쪽은 정권을 강화하게 되고 權力이 強化되니 노동자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 돌게 된다.

다섯째, 權力者는 權力強化를 合理化하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마침내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壓力勢力으로 둔갑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無氣力한 가운데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국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共產主義運動은 時代錯誤의인 勞動價値說을 토대로 하는 理論構造에도 불구하고 生産力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後進社會가 낙후된 生産力을 現代化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共產主

義運動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自體權力の 強化와 革命力량을 위한 파괴력 축적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변영을 희생시키고, 밖으로는 國際間에 不安을 造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共產主義 運動

資本主義의 발전에 따라 勞動階級이 형성되고 거기서 初步的인 階級意識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인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것에서부터 初期의 勞動運動이 시작되었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운동은 상대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巨人인지라 단결된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생겨난 것이 勞動組合運動이다. 勞動組合運動을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權力の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하고자한 것이 각국의 左翼革命家들이었다.

이 左翼의 革命家들은 그들의 思想的인 경향에 따라 혹은 社會主義로 혹은 無政府主義 등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勞動組合運動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부터 職業的 革命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들 職業革命家들은 각나라의 勞動組合運動을 國際的 連帶性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높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권장악을 위한 혁명에 이용하려고 했다.

가. 初期 國際共產主義 組織

共產主義는 이미 1848년 「共產黨 宣言」時代부터 공산주의운동을 國際的運動으로 인식하였으며, 각국의 노동자들은 행동의 통일과 국제적 단

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864년에 영국·불란서·독일과 이태리 등의 노동자대표들이 모여서 既存經濟制度의 파괴를 맹세하는 國際勞働者協會의 조직을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第1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각국 노동계급의 형제적 협력을 부르짖었으나,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異質의 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조직을 지도하던 마르크스의 파괴적인 행동에 불만을 느낀 영국의 노동조합주의자와 기타의 온건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자 1876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1889년 불란서의 파리에서 소위 「第2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었으나 이 조직도 역시 많은 異質의 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데올로기의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간 것은 독일의 社會民主黨이었는데, 이들도 左派·右派·中央派로 분리되어 있었다. 左派의 이론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하여 資本主義國家를 넘어뜨리고 社會主義制度를 수립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右派는 資本主義는 必然的으로 붕괴할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적응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改良主義的 실천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中央派는 말로는 左派와 같이 革命을 말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右派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4년 世界大戰이 발발하자 이 조직은 분열되고 말았다.

多數派는 자기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少數派는 급속한 평화를 부르짖고 極少數派는 전쟁을 이용하여 世界革命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으로 第2 인터내셔널은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다.

나. 國際共產黨 組織

1917년에 러시아革命이 극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자, 지금까지 西歐社會主義의 思想이나 運動에서 가볍게 보아온 볼셰비키들이 갑자기 두드러

지게 나타나면서 亡命革命家나 地下運動家들이 일약 러시아의 支配者로 올라앉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際左翼革命運動의 중심은 러시아로 옮겨지게 되었다.

1918년에서 1921년에 이르는 시기는 유럽에 혁명의 파도가 가장 거센 시기였다. 이 흥분된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共產主義인테르내셔널, 즉 「코민테른」의 第1次大會가 1919년 3월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大會의 任務는 戰後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資本主義的 질서가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임박한 世界革命을 위하여 總參謀部를 조직하자는데 있었다. 즉 코민테른은 “武力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적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분쇄하고 완전한 共產主義社會로 들어가는 過渡의 段階로서의 국제소비에트共和國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레닌의 지도밑에 코민테른은 엄격한 中央集權的 조직을 가진 單一國際共產黨으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당은 그 支部에 불과했으며 엄격한 규율과 절대복종이 코민테른 조직의 특징이었다.

코민테른의 초기에는 공산혁명이 유럽전체로 뻗어나가는 감이 있었으나 연속적인 실패로 세력을 잃고 共產黨은 각국에서 少數派의 위치로 몰락하고 말았다.

레닌主義者들은 西歐의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게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만으로서는 도저히 世界革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힘의 원천이 植民地와 後進地域의 착취에 있다고 믿고, 이들로부터 착취당하는 植民地와 半植民地를 일단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革命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눈을 돌렸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문제는 식민지문제와 약소민족문제로 발전하고 被壓迫民族의 해방투쟁이 國際共產主義運動과 묶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國際共產主義의 중심도 선진자본주의국가의 勞動運動에서 後

進國 植民地와 半植民地의 民族運動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被壓迫民族解放鬪爭이란 것은 피압박민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帝國主義國家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확대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해방정책은 民族自決主義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모든 民族은 獨立과 민족적 자유를 가져서는 안되고 각 民族은 한 단위로써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도 안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共產主義의 被壓迫民族政策은 공산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피압박민족을 이용하느냐 하는 정책인 것이지 그들에게 獨立과 自決權을 주자는 정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1943년에 코민테른은 “戰時條件下에서는 單一 國際的 中心에서 各國 共產黨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해체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코민테른을 해체시킴으로써 世界革命을 포기했다는 실증을 보이고, 이에 의하여 資本主義國家로부터 軍事的 원조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大戰이 끝나자 共產主義의 國際的 組織은 다시 부활하여 「코민포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1947년에 「코민포름」(國際共產黨情報局)을 결성하게 되면서 冷戰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1956년에 “전쟁은 必然的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코민포름은 해체되었다.

오늘날 國際共產黨은 組織上으로 보아서는 없는 것같이 생각되나 軍事的으로는 「바르샤바條約機構」가 있고 經濟的으로는 「코메콘」(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이 있으며, 思想的으로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憲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스크바宣言」과 「81個國 共產黨代表者會議 共同聲明」을 통하여 活動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1968년 8월 20일 소련軍이 바르샤바同盟軍과 합세하여 民主化路線을 표방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政權을 武力으로 간섭한 후, 브레즈네프는 이를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연설을 통한 세가지의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세가지의 독트린이란 「浸蝕型 反革命論」과 「制限主權論」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을 말한다.

이 독트린의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合理化하는 것 이외에 장차 다른 공산국가의 主權을 제한하고, 소련 지도층이 내정간섭권을 보유하려는 底意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浸蝕型 反革命論」이란 혁명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反革命을 단지 軍事行動이나 軍事的 攻擊의 형태로 간주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平和的인 反革命」의 방법은 社會主義의 「民主化 宣言」도 포함하고 社會主義秩序의 개선에 관한 토론까지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이 새로운 이론은 궁극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社會主義體制에서 民主化 改革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것을 浸蝕型 反革命으로 규정하여 內政에 간섭할 것을 合理化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制限主權論」에 의하면 한 國家의 社會主義體制를 방위하는 것은 그나라만의 임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련이 주도하는 “全世界 社會主義體制의 임무이며 全世界 社會主義體制의 방위는 國際共產主義者의 義務”라고 宣言되어 있다. 추상적인 국가의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社會主義國家의 獨立과 主權은 무엇보다 資本主義로부터의 獨立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주의질서의 위기문제를 포함하여 社會主義國家의 내부문제도 역시 當事國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의 世界體制가 판단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宣言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에 도전하는 內·外部의 세력이 사회주의국가의 발전과정

에 있어서 資本主義를 부활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社會主義의 大義를 심지어는 全社會主義共同體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는 한 國家의 문제가 아니라 全社會主義國家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1968년 브레즈네프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國家水準에서 國際水準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을 발표하여 社會主義國家의 主權을 더욱 제한시켰다. 이것은 「世界社會主義體制」의 힘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구실로 合理化하고 있다.

「制限主權論」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소련의 동맹국은 오직 資本主義世界에 대하여 主權을 행사해야지, 소련이 주도하는 世界社會主義體制에 대항하는 주권행사는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世界社會主義體制의 利益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國際法の 규정, 主權의 상징적인 개념 혹은 형식적으로 소유하는 自決原則이 아닌 相互合意하는 政治理念을 담은 문서에 반드시 準用되어야 한다.

넷째, 한 社會主義國家內에서의 世界社會主義體制에 대한 위협은 當事國의 문제가 아니라 一次的으로 世界社會主義體制의 문제이다.

다섯째, 사회주의국가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다섯가지였다.

그러나 制限主權論은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共產黨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소련의 이러한 이론은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主權을 소련의 판단에 따라 制限하여 武力介入을 合理化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中國共產黨도 소련의 制限主權論과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이 國家主權의 보편적인 원칙을 유린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소련이 주장하는 制限主權論에 의한다면 결국 소련 修正主義者의 主權도 制約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政權에서는 東歐共產國家의 脫蘇現象에 제동을 걸기 위해 自由路線을 추구하려던 체코슬로바키아를 武力으로 침공했고 그

것을 合理化하기 위해 制限主權論을 宣言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歐에서의 自由化 물결과 脫蘇現象은 계속 일고 있다.

라. 共產主義運動의 展望

유럽 共產主義運動의 특징은 共產主義의 유럽식 變形이라 하겠다.

마르크스의 共產主義가 19세기 古典的資本主義社會를 대상으로 한 體制顛覆의 이론이었다면, 레닌은 20세기초 帝國主義時代를 배경으로 한 後進社會인 러시아 社會의 전복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었다.

한편 毛澤東思想이란 植民地 상황하의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한 革命戰略이었고 체·게바라主義는 그것의 라틴아메리카의 變形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마르크스·레닌·毛澤東·게바라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었다면, 모두가 暴力革命에 의한 共產化였고, 그 前衛的 部隊는 職業的 革命家라고 불리워지는 少數의 黨幹部를 중심으로 조직된 階級政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先進產業社會에 있어서 革命을 合理化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이미 共產主義의 틀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共產化에로의 길은 合理化시킬 수 있는 理論的 再構成이 절박하게 되었다.

人間의 自由와 풍요로운 삶을 理想으로 한다는 共產主義社會가 억압과 빈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窮乏化로 멸망할 것이라던 資本主義社會에서 오히려 풍요로운 삶과 인간의 자유가 꽃을 피우는 현실앞에서 어떻게 共產社會의 건설을 위한 暴力革命論이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共產社會 건설이라고 하는 虛像을 포기하자니 그것은 이미 共產黨이 아닌 것으로 되고, 暴力革命을 부르짖자니 共產黨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의 당면한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론의 구성에 실패한 그들은 오로지 지난날 「人民戰線 內閣」의 경험을 되살려서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聯合戰線·統一戰線을 위

한 구호만 부르짖고 있다. 「進步的 民主主義」라든지 「새로운형의 民主主義」라든지, 또는 「歷史的 妥協」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바로 이러한 1930년대의 統一戰線戰術의 延長線 위에서 구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自由主義 타도와 共產獨裁體制의 건설이라는 共產黨의 기본적인 硬直性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本質的으로 變化하려고 해도 理論的 틀의 再構成 없이는 변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共產主義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유럽社會의 市民들이라 하겠다.

5. 共產主義社會

歷史的唯物論에서는 資本主義의 몰락과 社會主義社會의 출현은 歷史的必然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실현될 社會主義社會 그 자체의 구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된 것을 共產主義는 가지고 있지않다. 마르크스·엔겔스의 「資本論」도 資本主義를 해부하는데 그쳤고, 社會主義에 대해서는 쓰다가 중단한 것같은 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社會主義를 유토 피아로부터 科學에로 발전시키려는 마르크스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태도였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고타綱領 批判」에서, 支配階級으로 된 프롤레타리아가 점차적으로 모든 資本을 부르주아로부터 國家에 수탈한 후의 발전을 예상하고 이것을 共產主義 第1段階 즉, 社會主義段階와, 第2段階 즉, 共產主義段階로서 영성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第1段階에 있어서는 私的資本은 이미 소멸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는 國家에 고용되어서 노동하게 되므로 그 노동에 대하여 얻는 보수는 아직 平等하지 않으며, 생산자의 권리는 그 제공한 노동에 비례하고 있다. 平等은 노동이라고 하는 平等의 尺度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의 내용

에 따라 당연히 差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2段階에 있어서는 즉 共產主義社會의 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分業에 노예와같이 從屬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와함께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對立이 소멸된 후에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첫째 가는 生活欲求로 된 후에,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에 따라 生産力도 증대하여 協同的 富의 모든 源泉이 보다 풍부하게 솟아나게 된 후에, 그 때에 비로소 社會는 그 깃발에 “각자는 그 能力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그 욕망에 따라(부여한다)”라는 구호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生産物과 生産手段의 市場價格을 變數로 하고 企業家의 利潤追求를 動力으로하여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營利生産이 폐지된 후 부여된 社會의 生産力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消費財와 生産財의 生産에 어떤 數量이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生産力 자체의 增進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에 있어서 볼셰비키 革命이 있는 후, 또한 第1次 世界大戰 敗戰後의 헝가리·독일·오스트리아에 있어서 共產黨 또는 社會黨이 政權을 장악하였을 때, 어떻게 社會主義를 실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누구도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가. 社會主義社會

오늘날까지 共產主義者와 社會主義者에 의하여 지적된 社會主義體制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私有財産에 대한 共有財産制 즉 기본적으로는 생산수단·분배수단·교환수단의 社會的 所有가 확립된 社會,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광물자원·공장·철도·航空機와 船舶 그리고 금융기관등을 근로자가 협동하여 소유하는 社會 ② 私的企業에 대한 國營企業 ③ 自由經濟에 대한 計劃經濟 ④ 營利性에 대한 公共性 ⑤ 資本家支配에 대한 프롤레

타리아獨裁 ⑥ 必然의 王國에 대한 自由의 王國등, 어느 것이나 현실적으로 체험된 資本主義社會의 특징 중에서 그것에 對立하는 것으로 각각 그 입장에서 導出된 것이다.

요컨대 社會主義體制의 기본적인 원칙은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的 所有와 그것의 社會的 運營」이라고 하겠다.

사회주의경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이상, 資本主義經濟에서 처럼 私의 企業面의 自由競爭에 관해서는 社會主義의 입장에서부터 여러가지 폐해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어비스와 用役등의 중복, 즉 이발업·약방·의사등이 필요 이상으로 일정한 지역에 증가하여 社會적으로 불필요한 노력이 소모된다는 것.

둘째, 불필요한 판매노력의 소비, 즉 많은 資金이 광고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

셋째, 생산규모가 적당히 확대되지 않는 것, 즉 需要者측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供給者측이 다수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소규모로 되어 製品이 高價로 된다는 것.

넷째, 不公平한 所得差等이 생긴다는 것, 즉 각개 기업의 설비·지리적 환경 기타 여러가지 조건의 優劣 때문에 개인소득이 동등한 능력이나 노력에 부합되지 않는 차별이 생긴다는 것.

다섯째, 國家計劃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 즉 群小 잡다한 독립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상품을 규격화하고 단일화하고 기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經濟에서도 모든 경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경쟁이라면 오히려 권장된다. 이 경쟁은 자유경쟁과 구별하여 社會主義競爭이라고 부른다.

社會적으로 필요하고 有用한 경쟁이란 것은 이런 경우 생산비의 저하와 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努力競爭이 된다. 소련에 있어서도 共產革命 이래 이 社會主義競爭은 정부에 의하여 크게 장려되고 선전되었다.

소련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競爭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 물론 한쪽에서

는 사회주의정신의 양상이 항상 강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로 화폐경제적 자금을 이용하는 정책이 나와 초기의 平等主義的 정책은 철폐되고, 여기에 대치되어 能率給과 스타하노프運動과 獨立採算制 그리고 企業長期 基金制등이 매우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쟁을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중점은 물질적이고 화폐적인 관계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社會主義經濟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경쟁과는 正反對의 完全獨占體制이다. 國家權力이 강하게 작용하여 生産과 消費, 供給과 需要, 勞動, 價格등에 관한 최고 지배권이 國家의 손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 의한 完全獨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強權的 社會主義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社會主義的 經濟計劃이란 국민경제의 總再生産過程에 있어 그 발전과 균형을 自然의 움직임에 방임하지 않고 國家가 이것을 지도해가는 것이지만 그 국민경제의 순환을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우선 財貨의 흐름과 貨幣흐름의 기본적인 두가지 흐름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경제 전체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계획은 재화의 흐름에 대한 物動計劃과 화폐의 흐름에 대한 資金計劃으로 구별된다. 물론 社會主義經濟라고 할지라도 화폐경제로서 현실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화폐가 없는 社會라면 物動計劃 하나로도 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문제로 되지 않는다.

소비에트體制의 計劃經濟를 보면 원칙적으로 物動計劃이 主導的이고 資金計劃이 從屬的으로 되어 있다. 즉 상품의 품질과 수량과 가격등이 계획적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적응하여 資金計劃이 성립된다. 商品쪽의 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이 계획지령으로 되어서 각기업에 전달된다. 각기업은 부여된 기준생산량을 최소한도의 철칙으로써 일정한 품질의 製品數 또는 作業量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단에까지 미쳐서 각개인에게로 作業量(노르마)이 부과된다. 이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資金計劃이 있다. 各企業에 융자도 해주며 소위 은행신용제가 실시되고 있다.

消費도 生産된 한도 안에서 또 부여된 公定價格下에서 이루어진다. 바

로 物動計劃을 중심으로한 計劃經濟이다.

따라서 物動계획을 주도적으로 하는 計劃經濟가 매우 中央集權的이고 強權的計劃經濟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노동자는 作業量 즉 노르마가 부과되어 직장이동에도 큰 구속을 받게 되며 소비자로서는 계획된 供給面의 조건을 변경시킬 권한도 없고 또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생산계획의 집행관리자에 불과하다.

強權的社會主義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될 점은 社會主義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生産增大가 문제로 된다. 직업선택과 임금의 형태, 수량이 모두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生産意欲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노동생산물이 차등이 있을 정도로 소득에 탄력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동량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근면과 나태, 숙련과 미숙련, 유능과 무능이 모두 소득상에 현저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능률을 올릴 수 없다.

생산을 목표량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독촉이 항상 필요하게 되기때문에 이러한 정세는 결국 공포에 의한 강제노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모든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생산량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든가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든가 그 어느것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대책이 고려된 것인데, 소련에서 실시한 스타하노프運動이라든가, 경영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獨立採算制라든가, 어느 정도의 私的生産과 私的供給을 허용하는 企業長期基金制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社會가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소비한다는 共同消費의 정신을 가지는 이상, 生産力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地上의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能率과 所得과의 比例가 자유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추세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生産方法의 進展에는 科學 특히 技術의 자유로운 탐구가 가장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도 사회전반의 자유로운 분위기 즉 思想的 구속이 줄어

들고 낭비와 침체와 不生産의 自由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모든 편의와 시험에 소요되는 낭비·소모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도 強權의 社會主義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혁신적인 발전은 자유로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상의 혁신에 있어서는 그 動力으로서 私有慾이나 利己心의 작용을 크게 필요로 한다.營利의 자극을 배제하는 社會主義組織은 생산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비약적인 質的進歩를 촉진하지는 못한다.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실현되고 生産手段의 私有가 폐지되면 이들의 사유로부터 생기는 不勞所得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모든 社會構成員의 생활이 과연 윤택해지는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날 自由國家와 共產國家와의 국민생활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필요 내지 욕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共產主義의 第2段階 또는 보다높은 단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만약 “必要에 따라 消費한다”고 하는 말이 衣·食·住를 위시해서 제한되어 있는 생산력을 배당하여 비로소 생산되는 모든 개인적인 필수품이나 편의품 그리고 사치품이 모두 원하는대로 부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國家도 權力도 없고 화폐도 상품도 해체하는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現世代는 물론이고 다음 몇세대의 인류에게는 현실성을 가질 수 없는 문제이다.「理想社會에 있어서는 인간 그 자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全知全能의 인간사회로 될 것이다. 설혹 모든 財物이 무진장으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優劣이 있을 것인데도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그것을 획득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共產主義社會는 일종의 天國이나 極樂世界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理想社會로서의 共產主義社會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할 때에도 각자의 개성이 없어진 공허한 사회일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로부

터 동떨어진 未知의 世界일 것이다.

현실의 人間사회는 경쟁과 협동도 있고, 대립과 통일도 있으며 利益社會的의 面과 共同社會的의 面도 있다. 世界觀도 人生觀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각자는 자기의 苦樂이 있고 愛情과 憎惡도 있다. 社會主義社會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社會주의사회가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的의 所有와 社會的의 運營을 유지하면서 消費의 社會化까지도 실현하여 共產主義社會에 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현실의 人間성에 적용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먼 未來에 속하는 과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나. 理想과 現實

共產黨이 政權을 장악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實相을 보면 共產主義가 目標로 내세운 理想社會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私有財産의 廢絶問題

본래 共產主義의 소박한 개념은 “私有財産이 모든 罪惡의 根源이기 때문에 私有財産을 없애버리고 재산을 共同管理만 하면 행복한 社會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근대적 의미로서의 共產主義 즉 마르크스·레닌主義도 理念的인 前提가 되는것은 私有財産의 否定이다.

그러나 私有財産은 人間생활에 있어서 없앨 수 없는 必要한 것이며 生存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私有財産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된다.

자기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人間으로서 당연하며 道德의 標本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人間은 自立하는 人間이어야 하고 自活하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民主主義의 基本要件은 國民 개개인의 自立이다. 그러므로 經濟的으로 나 精神的으로나 自立한 사람이 없는 곳에 참다운 民主主義가 성립할 수 없다.

共產國家에서 私有財産을 否定한 결과 주민들은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經濟的으로 共產黨에 예속되는 한편, 獨立된 價値觀이 없는 까닭에 이데올로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私有財産은 人間尊嚴性的의 보호와 生存과 生活의 自由를 위해서 없애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所有가 늘어남에 따라 自由도 擴大되어 왔다는 사실을 歷史를 통해서 알고 있다. 물론 私有財産으로 인하여 國家의 統治나 國家防衛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財産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개인의 權利에 差別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私有財産 그 자체를 否定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私有財産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私有財産의 廢絶」을 들고 나와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을 목표로 共產革命을 일으켜 70년동안 共產黨統治를 한 共產國家의 경우, 私有財産을 없앨 수 없다는 敎訓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산국가는 私有財産의 廢絶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私有財産의 폭을 조금씩 늘려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유재산 전부를 國유화하거나 共有化하지는 못하고 있다.

私有財産制度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과제로 삼는 공산국가에 私有財産이 왜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共產主義는 理論的으로 성립될 수 없게 된다.

私有財産을 否定하는 共產黨이 絶對權力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共產國家에 사유재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확대되어 가는 사실로 보아서도 私有財産은 필요하다는 것이 잘 입증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사유재산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 공산당간부나 행정관료등 特權階級들은 사유재산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세습화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私有財産을 근본적으로 否定하는 것은 理論上의 문제일뿐 實際上으로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여기에 바로 共產主義가 가지는 근본적인 虛構性이 있는 것이다.

2) 地上樂園의 建設問題

共產主義에서는 私有財産만 없으면 모든 階級은 소멸될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共產國家에서는 착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는 엄연히 階級이 존재하며 모든 분야에서 階級間的 격차가 현저하다. 공산주의 職業革命家들은 無階級社會를 내걸면서, 권력을 잡기만 하면 어느틈에 그 國家權力을 自己目的化해 버리고 政權을 잡기 위해서 혁명한 職業革命家들은 權力을 잡은 뒤에는 재빨리 特權階級으로 탈바꿈해 버린다.

無階級社會를 만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絶對特權을 가진 階級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特權도 없이 억압만 받는 가운데 오직 노동할 義務만 짊어진 階級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노동자의 해방과 평등 그리고 階級消滅을 표방하는 공산국가에 特權階級이 생겨나고 그 특권계급이 세습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공산국가에 無階級의 理想社會 즉 地上樂園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낱 幻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共產主義社會가 되면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한대로 받는다고 하는 地上樂園의 꿈은 虛妄한 소리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노동은 能力만큼만 하고 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 社會는 無限定의 生産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資源은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의 生産이란 것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무제한의 人間欲望을 다 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받는다”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즉 能力만큼 일해야 하는 그 각자의 能力은 각자가 생각하는 能力이 아니라 國家(사실상은 共產黨)가 인정하고 부여하는 能力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해야 할 勞動量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노동량이 아니라 共產黨이 요구하는 노동량인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그 必要도 각 개인이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共產黨으로부터 주어지는 필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각하는 能力과 必要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共產主義社會의 낮은 단계라고 하는 社會主義社會(共產國家)에서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얻는다”는 구호밑에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理解할 수 있다.

共產統治者들은 人類가 도달하지도 못할 共產主義社會라는 地上樂園을 표방하면서 人間에게 끝없는 憎惡와 鬪爭을 강요하며 그 理想世界를 共產獨裁라는 強制權力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증오와 투쟁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憎惡와 鬪爭은 필경 相互監視하고 同志間에 투쟁하고 流血肅清하는 살벌한 사회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未來의 地上樂園을 憎惡와 鬪爭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幻想은 白日夢이 아니라면 소박한 대중을 선동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理想과 現實의 昏迷

共產主義에서 선동구호로 부르짖는 理想社會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는 적어도 共產主義者에 의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共產統治 70年을 통한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共產主義者들은

① 無慈悲한 獨裁政治를 강행하면서도 “幸福한 地上樂園을 만든다”고 했고,

② 새로운 特權階級을 만들고 계급간의 격차를 점점 확대하면서도 “階級없는 社會를 창조한다”고 했고,

③ 一黨獨裁를 만들고 國家權力을 점점 더 強化하면서도 “國家의 死滅”을 주장하고,

④ 勞動者를 賤待하고 억압하며 최대한으로 혹사하고 착취하면서도 “勞動階級の 解放”을 부르짖고,

⑤ 特權階級の 私有財産을 점점 增大시키고 相續시킬 수 있는 보장까지 하면서도 “私有財産이 없는 社會”를 指向한다고 하고,

⑥ 憎惡와 鬭爭을 선동하고 共產革命을 최대한으로 輸出하려고 하면서도 “永遠한 平和의 樂園”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逆說的인 현상들은 共產主義者들이 意識的으로 만들어냈건 아니건 간에 事實로 存在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共產主義의 虛妄된 理想이 空論일 뿐 아니라 共產主義 자체가 矛盾과 誇張과 獨斷과 偏見과 非科學性과 非人間的인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共產主義는 時代的인 產物이다. 따라서 共產主義도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修正되고 變化한 부분이 적지않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되는 本質的인 要素는 변하지 않고 있다.

6. 結 言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맛보았으며 6·25를 통해서 동포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경험했다.

오늘도 우리는 民族分斷이라는 커다란 시련 속에서 가시지 않는 상처의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歷史의 敎訓을 새롭게 되새기고 現在 우리가 처해 있는 位置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있었던 傷處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現在 共產國家 중에서도 가장 閉鎖的이고 異端的이라고 評價받고 있는 北韓의 共產集團과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對話의 廣場에 이끌어내기위해 努力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世界平和와 社會正義, 그리고 人間尊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共產主義는 國際平和와 秩序를 威脅하고 勢力擴張과 侵略을 주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人間의 尊嚴性을 모독함으로써 歷史的 犯罪를 저질렀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共產主義의 本質을 알아본 결과, 共產主義가 오늘날 問題視되는 社會는 共產主義의 革命公式과는 달리 先進資本主義社會가 아니라 內部不安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家 또는 後進弱少國家라는 점이 注目된다.

經濟的으로 資本主義體制를 택하고 政治的으로 自由民主主義를 택하면서 아직도 發展段階에 있는 社會에서는 共產主義의 宣傳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즉 資本主義社會의 競爭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 自由競爭體制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物質萬能主義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社會的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고 높아진 期待와 欲求의 充足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資本主義體制의 장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存在할 수 있다.

그러나 民主福祉社會로 발전한 先進資本主義國家의 경우 共產主義는 이제 問題視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는 資本主義의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敎訓은, 共產主義的 暴力革命이 人類共同의 宿題인 人間不平等의 解消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歷史的 記錄과 經驗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警戒해야 할 問題가 있다면 그것은 共產主義者와 共產主義革命이데올로기와의 關係이다.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는 바로 共產主義者들의 世界觀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者들은 現實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黨派的 이데올로기의 안경을 통하여 현실을 본다.

한편 共產主義者들은 自己의 世界觀을 固守하되 實踐運動에 있어서는 現實에 대하여 伸縮性 있게 대응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는 狀況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戰術을 구사함으로써 共產主義 자체의 약점을 補完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의 戰術的 行動의 변화를 본질적인 最終目標의 포기로 理解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參考文獻〉

1. 共產主義批判 方法論 摸索(韓國精神文化研究院)
2. 共產主義批判(極東問題研究所)
3. 共產主義 革命類型과 實體(自由評論社)
4. 社會主義와 共產主義(靑文社)
5. 共產主義大系(極東問題研究所)
6.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民族主義(亞細亞文化社)
7. 康仁德, 共產主義와 統一戰線
8. 全斗烈, 마르크스·레닌主義 崩壞
9. 강인덕편, 페레스트로이카「소련주요논문선집」, 극동문제연구소, 1988.
10. 강인덕편, 개혁과 개방「중국주요논문선집」, 극동문제연구소, 1988.
11. 共產圈의 變化(韓國國民精神教育硏究會)
12. 마르크스思想의 構造(教育科學社)
13. 哲學의 貧困(칼·마르크스)
14. 經濟的·哲學草稿(칼·마르크스)
15. 도이체 이데올로기(칼·마르크스)
16. 共產黨宣言(칼·마르크스)
17. 資本論(칼·마르크스)
18. 고타綱領批判(칼·마르크스)
19. 家族·私有財產·國家의 起源(엥겔스)
20. 反뒤－링論(엥겔스)
21. 國家와 革命(레닌)
22. 帝國主義論(레닌)
23. 무엇을 할 것인가(레닌)
24. 레닌主義諸問題(스탈린)

Ⅱ. 共產主義 革命 戰略戰術

章 洙 棟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여기에서 論及하는 戰略·戰術이란 흔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용하는 戰爭과 관련한 狹義의 軍事的 概念이 아니라 共產化革命과 관련한 廣義의 政治的 概念인 것이다.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對南戰略·戰術도 金日成의 獨創物이 아니며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式化¹⁾시킨것을 소위 「創造적으로」 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공산집단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전략·전술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모든 국민이 그들이 구사하는 戰略·戰術을 原理的 次元에서 體系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산주의는 사실상 內面的으로 戰略·戰術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戰略」과 「戰術」이란 그 運用次元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兩者間의 相互關係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 양자간의 運用次元 및 相互關係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戰略이 마치 戰術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것처럼 혼돈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자본주의 발달이 미숙한 中進國이나 後進國(植民地, 從屬國)에서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레닌主義의 連續2段階 革命戰略의 運用原理²⁾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非—非

1) 스탈린, 「레닌主義의 基本에 관하여」 1924, 同 레닌主義의 諸問題 1939, 모스크바, 外國文書籍出版部, 1949(韓國語版), pp.111~119.

2) 마르크스·엥겔스, 共產黨宣言, 宮川實譯·解説의 三, 第3인터내셔널과 그 「綱領」, 東京, 青木書店, 1955, pp.160~165.

再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부족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모두 일률적으로 임기응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또한 본격적으로 私有制를 타파하는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기 이전의 前段階革命인 「부르주아民主主義革命」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종료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란 해당 革命段階의 혁명목적이 달성될때까지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基本計略이기 때문에 구체적 狀況(情勢)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전술이란 그같은 戰略計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策動技法이기 때문에 전략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 때, 戰略이란 공산화혁명운동에 있어서의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기본적 계략이라 한다면 戰術이란 가변성이 있는 구체적 행동강령이면서도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이란 2단계로 수행되는 중진국 또는 후진국의 혁명에 있어서는 그 段階別 戰略이 각각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북한공산집단의 連續2段階革命戰略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戰術의 전개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은 혼돈을 막고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略을 명확히 이해시키고자 하는 토대위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戰術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모든 行動原理를 상호연관성있게 분석 해설함으로써 그들의 反民族的, 反平和의 음모성의 정체를 폭로하여 「知彼知己면 百戰不殆」의 효과를 거두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共產主義戰略·戰術의 一般運用原理

가. 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

1) 唯物史觀의 思考

唯物史觀이란 唯物辨證法에 입각한 歷史觀으로서 인류의 歷史를 原始共同體社會가 分業에 따른 계급의 分化로 말미암아 私有制社會인 階級社會로 反轉되어 奴隸制社會, 封建制社會, 資本主義社會를 거쳐 그것이 다시 公산주의사회로 再反轉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滅舊生新的 歷史解釋태도이다.

이와 같은 唯物辨證法的인 歷史觀에 따르면 “原始共同體가 分業 및 階級分化에 따라 質的으로 다른 계급사회로 전환된 이후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계급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는 불완전한 質的變化(革命)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형태가 바뀐데 불과하고 사유제사회인 계급사회로서의 그 본질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 왔으나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면 고도산업화에 따라 극소수화된 부르주아지를 압도적으로 多數화된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함으로써 드디어 근본적으로 私有制와 그에 따른 계급 자체가 없어지는 공산주의 사회, 즉 “발전된 完全한 無階級社會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質的變化」가 곧 그들이 강조하는 바의 對立物의 鬭爭結果로 얻어지는 「矛盾克服」이며 또한 「否定」으로 보는 혁명인바, 그것은 낡은 것의 소멸과 새로운 것의 발생에 의한 滅舊生新的의 唯一化, 즉 「非妥協的 征服」이며 결코 시간적인 先後關係를 초월한 통합, 즉 「相互共存的 綜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³⁾ 여기에서 우리는 유물사관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추구하는 바의 統一이 결코 南北韓의 대등한 融合的 統合이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새로운 요소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포함한 낡은 요소들이 구축, 소멸되는 식의 滅舊生新的 征服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合作統一論(고려연방제)이 결코 이념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戰術的인 僞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사고 및 행동방식을 각각 독립적으로서가 아니라 상호연관성있게 有機的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2) 戰略·戰術的 行動

가) 沿革

공산주의 전략·전술은 大衆을 혁명에 동원 및 유도하는 策動的 運動技法으로서 레닌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스탈린에 이르러 그 이론적 「틀」이 정식화되었고 또한 그 내용이 더욱 보완되었다. 레닌은 戰略的次元에 대하여 言及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戰術」이라는 용어로 일괄 표현하였으나 스탈린은 그 중에서 持續的 本질부분을 「戰略」, 그리고 可變的 現象부분을 「戰術」로 구분, 定式化하여 論述하였다.

레닌은 러시아革命的 현실적 가능성을 분명히 내다보면서도 그 社會發展段階上 마르크스의 전통적 혁명론에 의해서는 도저히 社會主義革命的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는데 고심하였다. 따라서 레닌은 러시아혁명이 직접 私有制를 打倒하는 社會주의혁명으로 직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일단 인정하고, 먼저 부르주아社會段階를 조속히 끝맺게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다시 그 여세를 몰아 社會주의혁명을 지체없이

3) 소聯邦科學院哲學研究所, 哲學教程, 第2分冊, 森宏一, 寺澤恒信譯, 合同新書, 1968, pp. 418~437

三浦つとむ「辨證法이란 어떤 科學인가」, 東京, 講談社, 現代新書, 1968, p.237. 마르크스, 「해결法 哲學批判」(1844), 新明正道 服部英太郎譯, 마르크스·엔겔스 全集, 第1卷, 東京, 改造社, 1928, p.353.

金永學, 마르크스·레닌主義白書, 明成出版社, 1982, p.133.

수행하는 連續2段階 革命方式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혁명이므로 비록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수행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그 혁명의 주도권만은 프롤레타리아트(黨)가 장악해야 하며 無力하고 非革命的인 부르주아지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부르주아민주혁명 그 자체의 수행도 어렵거니와 설사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을 지원하여 혁명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의 轉換이 방해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부르주아지는 다만 專制君主勢力에 협력하지 않도록 격리, 중립화시키고 數的으로 우세하며 프롤레타리아트와 처지가 비슷한 農民大衆을 同盟軍(豫備軍 또는 補助軍)으로 삼고 專制君主制를 타도하고 나서 지체없이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러나 이에 대하여 멘셰비키(Menshevik)들은⁵⁾ 부르주아민주혁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주도하여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로서는 다만 부르주아지를 지원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주아민주혁명 수행후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상당히 성장한 다음에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민과의 동맹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볼셰비크(Bolshevik)와 멘셰비크(Menshevik)는 부르주아민주혁명을 먼저 수행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한다는 基本方針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였으나 主力軍과 補助軍(豫備軍)의 편성, 배치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마르토프 中心의 멘셰비크가 마르크스敎理를 敎條主義的으로 해석하며 기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였

4) 스탈린, 前揭書, pp. 111~112.

5) 멘셰비키는 멘셰비크(少數派)에 속한 構成員, 즉 Menshevist를 뜻한다. 지금의 소련 共產黨의 前身인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에는 當時 마르토프를 支持하는 멘셰비크(少數派)와 레닌을 支持하는 볼셰비크(多數派)가 있었는데 이 兩派間에는 共產革命을 위한 方法論上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本質的인 目的에는 差異가 없었다.

다면, 레닌 中心의 볼셰비크는 그 교리를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었다.

레닌은 멘세비크의 태도를 觀照主義라고 비난하고 러시아사회민주당 동당 제 2 차대회(1903·7)이후 사사건건 이들 兩派가 대립하였는데, 그 중요원인이 전술한 바와같이 戰略的 力量配置計劃과 그에 따른 黨組織論에서 비롯되었다. 즉 레닌은 자신의 戰略構想에 따라 정예, 비밀 및 集權의인 黨을 원한데 반하여 마르토프등 멘세비크는 大衆, 公開 및 民主的인 黨을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西歐的 마르크스主義黨에 의한 合法的 鬭爭을 구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1902) 「一步前進 2步後退」(1904),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1905), 「제국주의론」(1916), 「국가와 혁명」(1917),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背教者 카우츠키」(1918)⁶⁾ 및 「共產主義의 左傾小兒病」(1920)등, 일련의 모든 著述들은 한결같이 러시아혁명 및 과도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戰略과 戰術的技法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레닌의 저술들은 후일 스탈린에 의하여 「레닌主義의 基本에 관하여」(1924)라는 題名下의 著作物로 집대성되었는데, 「戰略과 戰術」이 그 책의 제 7 장에서 체계적으로 定式化됨으로써 모든 레닌主義黨의 行動指針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나) 特徵

스탈린은 레닌主義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지도하는데 관한 과학”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戰略」과 「戰術」에 대한 개별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戰略은 “革命的 해당단계의 토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方向을 결정하고 革命的 力量(주요 및 부차적 補助軍)의 적절한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革命段

6) 레닌은 카우츠키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기피하는 背教者로서 규탄하였는데 그 理由는 그가 暴力使用을 反對하였기 때문이었다.

階全期間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鬪爭”이라고 하였다.⁷⁾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黨)가 해당 혁명단계중 타도하고 성취할 목표를 정하고 그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누구와 동맹하고 누구를 中立化(隔離)시킬 것인가를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는 基本計略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戰略은 상황의 일시적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하는것이 아니라 그 기본목표 달성까지는 일관성있게 지속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戰術은 “운동의 滿潮와 干潮, 혁명의 양양과 침체등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노선을 결정하고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교체하거나 배합하는등의 방식으로 그 路線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따라서 이같은 戰術은 일정한 혁명단계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基本計略이 아니라 그 기본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革命段階에도, 그리고 그 다음 혁명단계에 있어서도 정세(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게 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략계획을 실수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戰略的 指導라고 하며 戰術計劃을 적시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戰術的 指導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전략적 지도면에서 볼때, 필요한 보조군과의 동맹을 외면하면 戰略的 左傾이 되고, 반면에 지나치게 同盟의 폭을 넓히거나 그 時期를 연장시키려는 것은 전략적 右傾이 되며, 전술적 지도면에서도 干潮期에 있어 滿潮期에 쓰이는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내걸면 戰術的 右傾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戰術的 左傾으로 지적된다.⁹⁾ 대체로 右傾 誤謬는 소심한 겁장이 간부에 의해서, 그리고 左傾 오류는 혹시 잘못하면 右傾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급진적 경향을 나타내는데서 비롯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7) 스탈린, 前揭書, p. 111.

8) 스탈린, 前揭書, p. 113.

9) 金永學, 前揭書, pp. 219~220.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左·右傾이 모두 기회주의이며 다만 그같은 기회주의가 안으로 굽으면 「左傾」이 되고 밖으로 굽으면 「右傾」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共產化革命 戰略 및 戰術類型

1) 革命의 基本類型

戰略의 유형은 革命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革命의 유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필연적으로 反資本主義的 革命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으로만 설명하였고 후진국가에서의 革命문제에 관해서까지 자세히 논한바는 없다. 그런데 레닌은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발전이 불균등함을 전제로, 종전의 선진국가와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려는 국가사이의 殖民地 爭奪戰으로 나타나는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는 식민지에서의 수탈로 인하여 국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후진국가는 대내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첨예화됨으로써 國際帝國主義 戰線中 가장 약한 고리로 된다고 하였고,¹⁰⁾ 바로 그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러시아이므로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革命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레닌의 敎示를 토대로 하여 코민테른(國際共產黨) 제 6 차대회(1928. 7~8)에서 채택된 강령에 의하면 각국의 정치경제적 發展段階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一國革命方式이 제시되고 있다.

가) 先進國의 革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충분히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즉시 프롤레타리아

10) 레닌, 「資本主義의 最後段階로서의 帝國主義」(1916), 共產主義要典, 東京, 日刊勞動通信社, 1959, p.148.

(공산당)獨裁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혁명방식은 선진국가에는 이미 민주화가 이룩되었고 또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충분히 성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아직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성취한 공산 국가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中進國의 革命

중진국가에 있어서는 일단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段階革命이 필요한 이유는 중진국가에서는 아직 封建制度가 잔존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같은 방식으로 공산화된 국가가 바로 소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後進國의 革命

植民地, 半植民地 및 從屬國에 있어서는 民族獨立鬭爭과 反封建民主革命을 성취하고 나서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하되 특히 이미 공산화된 국가(소련)의 직접 支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후진국에는 外勢가 침투되어 있으며 또한 봉건제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같은 방식에 의하여 공산화된 것이 소련 이외의 거의 모든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다.

2) 戰略의 基本類型

전략의 유형은 前述한 혁명유형에 따라 부르주아民主主義혁명전략, 反帝·反封建民主主義(新民主主義·人民民主主義)혁명전략 및 社會主義혁명전략, 그리고 이같은 一國革命 성취후에 수행되는 世界革命戰略으로 구분된다.¹¹⁾ 그런데 이들 各異한 革命戰略의 차이점은 그 궁극적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계, 절차상의 當面目標 및 목표수행을 위한 革命力量의 배치계획에 있다는데 불과한 것인바 그 대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표1〉 戰略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가) 부르주아民主主義革命戰略

이것은 中進國에서의 前段階革命戰略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우선 封建遺制를 소탕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해서 數的으로 열등한 프롤레타리아트를 主力軍으로 삼고 수적으로 우세한 농민을 同盟軍으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 명칭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전략이면서도 부르주아지는 專制君主勢力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中립화시켜 무력화시킨 다음, 전제군주세력을 먼저 타도하는데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혁명에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것으로 미리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¹²⁾

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

이것은 後進國에서의 前段階혁명전략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먼저 外勢驅逐 및 國內封建制度를 타파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해서 노동자계급 영도하의 勞·農同盟軍을 主力軍으로 삼고 타도대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각계각층을 동맹세력으로 포섭하게 되는 것이다.¹³⁾ 그런데 이 혁명전략단계에서는 그때그때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外勢와 국내 反共勢力의 타도에 優先順位를 정하고 兩者를 격리, 고립화시켜 차례로 각개격파하는 방식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戰略的指導」이다.

다) 社會主義革命戰略

이것은 선진국 또는 중진국과 후진국에서의 後段階革命戰略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私有制를 청산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한 主力軍은 프롤레타리아트이고 補助軍은 小作人 등 極貧農에 국한된다.¹⁴⁾ 따라서 小市民階層은 부르주아지와 협력하지

12) 스탈린, 前揭書, p.112.

13)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85.

14) 스탈린, 前揭書, p.112.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켜 부르주아지를 먼저 타도하고 난 다음, 그들을 제거하거나 노동자로 개조하도록 책정하고 있다.

라) 世界革命戰略

이것은 各國이 자국의 사회주의혁명을 기본적으로 성취한 후에 그 革命을 밖으로 수출하는 단계의 戰略인바, 그 전략목표는 國際資本主義의 타도이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하여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主力軍으로 삼고, 전세계 先進諸國의 半프롤레타리아트(農民, 中間層)와 후진제국의 民族解放鬪爭勢力을 동맹세력으로 책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그들은 각국의 小부르주아民主諸黨이 부르주아지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켜 부르주아지를 집중공격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런데 最近年에 와서 中·蘇의 指導者들이 취하고 있는 言動은 以上에서 言及한 世界革命戰略에 대한 認識上的 變化 조짐을 보이는 면도 있는바 이는 共產主義 世界觀의 변화여부와 더불어 注目の 對象이 아닐 수 없다.

3) 戰術의 基本類型

전술이란 어떤 혁명단계에 있어서나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것이어서 전략과 같이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多種多樣한 것이 그 특징이다.¹⁶⁾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술들이 새로이 조성되는 정세변동에 적응하도록 창안될 수도 있다. 전술은 滿潮期에는 攻擊, 干潮期에는 後退, 그리고 그 中間期에는 防禦를 취하게 된다. 또한 완전한 만조기가 조성되기 이전에도 역량배치 계획에서 책정된 同盟勢力들을 포섭, 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기회있는대로 迂迴攻擊으로써 부단히 主敵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구사하는 바 그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攻擊型 戰術

혁명의 主·客體的 여건이 昂揚期라고 간주될 때 그들 共產黨은 평화

15) 스탈린, 前揭書, pp.112~113.

16) 註2) 戰術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적 봉기로써 彼我的 力量을 「計算」해 보며 어느정도 자신이 서게되면 피아역량을 직접 시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위 「滿潮期」가 조성되면 이 때를 놓치지않고 武裝蜂起를 단행하는 것이 그들의 봉기방식이다.

만조기란 상층지도계급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기존체제의 유지가 어렵게되거나¹⁷⁾, 하층계급의 고통이 극도로 악화되어 반항기운이 충만하였을 때¹⁸⁾를 뜻한다. 이와 같은 만조기에 共產黨은 정치적 파업과 시위, 國會보이코트, 暴動展開 및 전투적 표어를 제시하여 투쟁하며 그 조직형태는 혁명적 공작위원회, 농민위원회, 파업위원회 및 공공연한 공산당의 地上活動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 後退型戰術

前述한 바와 같은 공격에 임하였을 때 상대방의 우세한 반격에 직면하여 오히려 위급한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지체없이 후퇴함으로써 자체의 생존유지를 꾀하게 된다. 後退에는 「退却」과 「妥協」이 포함되는바 이와 같은 후퇴는 결코 후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간부구출과 主要陣地(既得權)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후퇴후 隊列을 정비하고 역량을 회복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퇴각은 덜 중요한 陣地를 내주면서 계획적으로 예정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후퇴하는 것이며,¹⁹⁾ 타협은 일정한 지역과 自體政權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타협하는 것²⁰⁾을 뜻한다. 이와 같은 受難期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鬭爭形態, 組織形態 및 標語를 간조기용으로 교

17) 소위「上層階級の 危機」이다. 레닌 第 2 인터내셔널의 崩壞(1914), 吉田弘譯, 東京, 國民文庫版, p.36.

18) 소위「上層階級の 危機」이다; 上揭書, p. 37

19) 中共黨의 「2萬5千里 大長征」(1934)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20) 레닌이 10月革命 直後 對獨講和를 呼訴하여 成就시킨 「브레스트·리톱스크」講和 및 韓國動亂時 北韓共產集團이 蘇聯(탈리크 UN 代表)을 내세워 休戰을 제의한 것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체하고 地下에 숨어들어 戰力 재정비에 임하게 된다.

다) 防禦型戰術

共產黨은 일단 후퇴하고 나서 自體戰力을 재정비하는 기간에는 방어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潮水의 沈滯期에는 守勢의 방어로 임하되 조수가 양양함에 따라 점차 공세적 방어로 전환하게 된다. 방어형전술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平和(共存)戰術이며, 中立化戰術과 침투·폭로전술등도 방어형에 속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平和戰術은 主敵을 상대로 자체 역량을 비축하는 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려는 수법이고 中立化戰術은 中間浮動層을 反政府的 親共的 集團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침투·폭로전술은 유리한 객관적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세적 방어수법이다. 이와 같은 방어기간중 공산당은 간조기 및 만조기용 투쟁·조직 형태 및 표어를 배합하게 되며 조수가 昂揚됨에 따라 攻勢的 要素를 가중시켜 나가는 것이 戰術的 配合의 原理이다.

라) 迂迴型 戰術

혁명운동이 대체로 昂揚期에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統一戰線에 의한 우회공격이 있다. 통일전선전술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 방법면에서 위로부터 또는 밑으로부터의 統一戰線構築²¹⁾, 그리고 국제적 통일전선의 형성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변모하게 된다. 이같은 통일전선에 의한 수법은 1920년대에 레닌에 의해 개발된 이래 점차 국제화되면서 1930년대 후반에 反파쇼 人民戰線戰術을 거쳐 第2次世界大戰 이후에는 反帝·反封建的 人民民主戰線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로 후진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으로 階梯化되었다, 공산당은 이같은 통일전선의 수법을 구사함에 있어서 守勢 및 攻勢的 방어전술

21) 「위로부터」란 幹部經由, 「밑으로부터」란 直接 下部要員 大衆을 包攝하는 것이다. 統一戰線戰術이란 共產黨이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때까지 비공산세력을 이용하기 위한 잠정적 동맹 조직전술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上層統一戰線戰術(戰術的 同盟)과 下層統一戰線戰術(戰略的 同盟)이 있다.

을 밀접히 배합해 가면서 가능한 鬪爭·組織形態 및 標語를 취하게 되며 만조기가 조성되면 정면공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 共產化革命戰略 및 戰術計劃

1) 段階의 轉換原理

전략은 해당 革命段階中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기본전략이므로 잠정적인 정세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또는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는 그 혁명이 달성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주아民主主義革命戰略 또는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이 일관성있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前段階革命이 일단락되어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시에는 전략 역시 사회주의혁명전략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혁명 단계는 그 自體의 혁명전략을 지닌다는 점에서 혁명과 전략사이에는 1대 1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같은 관계를 革命과 戰略段階의 一致性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들의 행동에서 변화무쌍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바로 전술 부분인 것인바, 하나의 革命戰略段階中에서도 정세나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공격, 후퇴, 방어 및 우회공격등으로 변모하는 것이 전술의 段階轉換原理이다. 그러면서도 전술은 반드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에 대한 종속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目標의 設定原理

戰略과 戰術의 段階란 어떠한 목표 및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일정기간을 뜻하는 것이므로 전략과 전술단계의 차이는 곧 指向目標上의 차이와 직결된다. 전략이 지향하는 목표는 해당혁명을 직접 완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며 포괄적인 것이나 전술이 달성해야 할 임무는 만조기에는 戰略目標의 직접공격, 그리고 간조기에는 일시적으로 후퇴임무가 할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후퇴임무를 달성하고 나면 곧 이어 방어임무로 전환하게

되며 수세적 방어에 어느정도 성공하면 점차 攻勢의防禦로 전환하여 정세의 호전을 포착하는대로 다시 공격을 취하는등 戰術任務는 혁명여건의 干滿에 따라 수시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완전한 만조기가 조성되기 이전에도 공산당은 그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한 세력이면 그것이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인 세력일지라도 동맹군으로 삼고 主敵을 압박하는 迂廻攻擊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바,²²⁾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統一戰線 수법이다. 그런데 戰術的 成功이 戰略的 見地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有害로운 경우에는 그같은 戰術任務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全술運用상의 원리로 되어 있다. 공산당이 중시하는 것은 全술적 임무 그 자체가 아니라 戰略目標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全술적 성과이므로 全략적 見地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全술임무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그 임무가 설정될 수 조차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戰略·戰術的指導

戰略的指導란 全략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力量配置計劃에서 策定된 補助軍을 옹계 이용하는데 重點을 두는 것이다. 스탈린은 혁명에 이용가능한 보조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여 그 이용방법을 가르치고 있다.²³⁾

〈直接補助力量〉

- ① 自國의 농민과 中間層(第1)
- ② 인접국의 프롤레타리아트(第2)
- ③ 식민지, 종속국의 독립투쟁(第2)
- ④ 既 戰取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第2)

〈間接補助力量〉

- ⑤ 自國內의 비공산주의세력간의 충돌
- ⑥ 資本主義 國家間的 矛盾 및 戰爭

상술한 바의 補助軍, 즉 혁명적 제세력으로 하여금 적시에 공격 또는

22) 레닌, 「共產主義의 左傾小兒病」(1920), 스탈린, 前揭書, p.127.

23) 스탈린, 前揭書, p.115.

후퇴를 취하게 함으로써 速度喪失 또는 時機尙早에 빠지지 않도록 전술 전환의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지도과제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즉 후퇴시까지도 前衛로 하여금 결코 전략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쟁의 방향을 견지하게 하는 것 역시 戰略的 指導에 속하는 과제이다.

한편 戰術的 指導의 主課題는 상황에 알맞은 투쟁·조직형태 및 표어를 구체적으로 교체 및 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면한 혁명투쟁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고리를²⁴⁾ 포착하여 그것을 적시에 끌어당기는 것도 戰術的 指導의 소관분야이다.

이와 같이 戰略計劃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며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戰略的 指導課題라면 戰術計劃을 적시적절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戰術的 指導課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戰術計劃 自體가 전략계획에 종속되고 있으므로 전술적지도 역시 전략적지도에 따라 수행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24) 여러 難題中에서 그것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핵심적 문제를 뜻한다. 북한「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558.

(丑 1) 戰略의 類型과 運用原理

類 型	運 用	비 고(註)
<p>부르주아 民主主義 革命戰略</p> <p>1. 중진국의 前段階혁 명전략</p> <p>2. 私有制가 존속하는 연합獨裁</p> <p>3. 社會主義혁명전략 으로 이행</p>	<p>1. 目標：封建遺制 清算(名分上)</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主力軍：프롤레타리아트</p> <p>○補助軍：농민</p> <p>나. 속도유지(戰術交替時期)</p> <p>다. 방향유지(후퇴시 포함)</p>	<p>1) 同盟 및 고립화대상을 책정하고 임부부여</p> <p>2) 공격 및 후퇴 時期決定, 交替統制</p> <p>3) 어떤 戰術下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戰略目標을 명심하도록 통제</p>
<p>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 (新民主主義 혁명전략)</p> <p>1. 後進國의 前段階의 혁명전략</p> <p>2. 私有制가 존속하는 聯合獨裁</p> <p>3. 社會主義혁명전략 으로 이행</p>	<p>1. 目標：外勢驅逐, 封建制 清算(名分上)</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主力軍：勞農同盟軍</p> <p>○補助軍(Ⅰ)：各界各層</p> <p>○補助軍(Ⅱ)：國際革命力量</p> <p>나. 速度維持(上同)</p> <p>다. 方向維持(上同)</p>	<p>1) 勞動者階級 영도하의 勞·農同盟軍이다.</p> <p>2) 共產國 및 비동맹國의 反西方세력을 뜻한다.</p>
<p>社會主義革命戰略</p> <p>1. 中·後進國의 後段階혁명전략</p> <p>2. 先進國의 혁명전략</p> <p>3. 私有制를 否定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p> <p>4. 世界혁명전략으로 移行</p>	<p>1. 目標：私有制 清算</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主力軍：프롤레타리아트</p> <p>○補助軍(Ⅰ)：極貧農</p> <p>○補助軍(Ⅱ)：隣接國프롤레타리아트</p> <p>나. 速度維持(上同)</p> <p>다. 方向維持(上同)</p>	<p>1) 非共產主義勢力間의 갈등 및 資本主義國家間의 전쟁을 「有利한 契機」 즉 間接補助軍으로 삼는다.</p> <p>2) 富農은 打倒대상, 中農·小農은 中立化(隔離)대상이 된다.</p>
<p>世界革命戰略</p> <p>1. 모든 國家의 最終段階革命戰略</p> <p>2. 一國社會主義革命 후에 移行</p>	<p>1. 目標：革命의 擴大, 輸出*</p> <p>2. 指導</p> <p>가. 力量配置</p> <p>○主力軍：國際프롤레타리아트</p> <p>○補助軍：半프롤레타리아트 및 民族解放運動</p> <p>나. 速度維持(上同)</p> <p>다. 方向維持(上同)</p>	<p>※) 소련 중심의 世界革命戰略은 와해되었으나 모든 共產黨이 世界革命을 추구하는 목표만은 변함이 없다.</p>

※ 戰略段階는 革命段階와 일치하며 持續性이 있다.

〈표 2〉 戰術의 類型과 運用原理

類 型	運 用	비 고(註)
攻擊型 戰術 1. 武裝蜂起전술 2. 人民戰爭전술	1. 任務：戰略目標 直接攻擊*) 2. 指導 가. 鬭爭형태：비합법적 鬭爭 나. 組織형태：비합법적 組織 다. 투쟁標語：好戰의 標語 라. 中心고리：政權奪取	※) 戰略目標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공격임무
後退型 戰術 1. 退却전술 2. 妥協전술 ※ 妥協은 一定地域 장악시 후퇴	1. 任務：戰術的 後退*) 2. 指導 가. 투쟁형태：합법적 鬭爭 나. 조직형태：합법적 組織 다. 투쟁표어：平和의 標語 라. 中心고리：生存維持	※) 간부구출 및 중요한 陣地(既得權) 維持 임무
防禦型 戰術 1. 게릴라전술 2. 平和蜂起전술 3. 浸透전술 4. 暴露전술 5. 平和(共存)전술 6. 中立化전술	1. 任務：守勢 및 攻勢의 防禦 2. 指導 가. 투쟁형태：合法·非合法 (配合) 나. 조직형태：合法·非合法 (配合) 다. 투쟁표어：平和·好戰(配合) 라. 中心고리：滿潮期 造成	1) 除列정비 및 力量 비축임무 2) 潮水가 昂揚함에 따라 비합법적 要素를 강화한다.
迂迴型 戰術 1. 統一戰線戰術 2. 人民戰線戰術 3. 人民民主主義戰線戰術(戰略化)	1. 任務：包圍 및 迂迴攻擊* 2. 指導 가. 투쟁형태(上同) 나. 조직형태(上同) 다. 투쟁표어(上同) 라. 中心고리(上同)	※) 타도대상을 고립화, 滿潮期造成 임무

※ 戰術段階는 潮水의 干滿과 一致하며 可變性이 있다.

3.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對南戰略은 이미 序言에서 밝힌바와 같이 결코 金日成집단의 독창물이 아닌 것이다. 마르크스가 창안한 唯物史觀的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革命의 實踐方法으로서 레닌이 開發하고 스탈린이 定式化한 戰略·戰術 모델을 南韓社會에 맞도록 그들 나름대로는 創造的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對南革命 및 「祖國統一」觀

1) 革命의 基本節次問題

북한공산집단이 말하는 소위 「全朝鮮革命」이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한지역의 공산화까지를 자기임무로 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본래 「朝鮮革命」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겠으나 美軍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객관적여건의 제약때문에 북한지역에서만 先行된 셈이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에 한해서만 선행된 공산화 작업을 그들은 「半國的 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같은 半國的 革命은 남한지역까지를 공산화하는 소위 全朝鮮革命을 위한 革命基地 구축에 해당되며 이를 가리켜 「民主基地路線」²⁵⁾이라고 부르면서 무장력, 정치·경제력 및 선전선동기능 강화에 광분하고 있다.

6·25남침이야말로 바로 半國的 革命을 그들의 武力을 이용하여 조급하게 전국적혁명으로 확대하려는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우선 북한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본격적인 공산화 작업을

25) 民主基地路線이란 「바그훈」교수에 따르면 “소련의 統制權이 미치는 部分에 우선 소련의 衛星國을 樹立하고 그 衛星國을 그 나라의 殘餘部分에 대한 支配權 確立의 作戰基地로 利用하는 공산화 팽창政策”의 表現이다. (共産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 「45~68」1968. 6. 25. p. 828.)

韓半島의 경우는 北韓地域을 強力한 政治, 軍事, 經濟的 「革命基地」로 만들어 南韓地域까지 공산화하려는 「스탈린」의 소련위성국 확대정책에 따른 對南共産化革命의 戰略的 指導路線에 해당된다.

전개해 나가기로 작정하고 1953년 8월부터 人民民主主義革命에서 社會主義革命으로 革命段階를 轉換시켰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은 여전히 人民民主主義革命段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南北間의 革命段階는 다르다하더라도 북한의 혁명기지적 역할을 내세워²⁶⁾ 남조선혁명을 全朝鮮革命의 절차상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차 제 2의 朴憲永같은 對北 非從屬的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포석이 된다고 믿고있으며, 이같은 점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對南革命은 곧 북한공산집단의 영도하에 수행되는 남한의 정복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2) 南朝鮮革命과 統一問題

金日成은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의 상관성, 공통성 및 차이점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對南工作 要員들 앞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이 별개의 문제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같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⁷⁾

첫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조선혁명의 일환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兩者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不可分離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한의 공산화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朝鮮革命에 기여한다는 공통성이 있고 또한 주한미군과 한국의 반공정권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도 공통성이 있으며 특히 「主體思想」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혁명투쟁이라는데 있어서도 공통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이 내세우

26) 허종호, 前揭書, pp. 21~27.

27) 金日成敎示,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1968. 7. 8)에서, 歸順者(金用珪) 證言, 內外政策研究所, 內外論叢, 第4輯, 1982, pp. 118~119.

고 있는 소위 主體思想, 主體的 戰略·戰術에 입각하여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남한의 自由民主政權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兩者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각기 그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 그리고 그를 직접 수행하는 主體가 서로 다르며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남조선혁명은 남한지역에서 그리고 조국통일은 전한반도지역에서 수행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地下黨과 그 주위에 뭉친 勞·農同盟軍과 각계각층인데 비하여 조국통일에서의 主力軍은 남북한 전역의 勞·農同盟軍이고 그것을 지도하는 黨도 김일성이 직접 이끄는 북한의 勞動黨이 된다는 점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은 폭력적 방법에 의하며,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이룩하여 人民政權(共產黨이 주도하는 聯合政權)을 수립한 후 이 政權과 북한의 公산정권간에 形式上의 平和協商 節次를 거치는 이른바 合作統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北韓의 「祖國統一」觀

공산주의자들은 해당 社會의 下部構造의 발전정도에 따라 혁명의 방식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戰略·戰術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다. 바로 이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국통일에 관한 주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조국통일이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과 「民族的 및 國際的 性格」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조국통일이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는 남한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植民地的 半封建社會라는데서, 그리고 민족 및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는 까닭은 조국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 내부적인 一國革命인 동시에 世界革命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사실상 조국통일은 혁명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8) 허중호, 前掲書, pp. 45~46.

나. 對南革命戰略의 基調

1) 戰略段階와 目標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略은 한국의 現 體制를 타파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各계各층을 勾합하여 투쟁하는 基本計略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도 밑에 그들은 南韓의 現 처지를 미국 및 일본의 식민지적 종속국이라고 모함하면서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強辯하고 있다.²⁹⁾

따라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구실을 내건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대남 혁명전략의 목표가 駐韓美軍의 철수와 반공정권의 타도에 의한 소위 人民政權의 수립에 있음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그들이 대남 혁명의 목표를 反帝니, 反파쇼니, 反封建이니하고 애써 내세우고 있으나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또한 팻쇼나 봉건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그들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광범한 反美, 反政府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혁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과 구실을 조작하려는 術策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일단 성취되고 나면 2단계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되리라는 점은 그들의 革命原理上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이 黨規約 前文에 朝鮮勞動黨의 당면목적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였고, 최종목적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그같은 저의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2) 統一의 두가지 方法

김일성은 祖國統一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平

29) 1970.11 勞動黨 5次大會 및 1980.10 6次 黨大會에서 改正한 黨規約 前文參照.

和的方法」과 「非平和的方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⁰⁾

이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비평화적방법이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 평화적 방법을 구상해 낸 것이며 또한 그 평화적방법자체가 결코 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데 유념해야 한다. 즉 비평화적방법이란 북한이 무력을 직접동원함으로써 본격적인 戰爭을 통하여 남한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화적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中心고리 전술이 바로 駐韓美軍撤收論인 것이다.

한편 평화적방법이란 남한 자체내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수행된 다음 남북정권을 통합하거나 또는 남한의 現政權(反共自由民主體制)이 聯共政權으로 교체된 다음 南北間의 合作³¹⁾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中心고리전술이 바로 南北聯邦制統一論인 것이다.

그런데 前者나 後者가 모두 남한의 反共政權을 배제하려는 것이어서 現存하는 南北體制사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美제국주 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것이 남조선당국자들과 그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을 하자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³²⁾

그러면서도 북한공산집단이 것처럼 요란하게 평화적통일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평화공세를 펴는 한편 대한민국이

30) 허종호, 前揭書, pp. 264~270.

31) 북한공산집단은 「合作」의 뜻을 대부분의 경우 「統一戰線戰術」과 同義語로 쓰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南北間의 合作과 交流는 國家間의 一般의 合作交流和 엄격히 區分되며 同時에 두 制度間의 共存을 위한 合作과 交流와도 本質的으로 區別된다. “...”따라서 北과 南의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는 廣範圍한 群衆을 階級的으로 覺醒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偉大한 主體思想을 唯一한 指導思想으로 하고 首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首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祖國統一을 위한 鬭爭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重要한 條件으로 된다”云云하고 있다. 허종호, 前揭書, pp. 229~230.

32)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239.

마치 팻쇼적이며 호전적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려는데 그 眞意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國論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對共 경각심을 약화시켜 혁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것처럼 평화를 애호하고 있는듯이 위장선전하는데는 앞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제 2의 6·25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남한측에 전가하려는 저의도 아울러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3) 戰略的 指導課題

전략적지도란 바로 戰略目標의 달성을 위해서 革命力量을 옹계 편성배치하고 결정적시기에 맞추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속도로 공격전술을 동원하도록 조정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전략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一般原理를 북한공산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3大革命力量의 編成

革命과 反革命의 力量對比關係에 있어서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혁명의 主力軍과 補助軍을 어떻게 책정편성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일성은 소위 「3大혁명역량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제 8차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혁명역량을 편성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 ① 「공화국」북반부의 社會主義 革命力量
- ② 「남조선」의 革命力量
- ③ 國際革命力量

여기에서 「남조선의 혁명역량」이란 노동자 계급(黨)이 영도하는 勞·農同盟軍을 주력군으로³³⁾ 삼고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소시민 등에 이

33) 1985. 7. 27,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통일혁명당의 후신) 名義로 發表한 “韓國민족자주선언” 以後는 主力軍을 勞·農·學同盟과 그속에 뿌리박은 前衛組織”으로 再策定하고 있다; 不穩油印物, “주체사상강좌” 제 3 장 민족해방운동의 전략과 전술, 1987. 3, p.6 參照.

르는 각계각층을 혁명의 보조군으로서 反美, 反政府의인 統一戰線에 묶어세운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이란 공산제국은 물론이며 선진제국에서의 노동운동 및 비동맹권에서의 反韓·反西方운동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내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노사간의 갈등, 미·일양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제국간의 갈등을 間接補助軍, 즉 對南革命을 간접적으로 돕는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革命力量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하는 말을 일단 뒤로 미루고 反帝·反封建·反팻쇼의 구호를 내걸고 「駐韓美軍의 撤收」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실현하여 「人民政權」이라는 共產政權을 수립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나) 3大革命力量의 配置

3大革命力量을 편성, 강화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혁명수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직접전쟁의 방법을 취하느냐 또는 남한 자체내에서의 혁명방식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主力軍으로 하며 무엇을 補助軍(여기서도 우선 순위가 있음)으로 배치하는가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공산주의혁명원리에 따르면 아무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革命力量의 편성과 함께 그 배치문제가 중시되는 것인데 김일성이 對南革命戰略 指導에서 제시한 비평화적방법과 평화적방법의 力量配置計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1) 非平和的方法의 경우

첫째, 主力軍은 북한 자체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인 소위 人民軍이며 이들이 미군과의 충돌을 될수록 피하면서 國軍을 공격하여 섬멸한 후 南韓全域을 강점한다.

34) 內外政策研究所, 前掲書, pp.131~132.

둘째, 第1補助軍은 남한의 혁명역량이며 이들이 南進하는 人民軍의 軍事行動을 보조하면서 폭동을 일으켜 남한의 군사력을 분산 약화시킨다.

셋째, 第2補助軍은 國際革命力量이며 이들이 국제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입장을 지지성원하고 남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저지한다.

ii) 平和的方法의 경우

첫째, 主力軍은 남한의 혁명역량중 地下黨(소위 「統一革命黨」 또는 「韓國民族民主戰線」)과 그 주위에 결속된 「勞·農同盟軍」이며 이들이 남한 전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現政權(反共自由民主政權)을 전복한다. 그리하여 혁명정부수립선포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둘째, 第1補助軍은 통일진선에 망라된 각계각층이며 이들이 主力軍의 革命鬪爭을 보조하면서 각 지역에서 地主, 資本家 및 反革命관료들을 타도한다. 그리고 일부 浮動層에 대해서는 反革命的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격리, 中立化시킨다.

셋째, 第2補助軍은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며 이들이 대남공작요원을 대량 남파하여 主力軍과 합류해서 무장폭동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남한의 親共의 革命政權이 요청한 바에 의하여 지원한다는 구실하에 人民軍이 직접무력침공을 감행한다.

넷째, 第3補助軍은 국제혁명역량이며 이들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비롯한 남한 支援力量을 약화, 고립시키고 북한공산집단의 입장을 지지 성원한다.

다) 速度維持의 問題

「決定的時機」란 혁명운동의 主·客體의 여건이 성숙되어 소위 “반혁명적 폭력을 혁명적 폭력으로써 일격에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을 뜻한다.

이러한 시점은 全革命戰略段階中에서 쉽게 얻어낼 수 없는 戰術段階로서 이와같이 귀중한 시기를 어떻게 조성, 선택 및 이용하는가하는 속도유지문제는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戰略的 指導課題로서 매우 중요시되는 것이다.

1) 決定的時機의 展望

그들은 「결정적시기」가 도래하는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³⁵⁾

35) 上揭書, pp.133~134

첫째, 기습남침 즉 비평화적방법을 취하는데 유리한 시기이다. 즉 ① 세계 도처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도처에 분산되지 않을 수 없는 시기, ② 미국내부 여론의 압력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해지는 시기, ③ 남한 전역에서 反美·反政府的인 대혼란이 벌어지는 시기등이다.

둘째로는 남한 자체내부에서의 革命 즉 평화적 방법을 감행하는데 유리한 시기이다. 즉 ① 남한에서 지도층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갈팡질팡하게 되는 시기(上層階級の 위기) ② 남한 내부에서 계급적 갈등이 격화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下層部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시기(下層階級の 위기) ③ 남한의 革命力量이 튼튼히 편성되어 反革命勢力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시기등이다.

ii) 決定的時機의 造成

김일성은 “革命이란 혁명가들의 적극적이고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될 수 있으며 성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³⁶⁾ 즉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主動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그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혁명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결정적 시기를 主動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地下黨을 구축하고 그 주위에 「勞·農同盟軍」을 비롯한 광범한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革命的力量을 튼튼히 다지며

둘째, 광범한 군중속에서 반정부 감정이 일어나 각종 군중투쟁(대중투쟁)을 부단히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反革命勢力을 相互 고립, 약화시키며

셋째, 국제무대를 통한 해외공작을 전개하여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6) 허종호, 前揭書, p.173

III) 決定的時機의 선택

김일성은 “우리가 혁명의 여건을 의도적으로 성숙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겨 조국통일의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혁명여건을 분석 판단하고 결정적 시기를 제때에 선택 포착하는 것이며 일단 시기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결정적 투쟁으로 돌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이 시기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제아무리 革命力量을 잘 편성하고 배치하더라도 결정적시기를 놓치게 되면 역시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며 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革命과 反革命間의 역량대비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 및 「시험」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IV) 決定的時機의 이용

김일성은 일단 결정적 시기가 선택된 다음에는 지체없이 반동통치배들을 짓부시는 결정적 투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혁명에 있어 근본문제는 政權에 관한 문제이다. 적들의 수중에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정치투쟁, 무장투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⁹⁾ 즉 결정적 시기가 선택된 다음에는 지체없이 총공격으로 돌입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지도의 과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총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은 武裝蜂起를 단행함을 뜻한다. 북한공산집단은 지난날 남한의 「4·19」를 보면서도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戰後 복구사업에 몰두하여 그때까지 主體的力量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던 탓인데 지금도 그것을 “千秋의 恨”으로 삼고 있다.

37)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김일성주의 혁명론, 1978, p.173.

38) 허종호, 前揭書, p.176.

39)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前揭書, p.109.

라) 方向維持의 問題

혁명 수행과정에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 선택, 이용하여 적시에 공격으로 전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速度調整問題」가 전략적 지도과제로 제기되나 사태가 불리하여 후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方向維持問題」(전략목표견지)가 戰略的 지도과제로 제기된다.⁴⁰⁾ 즉 「退却」이나 「妥協」은 퇴각 또는 타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차 새로운 공격을 위한 잠정적인 퇴각이나 타협임을 혁명의 主力軍으로 하여금 명심케 하는 것이다.

이같은 戰術의 戰略目標 지향문제는 비단 후퇴시의 경우만 아니고, 어떤 형태의 戰術下에서도 강조되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戰略上에 기여되지 않는 전술의 성과는 스스로 내던져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基本運用原理이다. 다만 전략적 목표를 망각하기 쉬운 시기가 후퇴를 강요당하는 干潮期이므로 이 시기에 특히 方向維持문제가 강조되는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이 6·25동란중 위급한 시기에 소련을 내세워 휴전을 제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나서 戰後復舊에 임하였고, 이어서 軍備擴張에 광분했던 것은 바로 戰略目標를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전술을 운용함에 있어도 그것이 전략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戰略的指導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40)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392.

4. 北韓의 對南革命戰術

가. 對南革命戰術의 基調

1) 戰術段階와 任務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術은 남한을 공산화함에 있어 구체적 상황이 전개되는데 따라서 수행되는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鬭爭 형태, 組織 형태, 標語의 교체 및 配合技法을 의미한다. 즉 滿潮期에는 공격을 취하고 干潮期에는 후퇴하면서 총체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인 行動綱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戰術段階가 있을 수 있으므로 技術적 단계가 변화되었다고 하여 戰略的段階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만조기에는 戰術的 목표인 「駐韓美軍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유리한 시기이므로 攻擊 및 攻勢的 임무가 할당되며 干潮期에는 불리한 시기이므로 후퇴 및 수세적 임무가 할당된다. 요컨대 戰術的段階나 임무란 독자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節次 및 手段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技術적 후퇴가 결코 전략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실상 공산주의적 견지에서는 전략적 후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의견상 후퇴로 보이는 것은 모두 戰術的 後退인바 그 대표적 實例가 6·25동란시 그들의 休戰提議라 할 것이다.

2) 技術적 指導課題

戰術的指導란 바로 技術적 임무의 달성을 위해서 鬭爭 형태, 組織 형태 및 표어(Slogan)를 적시적절하게 교체 및 배합하는 동시에 해당 시점에 있어서의 「중심고리」를 포착하며 그것을 제때에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技術적 지도는 戰略的 指導의 한 부분이며 전략적 지도의 통제하에 수행되는 현지에서의 구체적 통제이므로 現地 幹部들의 책임소

관에 속한다.

김일성은 “구성된 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여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을 능숙히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¹⁾ 김일성이 남한의 구체적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알맞는 투쟁형태와 조직형태 및 표어를 적시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남한 사회내의 갈등과 약점을 능숙하게 이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現地黨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지에서 主·客體의 與件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알맞는 투쟁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술적 지도과제이다.⁴²⁾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 공산집단이 어떻게 對南革命的 戰術的 指導를 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鬪爭形態의 交替·配合

滿潮期에는 공격을 취하며 干潮期에는 후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투쟁형태 교체원리라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간조기도 아니며 그렇다하여 만조기도 아닌 상황에서는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해 나가는 것이 전술적 지도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群衆의 사상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쟁이나 고도의 정치투쟁을 선택하더라도 군중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군중의 혁명적 기세가 높다 하더라도 彼我間의 力量關係를 무시한다면 그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이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투쟁형태를 취하는 것은 모처럼의 성숙된 기회를 헛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모든 투쟁형태가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과 군중의 의식수준 및 彼我間의 力量關係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41)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72, p.487.

42)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91

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⁴³⁾

i) 政治鬭爭과 經濟鬭爭의 配合

북한공산집단이 바라고 있는 것은 政權奪取를 위한 대규모 罷業, 示威, 暴動, 武裝鬭爭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한의 노동자들이 아직 政治的 覺醒面에서 부족하므로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조건 개선등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으로써 혁명적 의식화 공작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투쟁이 정치투쟁과 적절히 배합되지 못하면 經濟至上主義, 기회주의로 빠져 경제투쟁 그 자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토대위에서 반드시 정치투쟁이 배합되어야만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ii) 合法·半合法·非合法 鬭爭의 配合

북한공산집단은 남한에서 合法的으로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半合法 및 非合法鬭爭이 불가피하며 또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合法鬭爭」이란 경제투쟁과 같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非合法鬭爭」이란 정치투쟁과 같이 법률에 저촉되는 본격적인 혁명투쟁을 뜻하며 「半合法鬭爭」이란 기본적으로는 非合法鬭爭에 속하면서 法網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식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非合法的 鬭爭은 광범한 대중을 끌어들이 수 없는 短點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合法鬭爭만 전개하는 것은 黨의 지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합법투쟁 그 자체까지도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合法·半合法·非合法鬭爭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만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革命力量을 육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

43) 허중호, 前揭書, p.649.

44) 上揭書, p.150.

의 견해이다.⁴⁵⁾

iii)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의 配合

暴力鬭爭이란 테러, 파괴, 무장투쟁 등인바 말하자면 최고의 비합법적 政治鬭爭을 뜻하는 별칭이며 비폭력투쟁은 暴力이외의 온갖 방법으로 전개하는 투쟁으로서 합법적 경제투쟁등을 기본수단으로 하면서 여기에 政治 및 經濟鬭爭, 소규모 및 대규모鬭爭을 동시에 전개하면 反革命的의 세력을 分散 弱화시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종 鬭爭을 結合시키는데 무관심하고 비합법적, 정치적 폭력투쟁에 치우치면 左傾 英雄主義의 오류가 되며 그 反對의 경우는 右傾 投降主義의 오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나) 組織形態의 交替·配合

상술한 바와 같은 鬭爭形態의 교체 및 배합문제는 필연적으로 組織形態의 교체 및 배합을 수반하게 된다. 滿潮期에 있어서는 黨이 地上으로 나타나며 혁명적 파업위원회등을 조직하게 되나 干潮期에는 黨이 地下에 잠입하며 합법적인 문화 계몽단체 또는 기존의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등에 침투하여 공작하게 된다. 그러나 간조기도 아니며 그렇다하여 만조기도 아닌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합법 및 비합법적 조직형태를 배합하여 工作하는 것이 그들의 工作原理이다. 이와 같은 配合에 있어서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비합법적 조직인 것이나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합법적 조직을 통한 공작이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건이 不利할수록 既存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조직의 이용도를 높이며 여건이 有利해질수록 비합법적 조직의 이용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이용가능한 조직형태를 주어진 여건에 알맞게 최대로 활용하면서 對南工作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북한공산집단의 속

45) 上揭書, pp.151~152.

46) 上揭書, p.152

셈인 것이다.

다) 鬪爭標語의 交替·配合

滿潮期에는 혁명적이며 호전적인 표어를 제시하며 干潮期에는 타협적이며 평화적인 표어를 내걸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각종 투쟁 및 조직형태를 배합하는 시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어의 배합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같은 표어의 배합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원칙은 전략적 및 전술적 표어의 배합, 정치적 및 경제적 표어의 배합,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표어를 상호 배합하는 것이다.⁴⁷⁾ 그들이 이와같이 각종 표어를 배합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戰術的 標語는 전술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그같은 투쟁이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戰略的 標語로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공정권의 타도가 투쟁의 기본방향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관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서로 배합하는데 따라 경제적 및 정치적 표어의 배합이 요구되며 또한 反美思想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표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중심고리의 포착·처리

「중심(核心的)고리」란 해당시점에 있어서 전술적 성과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적 문제, 즉 그것만 적시에 끌어당기면 순차적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전술적 지도과제를 뜻한다.⁴⁸⁾ 이와 같은 중심고리를 찾아낼 줄 알고 그것을 적시적절하게 끌어당겨 戰略的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기본요건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위해서 그때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問題解決의 실마리가 되는가를 찾아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심고리의 발견과 그 적시적절한 처

47) 上揭書, pp.147~148.

48) 北韓에서는 「중심고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 註24) 참조.

리문제에 대한 先例는 러시아혁명 직후 戰時共產體制下에서 파괴된 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NEP(New Economic Policy : 新經濟政策)를 취한데서 찾을 수 있다. NEP는 전술적으로는 후퇴하는 것이었으나⁴⁹⁾ 戰略적으로는 前進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말하자면 전략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하는 戰略的指導에 따라 해당 시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술적 지도과제가 바로 중심고리의 포착 및 그 조치인 것이다.

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

북한공산집단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對南戰術을 여러번 바꾸어 왔는데 그러한 전술들이 모두 對南戰略에 종속된 것이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현재까지 취해 온 對南革命戰術의 行態를 戰術段階와 任務 그리고 「戰術的 中心고리」를 위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행동원리를 재확인 하기로 한다.

1) 8·15解放~6·25南侵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북한)을 沈滯期 戰術段階로 보고 그 객체적 여건(남한)을 昂揚期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세적 防禦型戰術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對應力量을 약화시켜 무력남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세적 방어형 전술과 우회공격형 전술을 배합한 兩面戰術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에서는 소위 「民主基地路線」(北韓革命基地路線)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식 정치·경제적 諸改革을 단행하고 소련 지원하에 軍事力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각지에서는 武裝遊擊戰과 軍內叛亂, 그리고 10·1大邱폭동, 4·3제주도 폭동등을 일으키게 해놓고서도 영뚱하게 「南

49) 共產主義的 方向에 逆行되는 個人經營 및 自由商業을 일시 許容하였기 때문이다.

北政黨·社會團體連席會談」등을 제안하는 술책을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되기만하면 그간에 준비한 압도적인武力으로써 南韓 征服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打算에 의하여 소련과 共謀하여 1948년 12월 北韓駐屯 소련軍이 先制撤收하면서 남한주둔 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49년 6월에 美軍이 남한에서 철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의도가 실현된 것이다.

2) 6·25南侵~休戰提議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여건을 滿潮期段階로 보고 彼我力量計算과 시험을 마치고 결정적시기를 포착한 바탕위에서 본격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攻擊型戰術을 구사하였다.

즉 이미 駐韓美軍이 철수하고 1950年 1月初에는 애치슨 美國務長官이 한국을 美國의 極東防衛線에서 제외시켰으며 더우기 남한내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不安狀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全武裝力을 동원한 노골적인 무력남침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조기전술단계의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남한 각지에 南勞黨系 黨幹部를 파견, 各地區黨을 陽性化시켰으며 또한 好戰的標語를 내걸어 남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소위 「人民軍」의 남침작전을 지원하도록 공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 각지에서는 각종左翼團體가 雨後竹筍처럼 조직되었고 소위 「反動分子」숙청이란 명분하에 수많은 良民을 처형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들이 全力을 다하여 성취하려고했던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전역을 조속히 강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한전역을武力으로 강점하기만 하면 나머지 공산화 목적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3) 休戰提議~休戰成立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본격적인 정면공격이 UN軍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자 혁명의 주·객체적여건을 干潮期 戰術段階로 보고 자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퇴형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1950년 9월 UN軍의 仁川上陸作戰을 계기로 그들이 위기에 몰리자 생존유지책으로서 1951년 6월 소련의 UN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적협상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死力을 다해서 싸우는 兩面戰術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남한내의 와해된 地下黨을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5個地區黨으로 개편, 재건하고⁵⁰⁾ 心理戰을 강화하면서 5個地區黨 통제하에 유격전을 자행케 함으로써 南韓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戰線에서의 보다 나은 戰勢를 유지하는 가운데 休戰을 가능한한 유리하게 매듭지으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中心고리로 삼은것은 戰線과 남한내의 후방에서 전개하는 遊擊戰을 결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과 보다 명예로운 地位를 차지하면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휴전을 앞두고서는 生存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어차피 일단 휴전을 하기는 하되 장차의 再南侵을 위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地位를 격상시켜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유지함으로써 「侵略者」의 汚名을 씻고 현실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死力을 다했던 것이다.

4) 休戰成立~4·19 義舉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主·客體的與件을 沈滯期 戰術段階로 판단하고 그들의 자체역량을 비축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와해된 隊

50)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下卷), 1974, p.71 參照

第1地區黨: 서울과 경기도 全域統管, 第2地域黨: 蔚珍郡(과거에는 강원도)을 除外한 강원도 全域統管, 第3地區黨: 忠清南北道 全域統管, 第4地區黨: 慶北全域과 江原道蔚珍郡(지금의 慶北) 및 洛東江 以東의 慶南全域統管, 第5地區黨: 全南北과 洛東江 以西의 慶南地域 및 忠南論山地域統管.

列을 정비하기 위하여 守勢的 防禦型戰術을 구사하였다. 즉 6·25남침 실패의 책임을 南勞黨系에 전가시켜 政敵을 숙청하는 한편, 民主基地路線을 재확인하고 戰後復舊 3개년계획 수행에 착수하였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는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力點을 둔 5개년계획 실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55년 5월에는 일본에 있는 「在日本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을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로 개편하여 남한 공산화의 間接基地를 만들어 내었고 그들을 내세워 在日同胞 北送工作을 추진한 결과 1959년 11월 부터 在日同胞의 北送이 개시되어 북한의 부족한 勞動力의 일부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隊列整備와 力量備蓄이 이루어지자 이무렵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平和統一」을 내세워 對南宣傳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남한은 호전적이고 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권인 것처럼 위장하는 평화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동향은 守勢的 防禦戰術에서 앞으로 攻勢的 防禦戰術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으며 6·25動亂이 南侵아닌 北侵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韓·美兩國을 침략자로 조작하려는 賊反荷杖格인 전술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앞으로의 再南侵을 위하여 북한자체의 정치·경제·군사력을 복구함과 아울러 6·25로 말미암아 꺾일된 남한내의 地下黨을 再建하는 것이었다.

5) 4·19義舉~5·16革命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객체적여건은 滿潮期 戰術段階였으나 그들의 주체적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야기된 4·19義舉事態라고 하는 武力再南侵에 유리한 여건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노골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맹렬한 平和攻勢에만 의존한 공세적 방어형전술만 구사하였다. 즉 공산화혁명 성취에 직접 연결될 적극적인 행동은 단행하지 못하고 4·19學生義舉가 마치 북한공산집단을 지지하여 일어난 人民蜂起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남북협상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하는데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남한에 조성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工作員(間諜)을 대량 남파시켰다.

그리고 「4·19」가 일어난 해인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 대회 석상에서 김일성은 聯邦制統一案을 제의하는등,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한의 政局混亂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祖國平和統一委員會」⁵¹⁾를 새로이 조직하였고 조선민주청년동맹(1964년 5월 「社勞靑」으로 改稱)내에 포함되어 있는 學生組職을 별개의 독립된 조직같이 「조선학생위원회」로 탈바꿈시켜 南韓學生들의 조직과 대등하게 꾸며서 학생들에 대한 선동과 침투공작을 강화하였다. 더우기 북한공산집단은 한편으로는 당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남한의 革新系列을 지원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從屬的 傀儡黨으로서의 지하당 조직을 서둘러서 걸어서 「평화통일」을 요란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공산집단은 이 시기에는 자체역량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한내에 지하당구축을 비롯한 容共勢力 扶植을 戰術的 中心고리로 삼고 간첩의 대량투입과 平和統一論을 요란하게 선전하는데 광분하였던 것이다.

6) 5·16革命~對話開始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主·客體的與件을 정면공격 임무가 부여되는 만조기 직전의 昂揚期 戰術段階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 彼我力量을 계산, 시험하는 완전한 공세적 防禦型 戰術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5·16군사혁명을 계기로 남한의 反共態勢가 강화되자 이에 맞서 4大軍事路線(1962. 12)을 서둘러 추구하였고 그 결과 강화

5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란 「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46. 2)과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46. 7)을 통합하여 1949. 6. 27에 창립한 黨·政聯合體로서 對南平和偽裝統一攻勢에 써먹기 위해 만들은 勞動黨의 앞잡이 기구이고 「祖國平和統一委員會」란 1961. 5. 13, 4. 19以後 南韓에서 擡頭된 一部 南北協商論에 呼應하기 위해 急造한 平和偽裝統一團體로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構成員의 하나임.

된 군사력을 배경으로하여 1966년 부터는 적극적인 폭력적 대남도발공작으로 전술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968년 1월 21일에는 31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靑瓦台 기습을 시도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울진 삼척지역에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再南侵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力量의 시험은 끝내는 실패하였으나 서울의 심장부에 까지 그들의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는데 고무되어 非正規戰의인 폭력에 의한 남한공산화를 본격적으로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人民武力部偵察局 산하의 124군부대, 283군부대, 17정찰여단 등의 특수 게릴라部隊를 통합·개편하여 特殊8軍團(輕步教導指導局이라 부르기도 함)을 신설, 약 10만명 내외의 特攻兵力을 확보하였다.

이와같이 그들은 게릴라 투입에 의한 對南共產化를 노려 광분해 보았으나 그들의 뜻하는 바대로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김일성은 제5차 노동당 대회(1970.11)에서 北韓革命基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남한에서의 自体革命力量을 육성, 강화시켜서 經濟鬭爭과 政治鬭爭, 合法·半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대규모투쟁과 소규모투쟁등을 配合(綜合)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전술적 중심고리는 비정규전방식 즉 게릴라전술을 구사해서 滿潮期를 조성하려는 것이었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7) 對話開始~對話中斷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主·客體의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남북대화라고 하는 우회적방법을 써서 革命的 滿潮期를 조성하고자 우회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무력도발을 통한 남한공산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7·4南北共同聲明과 南北對話를 계기로 남한국민들이 통일의 기운에 들뜬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편승하여 남한국민들의 對北警覺心을 이완시킴으로써 容共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법적방법으로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드디어 대화의 持續 및 進展의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획책하였다. 그와같은 의도에서 내걸게 된것이 바로 反共法·國家保安法의 철폐, 左翼思想犯의 釋放, 소위 「統一革命黨」을 포함한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화참여 요구였다. 이것을 두고 一名 남한사회의 「法律的·社會的條件環境改善論」이라고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함으로써 공산화혁명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저들의 의도가 쉽사리 달성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1973년 8월 28일, 소위 金英柱 聲明을 통하여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8) 對話中斷~버마事件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보고 남한자체내에서의 反美, 反政府運動을 조성, 소위 「人民革命」의 與件을 고조시키는데 역점을 둔 攻勢的 防禦型 戰術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카터 美大統領이 駐韓美軍의 철수를 公約하였을 당시에는 對南戰略目標의 우선순위를 先 駐韓美軍철수에 두었고, 레이건 大統領이 등장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백지화하자 이번에는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先 反共政權打倒 편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신축성있는 戰術運用으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는 대화에 의한 공산화혁명의 여건조성을 단념하고 남한이 제의하는 대화 및 통일방안을 사리에 맞지 않는 구실을 붙여 반대하면서 「大民族會議」니, 「全民族大會」니, 「政治協商會議」니, 「100人政治人聯合會議」니 하면서 聯邦制案을 고집스럽게 내걸고 남한의 국론분열을 기도해온 것이다.

그들이 내놓은 연방제라고 하는 南北合作統一論의 底意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남한내 미군주둔의 명분을 퇴색시켜 그 철수를 촉진하고 한·미간의 유대를 와해시켜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對南面에서는 反共의 名分을 퇴색시켜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고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켜 소위 「人民政權」의 출현을 촉진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人民政權이란 본질적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잠정적인 聯合政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저들이 주장하는 世稱 「統一革命黨」 또는 「韓國民族主義戰線」 主導下의 聯合政權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종전의 주장이던 「高麗聯邦共和國」案에 「民主」라는 用語를 첨가하여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이라는 것을 내놓고 雙方 軍隊의 10~15萬名線으로의 相互減縮과 「民族聯合軍」의 창설, 運用을 제창하고 있는데⁵²⁾ 이는 곧 南北聯邦이 실현되면 그들 豫備軍(主로 勞·農赤衛隊)의 優位性을 이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聯合軍 內部에 푸락치를 침투시켜 적당한 기회가 포착대내대로 政變을 기도하겠다는 底意가 담겨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사고방식은 「正·反·合」的 統一이 아닌 滅舊生新的 「밀어내기式 征服」을 合法則인 것으로 신봉하는 것이기 때문에⁵³⁾ 만약 김일성이 진심으로 남북한의 체제를 공존하게 하는 聯邦을 구상하려 한다면 그는 이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 반면에 그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대로 堅持하면서 聯邦制, 즉 合作統一論을 제창하는 것은 정권탈취 목적의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 단계에 따른 戰略的 指導로서 이는 남한내에서의 보다 광범한 혁명역량을 동원, 배치하기 위한 술책, 즉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신의 主体思想을 두고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조선 혁명을 위해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公言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로서⁵⁴⁾ 이는 後者를 입증하는 증좌인 것이다.

52) 金日成, 6次 黨大會(1980.10) 演說에서.

53) 〈표 5〉 「唯物辨證法的 征服方式」 참조

54) 金日成의 「主體思想」 또는 「自主路線」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自身의 行爲를 合理化시키려는 것이지 결코 獨創的인 理論의 「틀」을 갖춘 「主義」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기에 全力을 다하여 붙잡고 끌어당기려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의 반공정권(자유민주체제)을 타도하기 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정부 소요를 확산시키도록 공작하는 것이었다.

9) 버마事件~現在까지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여건을 沈滯期 戰術段階로 보고 그 객체적여건을 만조기 직전의 완전한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自体力量備蓄 및 隊列整備를 위한 守勢的 防禦型 戰術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滿潮期段階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 防禦型 戰術을 구사하는 兩面戰術로 임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주체적여건을 보면 對外的으로는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폭발만행사건으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상태를 만회해야하고 또한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한 3者會談을 성사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힘에겨운 對南 水災物資提供이라는 人道主義的 탈을 써야 했고, 또한 南北會談을 再開해야만 되었다. 그리고 對內的으로도 소위 「合營法」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난국에 몰려 있을뿐 아니라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西方諸國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끌어들여서라도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김정일의 統治名分을 創出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든 싫든간에 남북대화에 응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마치 한반도에 平和가 定着된 것처럼 흉내라도 내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이르러 그들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戰術的 中心고리를 남북대화의 유지에 둔것 같았으나 '85年度에 企圖한 남북대화의 성과가 여의치 않자'86년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그 새로운 중심고리 찾기에 무척 고심한 나머지 「軍事3當局會談」(86.6.17),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87.1.11), 「多國的 軍縮會談」(87.7.23), 「3者外務長官會談」(87.8.6), 「南北連席會談」(88.1.1), 「南北國會連席會議」(88.7.20) 등을 내놓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남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객체적여건을 보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대학소요가 점점 暴力化, 極左化되고 있고 勞·使爭議가 부분적이거나 經濟的 利害水準을 넘어 政治鬭爭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85.2.12총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여·야간의 갈등, 특히 88.4.26 총선거를 계기로 與小野大 現象의 結果로서 나타난 與·野間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여건을 남조선혁명 전술운동상의 高揚된 昂揚期 戰術段階로 판단하고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革命的 戰術的 與件을 만조기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血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可用報道媒體를 총동원하고 무장 또는 비무장 공작원(간첩)을 집요하게 남파하여 학원소요와 勞使紛糾를 선동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流言蜚語를 유포하여 民·官·軍 離間을 통한 남한의 정치·사회적혼란과 國論分裂을 조성하기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그들이 조작한 남한내 유명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政局의 變化와 黨自體의 發展要求라는 명분아래 85년 7월 27일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개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도 同年 8월 8일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한데 이어 同年 8월 15일부터는 소위 「민중의 메아리방송」을 신설 운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현시점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문제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연결시킨 「勞·學連繫鬭爭」戰列形成에 의한 社會變亂에 있는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각종 鬭爭形態를 配合하여 工作하며, 남한내에서 利用할 수 있는 약점, 특히 각계각층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反美, 反政府의 기운을 고조시키는데 血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투쟁형태를 배합함에 있어서 그들이 청년인텔리층(특히 대학생) 및 宗教團體에 파고들어 非合法的鬭爭(例, 美文化院放火·點據事件, 學園騷擾등)의 配合도를

높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注目할만 하다.⁵⁵⁾

以上에서 북한공산집단의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을 原理的次元에서 分析해 보았다. 그들은 일단 革命的 滿潮期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正面攻擊을 자행하고 그것이 격렬한 반격에 부딪치면 후퇴하여 재공격을 위한 隊列整備와 力量備蓄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방어태세로 전환하여 彼我間의 力量을 계산하고 시험하는 등 또다시 만조기를 조성하기 위한 工作에 임하게 된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각종 鬭爭形態, 組織形態 및 標語를 配合해가며 이용가능한 모순과 약점에 파고들어 우리 社會内部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때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때에는 合法的인 經濟鬭爭 및 小規模鬭爭을 위주로 하지만 狀況이 허용되면 비합법적인 政治鬭爭 및 大規模鬭爭으로 戰列을 強化, 擴張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적 지도원리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行動體系는 휴식이 없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은 이같은 과정에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장차 除去 또는 改造對象으로 책정하고있는 靑年인텔리層(특히 大學生)과 宗教人들의 현실비판의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을 「革命的 起爆劑」, 「革命的 씨앗을 뿌리는 媒介者」, 「노동자, 농민들에게 혁명을 전파하는 橋頭堡」, 「反帝·反파쇼 民主救國鬭爭의 기수」 운운하며 鼓舞, 讚揚, 英雄視하고 있는데 이같은 策略이야말로 사회주의혁명의 前階段革命인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段階의 전략적 지도에 따른 補助軍의 이용수법인 統一戰線戰術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성취되고 보면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 인텔리 및 종교인들은 마땅히 除去 또는 改造對象으로 취급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전

55) 허중호, 前揭書, p.113 참조.

략단계이기 때문에 장차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숙청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계층까지도 「民族의 解放」이니 「平和的 民主化」니 「政治的 統一」이니 하는 위장된 구호를 내걸고 그들 인텔리 및 浮動的 中立階層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당 혁명단계의 전략적 지도에 맞추어 전술적 지도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그들 공산당의 전략·전술을 두고 “陰謀의 科學이며 破壞와 反抗의 技術”이라고 한 왓슨教授의 表現은 매우 적절하다 할 것이다.⁵⁶⁾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戰術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모하면서도 해당 혁명단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원리를 알 수 있다.⁵⁷⁾ 바로 이같은 原理때문에 戰術의 戰略에 대한 종속성이 유지되며 또한 戰略的 目標을 지향하며 봉사하는 方向維持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北韓의 對南戰略과 「民衆民主主義革命論」 比較

參考로 大學街를 비롯한 우리社會 一角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民衆民主主義革命論」(主로 自民鬪)과 北韓의 對南戰略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공산집단은 그들의 勞動黨規約에서 當面 對南戰略目標을 南韓에서의 人民政權(共產政權)樹立에, 그리고 最終目標을 社會主義社會 건설에 두고 있는데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도 當面戰略目標을 한국에서의 民衆政權(共產政權) 수립에, 그리고 最終目標을 社會主義社會 건설에 두고 있으며

둘째, 북한공산집단은 南韓社會의 性격을 美帝의 「植民地」로 規定하고 있는데, 民衆民主主義革命論者도 한국사회를 美帝의 「新植民地」로 규정

56) Hugh Seton Watson, *From Lenin to Malenkov, History of World Communism*, Praeger, N.Y., 1954, 2nd ed, Preface.

Watson은 런던大學 교수로서 父子 2대를 이어온 슬라브 東歐問題 專門家이며 本書 以外에도 「新帝國主義」(1961) 등 多數의 著述이 있다.

57) 〈표 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 참조.

하고 있으며

셋째, 북한공산집단은 打倒對象을 南韓의 美帝와 買辦資本家(反動官僚包含)階層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民衆民主主義革命論者도 타도대상을 한국내의 美帝와 買辦資本家(高級官僚包含)階層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買辦資本家階級이란 사실상 反共勢力을 총칭하는 의미임)

넷째, 북한공산집단은 對南共產化를 위한 革命의 主力軍을 南韓의 「勞·農·學同盟」勢力으로, 그리고 그 補助軍은 各界各層의 광범한 「民衆階層」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도 主力軍을 韓國의 「勞·農·學同盟」세력으로, 그리고 補助軍은 당면 타도대상을 제외한 各界各層(野黨까지 包含)의 광범한 民衆階層으로 策定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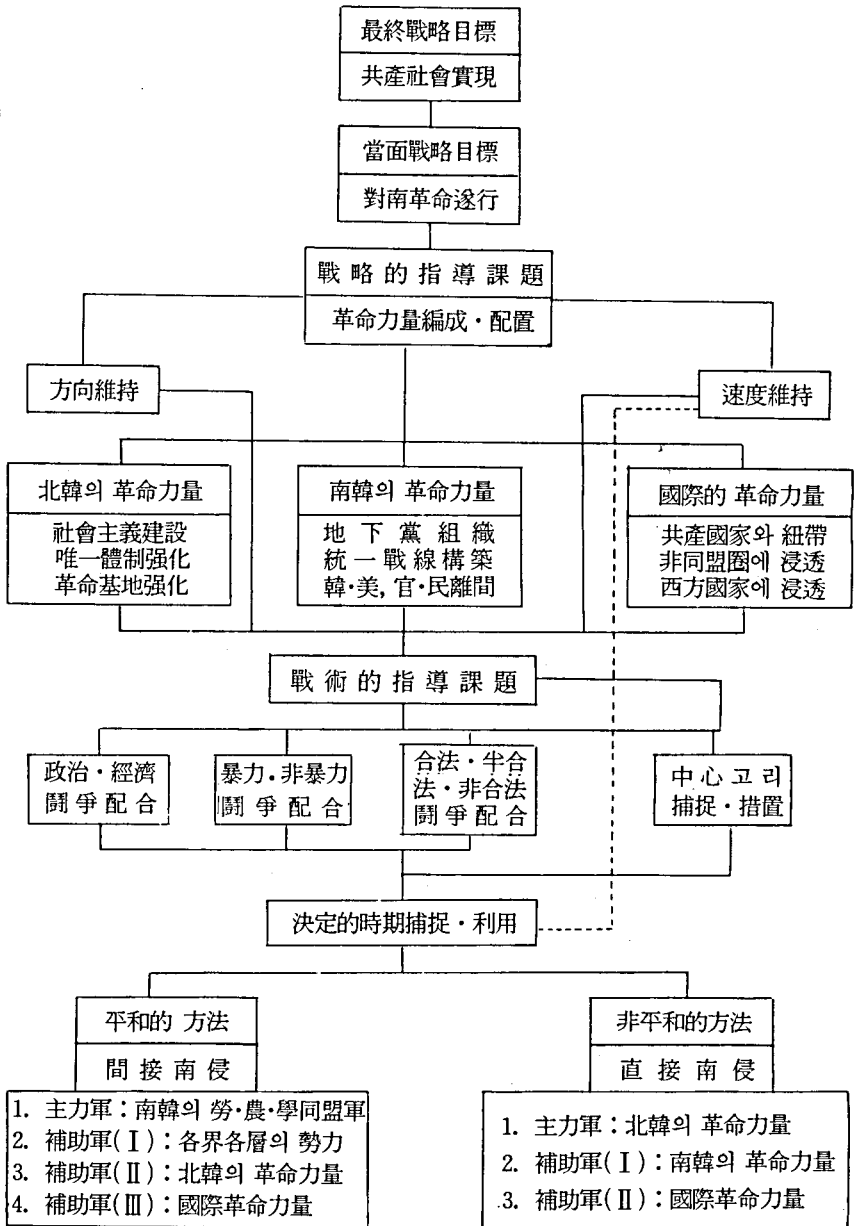
다섯째, 북한공산집단은 直接侵略手段을 가지고 「南朝鮮革命」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구실로서 反美·反帝·反戰·反核鬭爭論理를 내세우고 있는데 民衆民主主義革命論者도 이와 똑같은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소위 民衆民主主義革命論은 알고보면 북한공산집단의 對南共產化革命路線인 1段階 「人民民主主義革命論」과 2段階 「社會主義革命論」 그 자체로서 이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오늘의 韓國속에서 脚色한 共產主義革命理論인 것이다.

(丑 3) 對南戰術의 原理的 分析

段 階	運 用	備 考
8·15後～ 6·25南侵	1. 任務：力量備蓄 및 역량시험, 迂迴攻擊 2. 指導 가. 各種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標語配合 나. 中心고리는 美軍撤收 實現*)	※) 美軍撤收가 실현됨.
6·25南侵～ 休戰提議	1. 任務：正面攻擊 2. 指導 가. 非合法 南侵斷行 나. 中心고리는 南韓 全域 強占*)	※) 南韓全域 強占에 실패하였음.
休戰提議～ 休戰成立	1. 任務：生存策 講究 2. 指導 가. 休戰提議로 協商 展開 나. 中心고리는 有利한 休戰成就*)	※) 休戰을 成立시켜 生存維持에 성공하였음.
休戰成立～ 4·19義舉	1. 任務：除列整備 2. 指導 가. 平和的 宣傳 強化 나. 中心고리는 戰後復舊事業*)	※) 전후복구사업을 一旦 完了하였음.
4·19以後～ 5·16革命	1. 任務：力量計算 2. 指導 가. 間諜南派 浸透, 地下黨 構築試圖 나. 中心고리는 地下黨 構築*)	※) 地下黨 構築에 실패하였음.
5·16以後～ 對話開始	1. 任務：攻擊準備, 역량시험 2. 指導 가. 非合法的 鬭爭, 武裝共匪南派 및 非正規戰 試圖 나. 中心고리는 滿潮期 造成*)	※) 滿潮期 造成에 실패하였음.
對話開始～ 對話中斷	1. 任務：迂迴攻擊 2. 指導 가. 合法的 宣傳·煽動 강화 나. 中心고리는 地下黨 構築 및 合法化 實現*)	※) 地下黨 構築 및 合法化 실현에 실패하였음.
對話中斷～ 버마事件	1. 任務：攻擊準備, 역량시험 2. 指導 가. 各種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標語配合 나. 中心고리는 國論分裂 및 反政府勢力 強化*)	※) 繼續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試圖中에 있음.
버마事件～ 現在까지	1. 任務：力量備蓄 및 力量計算 2. 指導 가. 各種 투쟁형태, 조직형태, 標語配合 나. 中心고리는 對話維持 및 勞·學 連繫鬭爭 戰列 形成*)	※) 攻·守 兩面戰術(和·戰 양면전술)을 구사중에 있음.

〈丑 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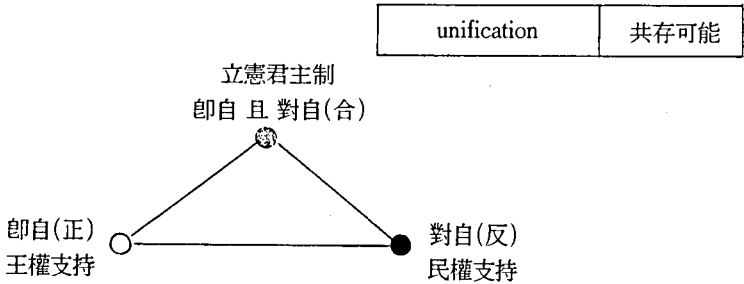
(丑 5) 唯物辨證法的「征服」方式

1. 唯物辨證法的「統一」

가. 論理的特徵

- (1) 妥協的 共存論理
- (2) 相補的 調和論理
- (3) 改良的 發展
- (4) 뭉치기式 統合

나. 圖式的表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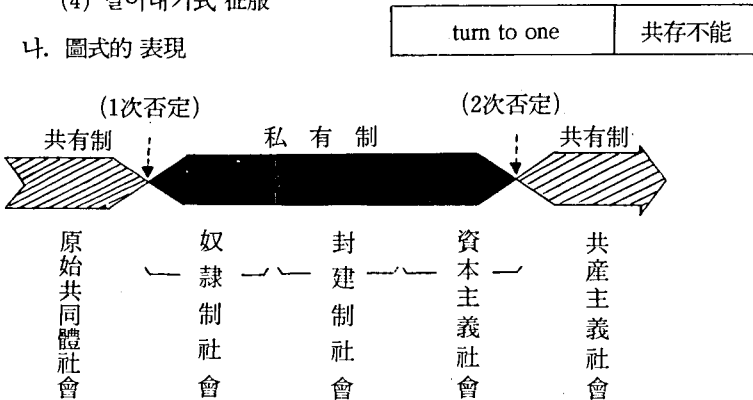


2. 唯物辨證法的「征服」

가. 論理的特徵

- (1) 非妥協的 征服論理
- (2) 相剋的 滅舊生新論理
- (3) 革命的 發展
- (4) 밀어내기式 征服

나. 圖式的表現



5. 結 言

가. 北韓의 對南策動 展望

북한공산집단은 무원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唯物史觀的 思考 및 戰略·戰術的 行動方式으로 對南共產化革命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6·25南侵에 의한 南韓 共產化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남한 공산화의 기도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休戰後에도 지난 35년 동안 對南共產化革命을 성취하기 위해 全力投球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와 같은 策動을 자행해 나갈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의 向後 策動方向은 그들의 근본적인 思考 및 行動方式과 지금까지 그들이 취해온 行態들을 원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明若觀火한 것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 그들의 戰略은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이 勞動黨規約에 명시되고 있는 限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그들의 戰術은 主·客體의 與件에 따라 투쟁 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만을 달리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공산집단의 向後動向에 있어서는 그 戰術上의 變化가 있을 뿐이며 戰略的 本質에 있어서는 그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대로 신봉하는 限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표어를 내걸고 어떠한 형태의 조직을 취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을 기도할 것인가에 우리의 關心이 集中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關心은 노골적인 武力南侵(直接侵略) 또는 남한내에서의 革命誘發(間接侵略)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力量을 「計算」 및 「試驗」하면서 소위 滿潮期를 조성하고 決定的時機를 捕捉·利用하려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南韓이 提示한 合理的이며 具體的인 一連의 統一方案을 한마디로 「分裂方案」 「分裂主義」 운운하며 거부와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데서

民族的 입장에서의 平和統一을 하고자 하는 意思가 아직은 없음을 이미 드러낸바 있다.

그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民族的인 國際大行 事를 방해하기 위하여 國際社會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大統領을 殺害하기 위해서 버마에까지 武裝共匪를 投入하는 등 그들의 잔인무도한 本性을 여지없이 드러낸바 있다. 그들이 近者에 와서 한때는 水災物資를 제공하고 또한 남한이 제의한 南北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 開催에 肯定的 反應을 보인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버마蠻行事件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合營法」의 結實을 얻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둔 戰術的 僞計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對南共產化戰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서는 水災物資提供이라는 平和 제스츄어를 쓰면서도 그 裏面에서는 間諜을 繼續 南派하여 南韓社會에 대한 攪亂工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一連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앞으로도 戰略目標 實現 이 불가능하다고 自認할 때까지 당분간은 聯邦制案과 3者會談 그리고 多國의 軍縮會談, 南北高位級政治軍事會談, 南北連席會議, 南北政治協商會議 등을 고집하면서 南韓內에 革命의 戰術的 指導參謀部로서의 地下黨의 構築 또는 強化와 불순세력주도하의 「勞·學連繫鬭爭」戰列形成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남한의 정치적 전환기를 틈타 각종 鬭爭形態를 配合하는 등 戰術的 指導를 자행해나갈 것이 전망된다.

나. 우리의 對應方向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악랄하고 집요한 대남공산화 기도를 効果的으로 분쇄하고 우리 民族이 영원하는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課題가 우선적으로 解決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 첫째는 북한공산집단의 전략·전술적 陰謀나 術數를 우리 4千萬 國

민이 다같이 알도록 하는 보다 효율적인 國民啓導活動이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 둘째는 우리社會에 潛在的, 顯在的으로 內包되고 있는 脆弱點을 극소화시킴으로써 공산주의라는 독버섯이 寄生할 수 있는 素地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 셋째는 우리의 國力을 對北絶對優位를 확보하게끔 伸張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공산집단은 스스로가 自進해서 對南共產化革命 企圖를 포기하리 만큼 純朴하고 양심적인 집단이 아니므로 오직 他律的인 힘, 즉 우리의 國力伸張을 통한 힘의 뒷받침에 의해서만 그들의 對南共產化 企圖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國力伸張에는 物質國力 못지 않게 精神國力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넷째는 북한공산집단의 生理야 어떻든간에 南北對話를 통해 끈기있는 對北說得을 展開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國力이 物質, 精神 共히 對北絶對優位를 확보할 때까지는 正規戰이든 非正規戰이든간에 이 땅에서의 戰爭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要件들이 갖추어 질 때 북한공산집단의 對南共產化革命野慾은 효과적으로 분쇄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6천만 民族이 갈망하는 平和的 祖國統一의 길도 멀지 만은 않을 것이다.

“平和를 바라거든 戰爭에 對備하라”

—베제티우스(Vegetius)

“戰爭을 치름에 있어 物質을 칼집이라 한다면 精神은 칼날이다”

—클라우제비츠(Clauswitz)

“共產主義와의 鬭爭에서 이기는 길은 그들의 戰略·戰術을 逆利用하는 것이 最上策이다.

—니이버(Niebuhr)

“共產主義와의 싸움은 3分物理·7分心理, 3分軍事·7分政治이다.”

—장개석(蔣介石)

以上の警句는 우리의 對共安保鬭爭에 있어 어느 하나 빼어버릴 수 없는 敎訓的 名言이라고 생각한다.

Ⅲ. 共產圈의變化相

金 淳 培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우리가 共產國家를 바로 理解해야 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體制의 수호를 위해 共產革命을 배제하면서도 統一을 위해 국제화 시대의 동반자로 공산국가와 共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와 같은 共產大國은 지리적으로 접경해있는 이웃나라들로서, 南北分斷 이후 북한의 강력한 배후 세력이 되어 우리의 安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한반도 문제의 유관국가인 중·소의 政策變化와 狀況認識은 바로 북한에 영향을 주는 바가 크기 때문에 共產圈의 실상과 동향과악은 북한을 알며, 통일을 전망하는 주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더욱 우리 사회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共產主義에의 막연한 동경과 이념적 좌경화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共產主義 理論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과 동떨어진 공산국가의 현실을 바로 아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산 宗主國인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한지 70년이 지났고, 여타 공산국가들에서도 共產體制를 시험해 본지도 40년이 넘었다. 그 결과는 공산국가 스스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따른 역사발전이 중대한 시행착오였다는 점을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멸망하리라 예언했던, 또는 革命의 대상으로 삼았던 自由民主主義國家와 자본주의체제는 자체의 體制調整 능력을 발휘하면서 번영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 반면에 共產國家는 경직된 體制의 노쇠화, 사회적 침체, 경제적 비능률이 심화되었음을 소련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덩소핑이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력과 개인의 생활면에서 미·소간의 격차, 서구와 동구간의 격차, 아시아지역 공산국가의 상대적 낙후성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자유민주국가와의 發展 격차를 줄이기 위

해 자본주의의 능률적인 경제관리방식을 원용하고 있으며, 정치·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開放과 改革을 하는 등,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教條的 共產主義 원칙인 1당독재와 권력의 집중, 중앙통제 계획경제, 집단주의와 정보의 통제등 공산체제의 본질 문제에 대한 自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理論과 實際가 모두 잘못되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공산주의 思想의 비현실성이나 戰略戰術의 기만성등 이론적 측면은 다른 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시적인 공산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현실적인 병폐현상들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과 극복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과 나타난 현상들을 기술코자 한다.

공산국가의 실상과 변화동향을 진단하는 데에는 對外關係에서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공산국가의 對內問題들에 초점을 맞추어 共產體制의 구조적 모순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實相 및 變化樣相에 국한시켰다.

먼저 共產體制의 일반적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어서 이론과 원칙면, 정치면, 경제면, 사회·문화면 등 분야별로 영역을 나누어 실태와 변화동향을 추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외 정기간행물 기사와 공산권 동향분석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2. 共產體制의 特性과 構造

가. 일반적 特性

共產國家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理念國家란 점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란 특정 이념을 절대화하고, 이를 현실에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를 재구성하였거나 새로 세운 나라들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共產國家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신봉하며 이를 自己活動의 지침

으로 삼는 黨이 政權을 장악한 1黨獨裁의 국가이다.

共產主義에 있어서 黨은 혁명 이전에는 혁명수행을 위한 前衛隊이며, 혁명후에는 공산독재체제를 운영 유지하는 기본 조직 골간이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든 마르크스·레닌주의 黨(共產黨)은 모두 공산 혁명의 참모부로서 勞動階級の 前衛黨이다. 共產國家에서 黨은 법적, 형식적, 실질적으로 절대권력을 완전독점한다. 黨의 조직이 모든 정책의 決定權을 행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구를 지배한다. 黨의 政治局은 당기관뿐만 아니라 國家機關의 모든 명령계통을 조정통제한다. 共產黨은 국가의 지배를 통해 생산수단을 國·公有化하며 생산, 분배, 소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共產體制에서는 黨에 의해 국가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전체주의적 통제가 행해지므로 그 체제는 획일주의와 관료주의화 할 수 밖에 없었다. 共產國家의 黨은 국가의 행정 기능과 경제관리 기능, 사회 문화의 역할간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사회전체를 階序的으로 체계화하여 單元的으로 지배 관리하며 주민을 획일적으로 통제한다. 각급 黨組織은 國家와 社會의 한계를 해소시켜 모든 사회와 住民生活을 전면적으로 정치조직화하여 정치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全社會의 政治化는 선전, 교육 그리고 강제력을 그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共產體制에서는 黨의 독재를 실시 하면서 그 조직의 운영원칙으로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黨은 모든 지역별, 부문별로 階序的의 조직을 갖도록 하였다.¹⁾ 그 운영 원리는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을 선거하고, 상급당 조직은 하급당 조직의 사업을 指導 검열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같은 당조직의 운영 원칙에서 중앙집권제가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원리가 되며, 민주제는 다만 조직원리의 선전적 명분으로 되고 있다. 共產黨조직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민주방식은 없고 권력의 집중만 있을 뿐이다.

1) 梁好民外, 「공산주의론」, 통일연수원, 1983, pp.41~42.

共產體制가 1黨革命體制라는 특징이외에 또 다른 특징이 바로 경제체제에서 연유하는 제도와 운영관리인 것이다. 사회주의 經濟는 공장·기업소와 토지등 生産手段을 모두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이 所有(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하며 경제의 관리운영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지령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經濟的 資源은 모두 국가(결국은 黨이 장악)가 專決的으로 처분하고, 경제활동 전반과 노동을 통제하며 생산, 가격, 임금, 분배를 규제한다. 黨과 國家機關은 경제관리기구를 분야별로, 계층적으로 편성하여 이를 통하여 계획을 지령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²⁾ 따라서 初級黨 조직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과 말단 行政組織에 이르기까지 각급 국가기관은 해당 經濟機關의 관리운영을 항상 지도 감독하며 개입한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私的으로 企業을 운영하거나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등 生産主體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經濟管理運營은 ① 全産業의 國有化, ② 농업의 集團化, ③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④ 국가에 의한 人的·物的 資源의 총동원과 통제, ⑤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행해지고 있다.

공산국가가 이러한 1黨體制, 統制經濟體制를 유지하는 명분은 공산주의이론에 따라 그 未來像이 제시하는 이상사회, 즉 “階級이 소멸되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진 사회”,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 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공허한 미래상을 표어로 내세워 기존의 자본주의체도를 변혁시킨 후, 새로운 공산주의 체제와 제도를 정착시켰으나, 그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모순, 즉 集團에 의해 個人이 소외당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공산체제가 歷史와 社會發展의 動因을 經濟(생산양식과 분배)라는 단일변수로 보며, 階級이라는 개념의 양분법에 의해 모든 사회현상을 일원화시킨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된 體制의 불가피한 도달점이라

2) 기무라 히로시외, 「현대 소비에트학」, PHP 연구소편, 덕운, 1985, p.45.

할 수 있다.

교조주의 이론에 입각한 共產體制의 특성은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정치면에서 黨이 국가기관과 모든 경제, 社會組織 및 軍을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黨의 절대성」에 기초한 체제이며 ② 경제면에서는 모든 生産手段의 私的 소유를 부정한 바탕에서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체제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 政治 經濟的 構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주의 로 불리는 소련의 黨理論, 정치·사회통제 수단, 사회주의 건설방식이 모든 공산국가의 체제와 정책노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共產體制는 거의 유사한 정치, 경제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共產國家의 정치구조는 黨의 절대성과 독재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黨의 권력구조와 기능이 정치체제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기본적인 작용 요소가 된다. 共產體制의 黨은 ① 평당원 ② 위계질서가 명확한 계서별, 기능별 黨 조직부서 ③ 黨 지도부등 3등분하여 그 기능을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黨의 세가지 구성체는 그 기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平黨員은 각기 주어진 임무에 따라 黨의 결정사항을 무조건 실천해야 한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黨의 각급조직과 부서들은 黨 지도부의 명령을 일반당원들에게 전달하고 감독하는 기능과 아울러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黨 지도부는 혁명과 건설의 최고사령부로서 피라밋형 黨 조직의 정점에 있다. 이 지도부는 소수의 핵심인물로 구성된 상설기관인 黨 中央委의 政治局과 書記局이다. 黨 지도부의 제 1 인자는 黨의 書記長 또는 第一書記이다. 그의 지휘와 명령 아래 모든 당조직과 국가기관, 軍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黨組織 원리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인 대의기구와 행정기관, 각종 사회단체도 각각 피라밋형의 階層構造를 갖고 上意下達의 명령계통을 통해

작동된다. 이러한 조직운영 형태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시켰으나, 최근에는 공산국가내에서도 「중앙집권제」가 「민주주의」 위에 치솟아 권력의 집중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되고 있다.³⁾

共產國家에서는 당조직부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어 병렬로 운영되는데, 전자가 후자에 침투해 들어가는 관계를 갖는다. 실제로 黨의 권력구조 상층부의 몇몇이 동시에 타기관에서 책임있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黨의 지배」를 제도화하고 있다. 黨의 간부가 行政部署의 책임자, 각급인민회의 대의원, 經濟·社會 조직의 책임자를 겸임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독점한다.

黨, 국가기관, 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임무를 보면, 많은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는 등 불필요하게 중첩된 불합리한 정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거대한 관료제가 구축되게 마련이다.

黨의 政策과 路線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法 절차나 要式行爲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 권한이 없는 代議機關(소련의 최고소베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며, 행정집행 및 생산관리는 內閣(북한의 정무원, 중국의 국무원)을 통하여 시행된다.⁴⁾ 共產國家들은 헌법에 국가 최고주권기관을 최고인민(소베트)회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관은 형식상 法案등의 안전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서 반대가 없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국가행정기관에는 방대한 많은 部署가 설치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분야에서 黨의 政策을 집행하고 있다.

共產體制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國家나 公共集團인데, 실제로는 국가를 지배하는 黨에 의해 소유권이 행사된다. 黨이 모든 공장·기업소와 토지의 소유주임으로 黨을 지배하는 集團에 의해 생산수단이 專斷되고 있다. 모든 생산수단을 國公有化한 결과, 근로자 개인은 노동력

3) 소련 「이스베스차」, 1988. 6. 4일자.

4) 이같은 사실은 공산국가의 黨規約과 憲法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 진다.

이외에 아무것도 소유하는 것이 없다. 노동자와 농민은 일만하고, 管理集團은 관리만 하고, 黨과 國家機關은 관리집단을 조정·통제만 하면 된다. 노동자와 농민을 모두 賃金勞動者化, 集團化 하였으므로 노동자·농민은 그들의 생산품과 所出된 농산품에 대해 아무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장·기업소의 利益은 노동자에게 안돌아가고, 농촌의 이익도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소련의 일부 지식인들은 비판하기 시작하였다.⁵⁾ 노동자와 농민은 최종생산물에서 완전 소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생산수단을 國公有로 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보니 관리집단이 새로 형성되고 그 집단은 점점 비대화되어 갔다. 共產國家의 행정부에는 경제부서가 각 분야별, 업종별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각 경제부서는 수많은 經濟機關을 산하부서로 거느리고 있다.

이들 經濟機關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로봇과 같은 것으로 중앙의 지령이라는 전류가 통할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각종 經濟機關의 상호관계는 수직적 관계만 제대로 작동할뿐, 企業간의 수평적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共產國家에서 경제관리기관의 정점은 모든 국가행정기구를 지도 통제하는 黨中央委政治局이다. 黨의 정치국이 行政府에 계획목표와 지침들을 내리면 행정부는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黨政治局의 승인을 획득한다. 이 승인된 계획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은 각 부서에 計劃課題의 지령을 내리고, 그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자금, 투자 할당 등을 행하게 된다. 계획기관의 지령을 받은 각 행정부서는 다시 각급 기업소나 지방기관에 똑같이 計劃課題를 하달한다.

經濟管理體系는 黨中央委로부터 아래로는 말단 기업소까지 종적관계가 뚜렷하게 뻗어 있어, 경제부서에 하달된 계획 이외의 거래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위까지 올라가 國家計劃委員會 등의 중재에 의해 절

5) 대표적으로 소련 사회과학회 회장 「타치야나 자슬라프스카야」, 소련 농업과학 아카데미 회원 「티호노프」등을 들 수 있다.

충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體制에 망라된 수많은 기관의 숫자로, 그 기관의 관리층은 방대하고 공고한 官僚組織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공산주의체제의 경제관리는 방대한 관료조직의 集積에 의해 행해진다.

共產國家들이 착취를 없애고 富의 평등분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를 고수해 온 이유는 共產黨支配의 정치체제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첫째, 黨이 全國民을 완전히 장악 統制하는 데에는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배를 위해서는 우선 경찰력과 같은 強制的이며 위협적인 수단에 의한 통제와 단속, 선전이나 교육과 같은 洗腦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통제수단은 국민 모두를 經濟的으로 예속시키는 일이다. 이는 黨의 수뇌부에게는 전사회와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黨의 존재를 강조하며 개입하는 데에 편리한 장치인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는 黨 內部的 계층질서 확립, 규율의 유지, 黨 내부의 연대감 강화에 적합한 제도이다. 黨의 각 지위에 따라 경제적 처우를 달리하며 特權階級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물론 이데올로기적 正統性 문제 때문이다. 자본주의 市場經濟체제는 실업, 인플레이, 독점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그 결과 몰락하게 되지만 共產主義경제체제는 그런 모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자본주의 진영에서 불가피하게 국제적 독점 자본주의가 발생하여 帝國主義化되므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해왔는데, 共產國家는 이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黨의 統制를 강화하며 주민생활의 희생위에 軍備의 확충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共產圈 變化의 배경과 理念의 修正

가. 變化의 배경

소련에서 共產黨이 政權을 장악하여 社會主義를 처음 실시한지 70년이 흐른후, 오늘날 지구상의 社會主義 國家는 이미 14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⁶⁾

소련은 東西의 時間帶가 11시간의 차이가 나는 광활한 영토에 人口 2억 8천만, 150종의 言語가 통용되는 超大國이다. 소련은 聯邦國家로서 15개 가맹공화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재는 행정적으로 單一國家처럼 일사불란하게 통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소련은 종래와 같은 정치·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다.

中國도 세계 인류의 ¼이나 되는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국으로서 共產黨의 지도하에 40년 이상 社會主義국을 건설해 왔다. 그러나 體制發展의 지연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 중국 역사상 가장 급격하고 변화무쌍한 변신의 실험이 행해졌다.

소련의 정치와 경제는 이제까지 1930年代 스탈린방식의 黨組織과 운영 방식, 경제관리 방식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해왔다. 관료제가 심화된 소련은 비능률이 각 분야에 만연되고, 사회와 경제 전반이 침체되어 급기야는 침몰하는 제국의 운명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브레즈네프 시대에 소련의 共產體制는 “미사일을 보유한 낙후한 제3세계”, 또는 “대포는 만들 수 있으나, 빵은 만들지 못하는 體制”로 비유되었다.

실제로 소련사회내에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가 약속하는 여러가지 命題에 대한 信條는 희박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黨의 선전에 무관심하

6) 소련「문학신문」, 1988년 4.21일자.

며, 심지어 黨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믿지않는 형편이었다.”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改革과 開放을 주창하며 스탈린 이 제시한 제반 共產主義原則을 부정하거나 수정해 나가고 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이전에도 교조적 共產主義에서 탈피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1950년대 후반기에 「호루시초프」에 의해 스탈린식 共產主義를 수정키 위해 改革政策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큰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스탈린이 사망한지 3년이 되는 1956년에 개최된 소련 共產黨 제20차 大會에서 호루시초프 黨 서기장은 스탈린을 格下하는 연설을 하면서 社會主義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修正主義 노선을 추구했다. 호루시초프가 부분적 수정을 시도했으나 먹는문제하나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실각한 후, 黨權을 장악한 브레즈네프는 2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호루시초프의 개혁노선을 후퇴시키고 「네오 스탈린주의 체제」라 불리는 準動員體制를 구축하였다.

현 소련의 개혁주도자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改革政策이 호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와는 質的으로 相異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호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적 오류나 革命戰略戰術만을 비판했지만 자신은 스탈린의 모든 공산주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中國 대륙에서는 毛澤東 사망후, 實權을 잡은 鄧小平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낙후한 共產大國을 극복하는 문제, 즉 中國을 現代化시키는 問題였다. 그런데 共產主義의 완성과 現代化의 실현은 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호간 調和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毛澤東의 후계자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중국 현실에 적용한 「毛思想」이 中國을 現代化하는 데에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에 과감하게 그 內容을 재검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中國의 共產體制를 產

7) 기무라 히로시외, 「현대 소비에트학」, PHP 연구소편, 덕운, 참조

業社會와 核시대에 맞게 변형시킬 수 밖에 없었다.

中國의 共產主義 변천과정은 다른 공산국가에서와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중국 현실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1年 中國共產黨이 결성된 이후, 1987년 10월 제13차 黨大會가 개최될 때까지 이 상호작용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中國共產主義는 상당히 변형되었다. 中國이 共產主義 자체를 오늘의 中國 現實에 알맞게 어떻게 再定義하며 변형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東歐의 8個國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共產化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2차대전후 소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의해 共產政權이 들어 섰다. 東歐圈의 대부분 국가들은 非東歐的 체질을 갖고 있는데도 「스탈린」의 강요와 지원에 의해 共產黨이 정권을 장악한 후, 사회 경제체제를 사회주의화 하였다. 그러나 東歐 諸國은 소련보다 먼저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을 인정하게 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 東歐諸國은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 되었으며, 西歐와의 경제적 격차는 확대되어 심각한 국면에 들어 섰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東歐 國家들로 하여금 실제적 經濟改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때에 이미 東歐 諸國은 경제관리 운영면에서 계획과 국가관리의 틀 속에서 「시장사회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동구 국가는 소련 共產黨 서기장인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 영향으로 표면적인 체제 수정보다는 社會主義體制의 기본 틀 속에서 내부적인 개혁의 잠재력을 축적하여 왔다.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制度를 정착시키면 國家도 부강하고 국민들의 복지도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현실화시킨다고 1黨支配體制의 국가를 세워, 사유재산제를 철폐하여 모든 生産手段을 국가가 장악하고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계획수립과 명령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住民을 집단화시켰다. 그 결과는 오히려 경제적 생산성은 감소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져 침체하여 國家全體가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共產革命을 추진했던 엘리트들이 기대했던대로 作動하지 않아 國家의 사회주의적 경

영방식은 실패를 거듭했다.

體制와 制度는 인간이 그 시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창안되어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共產主義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共產體制에서 生産性的의 문제점은 生産力 증대를 위해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점이 명백해졌다. 그보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이윤동기 여하에 따라 經濟가 활성화되거나 침체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경제발전과 생산증대 보다는 평등한 分配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여 새로운 共產主義的 人間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물질적 이윤동기없이 평등분배만 하면 더욱 열심히 생산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낮아졌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 상태가 되지 않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기 보다는 이기주의적 現象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물질적 欲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등 生産과 分配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財富가 아무것도 없다시피한 형편에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실현하려다 보니(실제는 정치사회적으로 신분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우선 절대적인 富의 增大가 필요했으나, 이 부의 증대는 분배구조의 취약점이 있어 의도대로 될 수가 없었다.

共產主義 경제시스템으로는 生産意慾을 가진 경영자, 기술자, 노동자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다. 市場經濟體制의 민간기업과 같이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내려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연구, 노력하지 않고서도 경영의 유지와 勞動者의 고용이 가능한 경제제도이므로 創意性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共產主義 經濟에서는 기업간에 競爭이 없어서 연약하거나 열등한 企業이 倒産할 리가 없고 기업경영이 부실하다하여 노동자가 해고되지도 않는다. 社會主義 하에서는 기업관리자이건 노동자이건 競爭이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즉 경쟁을 원하는 강력한 사회계층이 없는 것

이다.

예컨대, 한 共産國家의 기계공업 부서는 이 부문의 완전 獨占企業으로 계획 지령만 내리면 된다. 각 경제부서 산하의 기업들은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명령체제에 따르다 보니 設備와 原料의 공급 지연 현상이 만성화되고, 원자재의 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計劃課題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생산 돌격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生産主體는 경제효율과 생산원가의 절감에 관심을 쏟지 않게 되어 제품의 需要·質·多樣性은 무시된다. 量的인 계획과제 수행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불량품 생산이 많아 쓸 수 없는 제품을 창고에 쌓아놓는 일이 빈발하여 원료와 노동력의 낭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⁸⁾

共産體制에서 현대와 같이 고도화된 수많은 企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의 계획과 지령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현대의 經濟水準과 規模는 이러한 경제운영 방식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데에 까지 이르렀다.

정치면에서 黨內的 문제를 國家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면에서도 도산해야될 工場企業을 도산시키지 않고 國家가 그 손실을 감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國家 전체가 파탄·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共産主義 理論은 그 자체가 완전무결할 수 없는데, 더욱 시대마저 바뀌어 현시대 상황과는 더욱 큰 괴리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共産國家들이 이론의 부분적인 보완만으로는 누적된 問題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며 대폭적인 理論의 修正, 現實의 改革을 불가피하게 행해야만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共産國家들은 體制內的 요소 요소에 증만되어 있는 官僚制의 병폐와 비능률로 인해 정치·사회적 停滯現狀, 경제와 국민 생활의 낙후현상을

8) 「고르바초프」는 그의 많은 연설에서 이런 현상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탈피치 못했다.

이러한 정체와 낙후를 극복하고 체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최근에 각 共產國家에서는 改革 共產主義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改革은 어느 共產국가에서는 혁명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현상은 전문적 기술자집단과 경영관리집단의 새로운 세대 아니면 새로 黨의 實權을 잡은 혁명 이후 世代에 그 課題가 이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17년 소련에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한 共產主義 體制가 등장한 뒤, 현재까지 다수의 共產국가에서 多元的인 共產體制가 형성될 때까지 共產主義는 실로 많이 변화되고 분화되었다. 따라서 오늘의 많은 共產主義體制는 본래의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론에서 많은 이탈을 하게 되었다.

나. 理念의 수정

共產體制의 變化를 정확히 파악, 이해하려면 먼저 그 體制의 기본바탕이 되는 理念의 변화부터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 理念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 하는 문제가 밝혀지면 그 體制의 變化性格을 알 수 있다.

政治理念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에 나오며, 따라서 이는 현실 불만과 비판에서 싹튼다 하겠다. 하나의 政治理念이 성립하려면 그 時代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는 時代와 狀況에 따라 성격이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새롭게 급박히 제기된 문제의 解決을 위해서는 종래의 理念이 그 효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理念은 역사의 특정시기와 특수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전 인류역사를 통해, 모든 상황조건에서 절대 眞理일 수는 없다.

共產主義 體制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理念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 共產국가 지도자들이 하게 되었다. 共產主義

理念의 수정은 공산주의 역사의 재평가와 共產主義의 핵심적 理論들을 재해석 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1985년 3월 소련 共產黨 서기장이던 고르바초프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사상적 근거를 레닌에게서 찾고 있다. 그는 레닌主義의 회복을 주장하고, 레닌 이후의 소련 역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소련 共產黨史와 歷史의 재평가 작업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스탈린의 戰時共產主義 理論과 이에 따른 개인숭배와 폭정, 흐루시초프의 主觀主義, 브레즈네프의 官僚主義등 과거의 지도자들이 「레닌主義」에서 이탈했다고 비난하고, 레닌-스탈린-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로 이어지는 黨史를 새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改革政策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스탈린體制의 이론적 유산을 실천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민적 統합을 기하고 改革政策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보와 정통성의 확립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하겠으나, 다른편으로는 이를 위해 共產主義 原則의 수정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있음으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마르크스主義」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은 과거 東歐에서 간단없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中國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미, 1950年代末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연맹 제 7차 대회는 改革路線을 채택하면서 마르크스主義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교조체계가 아니라는 창조적인 해석을 하고, 黨의 지도적 역할을 재평가하였다. 中國에서도 1984년 黨 제12기 제 3차 中央委 회의에서 공업등 도시경제에서 시장경제와 가격체제의 형성을 촉구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黨의 路線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때에 中國共產黨은 마르크스主義가 現實問題를 해결하는데 적합치 않다고까지 선언했다.

이런 경향은 마르크스主義를 각 共產國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共產體制의 분파 작용은 엄연한 현실일 뿐 아니라, 質的인 相異性까지 보임으로써 非共產이데올로기로 발전할 분파도 있을 것이란 가상을 할 수 있다.

소련형과 구별되는 동구형, 혹은 중국식 모형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의 출현 가능성은 共產主義理論의 수정으로 부터 나타나고 있다.

세계 도처의 共產國家들이 처음에는 같은 공산주의 理念을 추종해 왔음에도 국가마다 그 이념의 해석을 달리하고 體制의 상이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역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념 못지않게 各國의 특수사정, 즉 역사적 문화적 전통, 경제발전의 수준, 지리적 환경, 정권장악 방식등이 體制形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共產主義의 주요 원칙을 수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共產主義 理念을 실천하는 과정, 즉 過渡期에 대한 문제는 이제까지 共產主義 原則의 하나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즉, 「社會主義」는 「共產主義」로 가는 일시적인 과도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 異論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최근 중·소에서는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소련학자들 중에는 기존의 社會主義 理論과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창하며 과도기 문제를 제기했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철학의 제문제」에는 스탈린의 개인숭배식 사회주의 이론은 시대요청에 맞지 않으며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역사발전단계에서 독자성을 갖는 사회형태”라 규정하여 社會主義가 과도적 단계라는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中國에서도 「社會主義 初期段階論」이란 이론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회주의를 하나의 독립된 歷史段階라고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론이다. 198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 회의의 개막식에서 당시의 黨 총서기 서리겸 국무원총리인 趙紫陽은 “중국적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라는 제목의 정치공작보고를 행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개방, 개혁노선을 「중국사회주의 초기단계론」이라는 이론으로 정당화시켰다.

그는 “사회주의 초기단계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改造가 기본적으로 완료된 1950년대 부터 사회주의 현대화가 完成될 때까지 적어도 100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기·후기 단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社會主義가 성숙된 후에도 共產主義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회주의 이후 공산주의 단계로 진입한다는 理論을 유보시킨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 원칙에는 역사발전과 사회현상 및 세계질서를 階級間의 대립현상으로 해석하며, 社會發展의 원동력도 계급투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를 共產主義 社會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주요과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중·소에서는 계급투쟁이 시급한 문제라거나 주요문제란 점을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中國의 鄧小平은 1978年 12月 「4개 현대화계획」을 제시하고나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한 理論的 正當性을 제시해 나갔다. 1981년 6월 中國 共產黨 제11기 제 6 차 회의에서 당시의 黨主席인 胡耀邦은 黨史를 수정하면서 毛澤東과 그 思想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 會議에서 毛澤東이 취했던 모든 결정과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階級鬭爭보다 더욱 중요한 黨의 당면과제”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中國의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인 中國이 생산력의 落後, 소유 및 분배제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인민들의 물질문명 욕구와 사회생산성 낙후간의 모순이 현 中國사회의 「주요모순」(계급투쟁은 이제 주요 모순이 아님)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즉,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生産力 증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계급투쟁보다 對外開放과 경제체제의 改革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하였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국내 지식인들에게 “우리는 같은 장애물에서 있다. ……우리의 문제는 階級鬭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한편 그는 1988년 6월말 19차 소련 共產黨 黨大會의 연설에서 “국제관계에서 프롤레타리아 이익과 全인류의 이익간의 상관관계에서……, 전인류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천명하며 「階級」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치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뜻에서 소련 外相 세바르드나제는 1988년 9월 UN연설

을 통해 “국제관계를 계급투쟁을 위한 하나의 형태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국제관계에서의 脫理念, 외교관계에서의 이념 차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셋째, 共產主義 이론에는 共產黨의 기능은 혁명의 참모부 혹은 전위대로서 국가사회를 이끌어 가는 유일한 조직이다. 최근 중국과 소련에서는 黨과 國家機關간의 기능 분리문제가 제기되고, 黨의 指導와 黨 組織운영의 민주주의적 中央集中制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黨의 혁명적 지도보다는 國家의 法體系에 의한 支配와 運營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사회의 民主化를 올바로 통제 추진하는 방법은 사회주의적 法治國家의 창설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법치국가의 최대 특징은 法の 支配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였다.

中國의 경우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에 의하면 社會主義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못한 현 시기의 특징을 여러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중 정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지적하였다. 즉 “인민민주주의 獨裁의 사회주의 제도란 틀만 있지, 그 법체계가 건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黨과 國家 기능의 분리, 法治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鄧小平은 사회주의가 共產黨이 지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제도이므로 서방의 民主制度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

중·소에서 法治에 대한 강조, 개혁과 민주화를 상호 연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따라서 각급 黨간부의 선출과 각종회의에서는 토론과 결정에서 中央集權制가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공산주의 理論의 本質,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生産手段에 대한 個人所有의 부정이다. 이 소유제 문제의 원칙에 대해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共產體制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9) 北京 週報, 1988. 8. 25일자. (共產圈 研究, 1988. 10. 극동문제연구소 pp.66~72. 재인용)

이런 수정은 이미 東歐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수정변화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年代 들어와 中國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경제관리운영에서 「市場社會主義」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운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中國은 최근 발표한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에서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은 公有制를 기본으로하나 여러가지 所有形態가 있을 수 있고 분배도 勞動에 따른 분배와 기타 분배형태가 병존한다고 하였다. 經濟運營體系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경제는 計劃경제와 商品경제라는 두가지 기본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계획적 지도하의 시장조절 기능을 인정하고있다. 이런 理論을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경제는 여러측면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 市場經濟의 모델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섯째, 공산주의체제에서 개인노동이 상품의 성격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共產主義者들은 인간의 노동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나, 共產主義社會에서는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中·蘇에서 공히 「공산사회에서의 노동력은 상품이다, 혹은 아니다。」하는 논쟁이 새삼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共產社會에 있어서도 勞動이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생산수단의 所有者가 노동자집단 전체이지 개개의 근로자는 아니다. 그렇기에 개개의 근로자는 노동력 이외에 가진 것이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¹⁰⁾ 그러므로 노동이 상품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論理는 노동이 상품화되고 僱傭經營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社會主義制度에서는 착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共產主義原理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共產體制 내에서 개인의 영업과 이윤 획득, 富의 축적을 制

10) 소련 개혁파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이다.

度的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1986년 9월 中國共產黨 제12기 6차 회의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에서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개인이 富를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적 要素의 도입을 더욱 확대한다는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이로써 社會主義社會에서도 개인이 富의 축적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가치로 여기는 현상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소등 共產國家의 지도자들은 작금 추진하고 있는 「改革과 開放노선」은 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더 빨리 共產主義로 가기 위한 방도라고 강조한다.¹¹⁾

정치이념은 兩面性을 갖는다.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의 理念이 생기면, 이 理念에 기초를 둔 制度가 정착되게 마련이다. 새로운 制度가 정착되어 기능하다 보면 그것이 유기체처럼 인간을 구속하고 소외시키게 된다. 중국에는 그 이념과 제도를 도입한 인간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이념의 속박물이 되는 등 理念의 兩面的인 기능을 共產主義 이념과 체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共產體制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의 修正은 정치이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겠다.

11) 康仁德편,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주요논문선집, 극동문제연구소, 1988, p.29.

4. 政治 改革의 實態

가. 政治의 문제점과 改革의 과정

변화의 속도가 느리던 과거에는 共產體制의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전국민을 통제 동원하는데 스탈린식의 政治制度와 그 과정이 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는 과거의 政治方式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共產主義理論에 따르는 政治는 革命過程에서는 기능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共產主義政治는 관료제의 병폐를 심화시키고 전사회가 정체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共產體制는 政治가 우선하는 체제이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경제나 사회등 제반 분야의 제도가 확립되고, 모든 政策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政治가 노쇠하고 경색되어 신축성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社會組織이 활력을 잃고 있어서 국민의 잠재 능력을 개발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共產國家에서는 政治자체가 개선되어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에서도 政治의 改革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 共產國家에서 政治의 개혁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바로 경제 분야인 것이다.

共產國家들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는 意志를 갖고 가히 변혁적이라 할 수 있는 經濟體制의 改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經濟構造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政治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政治改革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다. 共產體制의 노쇠하고 경직된 政治하에서는 對外開放과 體制改革을 지향하는 經濟분야에서의 제반 조치들을 시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經濟改革은 理念의 재정립과 함께 政治的 제반장치까지 마련되어야 그 實效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共產圈에서 본격적인 政治改革을 시작한 나라는 中國이었다. 中國에서 鄧小平體制의 「4개 현대화」 계획의 추진이 政治的 改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中國에서는 經濟 第1主義로 나가기 위해 정치의 뒷받침과 조직생활의 합리화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亂보다는 治」를, 그리고 투쟁보다는 안정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黨 路線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中國의 정치개혁 이전에도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 經濟改革, 政治的 革新, 理念의 修正이 행해졌다. 그러나 중·소 양 공산대국이 전통적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며 보수적 입장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東歐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련이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에 입각해 宗主權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공개적인 체제의 수정보다는 社會主義體制의 기본 틀 속에서 내부적인 개혁의 잠재력을 축적하여 올 수 밖에 없었다.

東歐共產主義의 개혁의 연원은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사회주의 독자노선」을 천명하고 소련과의 결별을 선언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소련의 宗主權을 부정한 후, 대내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각 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東歐의 改革主義는 1953년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다. 특히,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체제」의 神話에 비판을 가한 것을 기화로 하여 동구개혁의 波高는 높아져,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이를 소련의 軍事力이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시 누적된 변화의 잠재력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事態로 나타났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와 싹튼 각계각층의 改革意志가 학생들과 進歩的 黨 幹部에 까지 파급되어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8년 초, 개혁파인 두브체크가 체코共産黨 제1서기가 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의지와 아래로 부터의 개혁 욕구가 합치되어 정치·경제분야에서 일대 革新의 단행이 개시되었다. 국민의 지

지 속에 政治的 改革意志를 집약한 체코共産黨의 行動綱領등에 나타난 改革路線은 최근 중국과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政治改革의 본보기가 되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改革方向은 레닌과 스탈린의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조직운영 원칙을 배격하고 국민의 自由權(언론,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등)보장과 司法權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自由化 운동은 市場社會主義 형태로의 전환정책과 함께 共産體制의 틀 속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1968년 8월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東歐圈에서는 급격하고 대폭적인 改革의 물결은 사라지고 소련이 묵인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體制내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산권내에서 소련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던 中國이 70年代末부터 體制의 改革을 시작하자 共産 國家의 改革路線은 이제 본 궤도에 올라 그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78년 12월 中國共産黨 제11기 제 3차 中央委 전체회의에서 「4개 현대화」를 黨의 路線으로 결정하고 현대화를 달성하여 中國人의 물질 및 문화생활 水準을 향상시키는 일을 최우선 課題로 선언하면서 體制改革을 통한 변신을 시작하였다.¹²⁾

이 會議에서 中國은 서기 2000년까지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분야에 있어서 강력하고 부유한 社會主義國家가 되게 한다는 공약을 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中國의 지도층은 現代化를 촉진시키는 데에 적합한 黨의 指導와 정치활동은 集團指導制, 民主集中制 및 法制化의 강화라고 선언했다. 이는 黨의 지도하에 黨·政의 機能을 分化시키고, 각 組織의 권한을 법제화하며, 일반국민들도 社會主義法의 보호와 통제를 받게 만들자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中國의 改革路線이 소련으로 파급된 때는 혁명3세대라 불리는 50代의 고르바초프가 黨權을 장악하고 나서 부터이다. 1985년 3월 소련共産黨 서

12) 安秉俊, 「비교공산주의와 현대국제질서」 나남사, 1987, p.102.

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에 의해 구축된 「네오 스탈린」主義의 體制라 불리는 準動員體制의 겹질을 벗기는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브레즈네프시대에 소련에서는 現代社會의 격증하는 기능을 수행키 위해서 전체주의적 官僚體制를 점차 비대화시켜갔으나, 그것에 오래도록 안주하다 보니 體制는 더욱 경직되고 社會는 더욱 침체되어 갔다. 폐쇄적이며 복잡한 官僚制의 만연에 따라 새로운 特權階級이 형성된 후, 계층이동의 경직성, 주민에 대한 감독과 통제 of 중복 등 관료주의적 병폐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黨 서기장에 취임하자마자, 침체된 거대한 共產大國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對內體制의 改革을 최대의 정책과제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2월 소련 共產黨 제27차 黨大會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혹은 개편)」와 「글라스노스찌(공개성, 言路)」라는 命題를 내걸고 體制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과감한 새로운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그는 黨大會에서 과거정책의 모순과 부조리 등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천명했다. 그가 주창한 改革과 公開性의 원칙은 政治制度와 과정에서의 民主的 改革, 경제분야에서의 計劃의 分權化와 일부 민영화 부분의 확대 등 經濟運營管理의 개선, 言論의 활성화와 비판의 자유 확대, 社會 文化생활에서의 自律性 확대 등 그 범위가 넓고 深度 또한 깊다.

나. 政治改革의 방향과 실태

共產國家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政治改革은 1987년 10월의 中國 共產黨 제13차大會에서 黨 총서기인 趙紫陽이 행한 「정치공작보고」를 보면 그 性格을 알 수 있다. 趙紫陽이 밝힌 政治改革의 내용은 黨·政의 분리, 權力의 지방이양, 政府機構의 개편과 축소, 幹部 人事制度의 개선, 社會와의 대화제도 신설, 社會主義 민주제도 법제화의 방침에 관한 사항이

다. 이와 관련하여 共產國家들이 실시하고 있는 政治改革의 方向을 집약한다면 ① 黨·政의 분리 즉, 黨독제 기능의 재조정 ② 黨內 民主化 즉,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개선 ③ 政權機關의 축소개편과 法治化 및 사법권독립 ④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⑤ 간부 충원의 민주화와 임기제, 복수후보에 대한 비밀투표 및 종신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中國共產黨 13차 대회의 운영과 진행에서 위와 같은 정책 노선이 적용되었다. 우선 종래에 정치국 常務委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黨中央委員會의 권한을 강화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제도화시키고, 黨內 民主化를 다소간 진척시켰다. 이 黨大會에서 中央委員의 선출은 복수 후보에 대한 黨代表들의 비밀투표로 선택케 하였으며, 그 과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 大會에서 趙紫陽이 보고를 통해 밝힌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충원과 관련한 제반조치들은 政治改革의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政權機關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政務공무원과 業務공무원으로 구별하는 「國家公務員制度」를 실시할 예정임을 천명하였다. 정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적용하며, 업무공무원은 그 임용에 있어서 시험제와 초빙제를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¹³⁾ 中國은 이미 1982년 제 5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와 각부 부장들의 임기제를 채택하여 정권기관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함으로써 行政의 활력과 효율을 높이려 했다.

中國이 그 동안 관료주의의 팽배, 행정의 비능률화 등으로 고민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13차 黨大會의 정치개혁방향이 黨權의 축소와 하부조직의 역할제고에 역점을 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시에 黨中央委員會의 권한을 강화하고 매년 中央委 전체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토록 한 조치는 中國新聞들의 표현대로 「黨 中央指導體制의 大變」이 아닐 수 없다.

13) 「공산권동향자료」 국토통일원, 1987

소련에서의 이같은 성격의 政治改革은 1988년 6월의 제19차 소련 共產黨 特別 黨大會를 계기로 더욱 확고해졌다. 1988년 5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음달 개최될 제19차 특별 黨大會에 제출할 10개 항의 「테제」를 채택했다. 이 테제의 主要內容은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改革政策의 성과와 문제점, 금후의 改革方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었으나, 그 대부분은 政治改革案으로 볼 수 있다.¹⁴⁾

19차 소련 특별 黨大會 「테제」의 10개항은 3개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對內政治의 새신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글라스노스찌(개방정책) : 의견의 실제적인 複數主義 채택, 즉 다양한 목소리에 의한 교조적 社會主義觀 퇴치

○사회 民主化 : 소비에트사회의 民主化와 사회주의적 自治의 활성화

○黨 인사제도 개혁 및 黨활동 調整 : 각급 선거의 비밀투표와 黨 幹部의 임기제, 토론과 다수결에 의한 심의, 黨·政·經·社會團體의 기능분화와 黨 統制의 완화

○人民代議員 소비에트의 역할과 권한회복 : 소비에트의 人民代議員 임기는 5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연임 금지, 소비에트 회의 공개

○民族問題 : 중앙관서의 일부 기능을 지방에 이관

○법률제도 및 법체계 개선 : 사법권의 독립, 개혁에 장애되는 法의 폐, 法에 의한 統制

○사회단체 활동의 강화 : 다양한 사회조직의 自律性과 이익단체의 활동인정.

특별 黨大會에서는 상기 「테제」에 대해 많은 반대 토론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민주주의 토의방식을 보여주었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한 것은 종래의 소련 政治行態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평가할

14) 「共產圈研究」 1988. 8월호, (극동문제연구소) 참조

수 있다.

소련에서는 이미 2년전 부터 黨 幹部 등 各급 組織의 책임자를 黨의 최고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다소 민주화된 選舉方式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1987년 1월에 개최된 소련共産黨 중앙위원회 회의는 各급 黨組織의 제 1 서기를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과 최고소베트(의회)를 포함한 各급 代議員 선거에서 복수입후보제를 원칙으로 할 것등 선거제 도의 改革案을 가결시켰다. 즉, 各급 당간부, 국가 및 사회단체 책임자들 선임하는데 종전에는 單一候補에 대한 公開 선출방식을 행해왔는데, 이 를 지양하고 複數候補에 대한 비밀투표 방식으로 전환하여 幹部充員의 통로를 어느정도 개방하였다.

이러한 복수후보제에 의한 간부충원 방식은 東歐國家에도 파급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共産黨서기장 「후사크」는 1987년 2월 제 5 차 黨大會 보고에서 政治 社會의 民主化와 經濟再建을 촉구하는 가운데, 民主化의 구 체적 조치로서 黨 지도부를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과 공장·기업소 책임 자들도 임명제를 폐지하고 選舉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간부 선출방식에 의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共産黨은 黨의 핵 심 권력기구인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을 젊은 개혁파 인물로 교체개편할 수 있었다. 이러한 政治改革으로 黨內 世代交替를 시키고 1987년 12월에 는 老齡의 후사크 체코 당서기장을 신진의 야케스로 교체하기까지 하였 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단순한 「세대교체」라는 의미보다 글라스노스찌 와 페레스트로이카의 뜻이 담긴 黨의 최고수뇌의 교체가 행해졌다. 1988 년 5월 헝가리 사회노동당 임시 黨大會에서 고령의 黨書記長인 야노스 카다르(75)가 명예직인 黨 中央委의장으로 밀려나고, 대신 신진 개혁파 인 카롤리 그로스(57)가 신임 서기장에 선출되었다.

헝가리의 전 서기장 카다르는 지난 1956年 헝가리 反蘇봉기때 소련 진 압군에 의해 집권했으나, 소련의 압력을 피해가며 1968년부터 일부 市場 經濟 原理를 도입하여 經濟改革政策을 시행 성공시켰으나 1980年 이후

經濟部門의 失政으로 黨內 改革勢力의 비난을 받아 왔다.

이는 東歐등 공산권에서 政治權力 엘리트들의 충원에서 思想性이 강한 당관료들 보다는 기술관료의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기술지향적 속성이 강한 技術官僚의 浮上은 합리적 官僚制로의 전환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黨 組織의 활성화, 行政과 經濟 업무의 分化, 다양한 하위조직의 자율성 제고를 가능케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專門性이 강조되는 기풍을 조성하는등 기존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에 수정이 가해 짐을 의미한다.

다. 최근의 政治改革 動向

共產諸國에서 政治改革이 행해짐에 따라 國家機關이 개편 및 축소되고 당간부와 국가기관 책임자들이 교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共產國家에서 機構의 개편이나 幹部의 교체는 빈번히 있어 왔지만 최근의 기구개편은 改革措置를 원만히 수행키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간부의 교체는 改革措置에 부응하여 종전에 볼 수 없는 다소 민주적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中國에서는 1988년 3월 25일부터 20일간 개최된 제 7기 1차 全國人民代表大會가 그동안 추진해 온 改革과 開放路線을 재확인하고, 새로 채택한 민주적 의결방식을 통해 행정기구의 개편과 國家指導部 인사를 재구성하였다. 政府機構는 종전 國務院의 기구인 45개 부·위원회를 일부 통폐합 혹은 신설하여 41個의 部·委員會로 개편하였으며, 副總理를 5名에서 3名으로 감축하였다.

기구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제위원회를 國家計劃委員會에 흡수하고 석탄공업부, 석유공업부, 원자력공업부를 통합하여 에너지부를 설립하였으며, 항공공업부와 우주공업부를 통합하여 항공·우주공업부를 설치하는등 많은 부서의 기능을 통폐합한 반면, 노동·인사부등 일부 부서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이大會에서는 또한 國家 주요직책에 대한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은 고령의 간부들이 1線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82년 9월 진행된 黨 12次大會의 黨幹部 이동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黨 12次大會에서는 黨의 規約을 개정, 중앙고문위를 신설하여 80代의 老幹部들을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대신 60代의 黨幹部가 전면부상했다. 1988년 3월 제 7기 1차 「全人代」의 대회에서 國家幹部 선출은 투표소의 설치와 비밀투표, 6백여명의 外信記者에 대한 회의장 공개 및 취재허용, 자유중국 기자의 취재, 현장중계와 개막식의 영어 해외중계가 있었음에도 國家最高指導部の 고령화 방지에 실패했다.

즉, 國家主席에는 楊尙昆(81세) 黨 및 國家軍事委 부주석을, 국가부주석에는 王震(80세) 전 黨 고문위 부주임을, 「全人代」常務委 위원장에는 萬里(72세) 당 정치국원을 선출했다. 한편, 國務院의 총리에 李鵬(60세) 총리 서리를, 부총리에는 姚依林(71세), 田紀雲(59세), 吳學謙(67세)을 선임했다. 또한 國家中央軍事委員會 주석에는 鄧小平(84세) 黨軍事委 주석을, 부주석에는 趙紫陽(69세) 黨 총서기와 楊尙昆 국가주석을 선출함으로써 국가 기관에 대한 鄧小平의 영향력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국가기관의 개편과 黨·政의 人物 교체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중대 政府의 110개 省 및 國家委員會를 106개의 성 및 국가위원회로 축소하였다. 실례를 들면 농업관계 6개성을 통합하여 國家農業委員會로 개편하였고, 2개의 무역관계 성을 통합, 대외경제관계성으로 개편했으며, 3개 교육관계성을 통합하여 國民教育國家委員會로 개편하였다.

특히 1988년 6월의 소련공산당 특별 黨大會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막연설에서 밝힌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안은 共產體制에서의 黨의 絶對性과 무오류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공산주의이론을 크게 수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權力構造 改編의 핵심은 지금까지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던 最高會議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여 실질적인 國

民代表性을 갖게하고 강력한 權限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최고 기관으로 변모시킴으로써 黨의 절대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함께 국가원수의 지위를 형식적 위치에서 실질적인 國家統治權者로 격상시키도록 하였다.

1988년 10월 22일 소련신문들에는 特別 黨大會에서 마련된 헌법개헌 초안이 발표되었다.¹⁵⁾ 개헌안에는 人民大會라는 새로운 대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가 立法府 기능을 하는 最高會議 위원을 선출토록하였다. 最高會議는 종래까지 연간 2회만 소집되어 4~5일의 회기만 갖던 것을 연간 2회 소집에 4~5개월의 회기를 갖도록 했다. 또 軍의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등 권한이 확대되었다. 人民大會는 유권자들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2,250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최고회의議長이 국가원수직을 맡도록 하고 있다. 人民大會에서 선출된 국가원수는 임기 5년에 1차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共產體制의 權力構造상에서 국가권력은 중국적으로 黨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으며, 黨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소련의 헌법개정으로 黨의 權力行使 방법이 직접적인 형태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바뀌는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새 헌법초안에서 실질적인 最高代議機關으로 규정된 人民大會 代議員에 대한 국민의 직접 비밀투표는 관행인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복수후보에 대한 선택으로 바뀌었고, 출마자들이 選舉運動本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까지 규정했다.

共產體制에서는 스탈린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黨이 사전에 내정한 단일후보에 대해 贊反을 묻는, 선택권 없는 선거가 이른바 民主主義원칙으로 예찬되어 왔다. 모든 주민과 각종 회의체는 黨의 최고지도층에서 미리 내정한 人物들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나마 각급 黨組織의 제 1

15) 조선일보, 1988. 10. 25일자.

서기는 黨 指導部가 내세운 인물을 舉手로 선출했다.

이제까지 選舉運動은 지도자 선택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라 政治社會化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후보자의 연설회란 것이 후보자와 기타 黨幹部의 黨政策 解說會에 불과했던 것이다.

소련의 일부기관들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비밀선거제도에 의해 보수관료의 逐出이 이루어졌다. 1987년 3월 진행된 언론인 노조대표자회의에서 공개투표가 진행되는데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비밀투표가 다시 행해져 신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미 카작스탄과 우크라이나등에서 일부지방의 共產青年同盟의 書記들이 복수후보에 대한 비밀투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복수후보를 내세운 선거라 하지만 代議員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지명권은 黨이 쥐고있기 때문에 黨의 권한은 아직도 막강하며, 黨의 최고 實權者의 자의에 의한 인사개편 현상은 없어질 수 없다. 이는 새로운 세대로서 黨 書記長이 된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정책을 내걸고 단행한 黨·政의 인물교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黨權을 장악한 후, 改革 反對者 혹은 무능력자라는 구실을 붙여 대대적인 숙청을하여 黨·政을 재정비하였다. 그가 집권한 이후 '88년 중순까지 黨 政治局員 13명 중 8명, 黨 서기 13명중 10명, 가맹공화국 당 제 1 서기 14명중 8명, 지역黨 제 1 서기 157명중 97명을 교체했으며, 각료 106명중 72명을 교체하는 등 브레즈네프 시대의 인물을 不正腐敗, 무능, 고령 등의 이유로 교체하였다.¹⁶⁾ 그는 집권하자 먼저 1년간 300명의 黨中央委員 중 약 40% 정도를 새로운 젊은 人物로 교체하여 黨의 權力構造를 再編했으며 행정부의 각 부처와 가맹공화국의 간부들도 대폭 교체하였다. 그가 집권한 후 2년에 걸쳐 모스크바市の 33개 地區黨중 23개 지구당의 서기가 개혁조치에 부응치 못한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다.¹⁷⁾ 1987년 3월 소聯邦검찰총장 레 쿤코프는 프라우다紙와의 회견에서 1986년에 20만명의 관리들이 국가기

16) 「共產圈研究」 1988. 8월호(극동문제연구소) 참조.

17) 동아일보, 1987. 11. 2일자.

강 문란행위로 처벌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불량상품 제조와 계약불이행 혐의로 징계받은 1만8천명도 포함돼 있다며 法の 엄격한 준수와 국가 기강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물교체는 고르바초프의 地位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으나, 다른 한편 그의 개혁정책은 많은 抵抗에 부딪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소수 민족으로부터 혹은 黨內의 보수세력으로부터의 반발을 누르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여파로 아르메니아에서의 民族紛爭, 에스토니아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政治改革政策은 당관료뿐 아니라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소련의 불세비키혁명 이후, 2세대가 지나가면서 黨機關에 자리잡고 있는 간부, 새로 부상한 국가관료 등이 특권계급으로 등장하여 「아파라츠키(관료집단)」를 형성하였다. 이들 特權階級은 위로는 黨 서기장부터 밑으로는 하부 黨組織 책임자까지, 首相에서 말단 행정단위 책임자까지 망라되어 있다. 현 소련體制에서는 특권계급의 자제만이 특권계급이 될 수 있으며, 勞動者 아들은 노동자로 되는 등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직된 체제로, 이것이 改革의 對象인 동시에 개혁의 장애물인 것이다. 黨의 중앙통제 계획경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급 黨官僚는 대부분 개혁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하급 黨관료들도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에 대해 특권계층 뿐 아니라 나태에 물들은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음성적 수입을 선호하던 관광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서 저항요소는 일시에 사라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고르바초프는 저항의 벽을 혈면서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만 그개인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소련 공산체제도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經濟管理構造의 變化 實態

가. 經濟管理構造의 문제점과 변화 과정

共産國家들은 스탈린식 중앙통제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생산과 分配 管理를 행해 온 결과, 생산량의 저하와 경제적 낙후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통제적 經濟管理運營은 현실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中央統制機關인 國家計劃委員會를 비롯한 경제부서들은 산하의 공장·기업소에 生産目標를 할당하고 어디서 원료를 구입하고,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 판매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사항들을 결정하여 명령하는 방식으로 經濟管理를 해왔다. 심지어 기차표나 성냥갑의 디자인도 黨이나 國家의 中央計劃機關이 결정권한을 갖고있었다. 공장과 기업소는 생산품과 이윤을 국가에 납입하고 종업원에 지급할 봉급을 수령해오는 일밖에 하지못하여 기업소가 자체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 자금을 國家에 요청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市場經濟의 自律調整기능을 부인하고 計劃當局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計劃經濟는 지난기간 소련인들에게 직장과 低物價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企業所가 이윤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企業의 종업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동일의 봉급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만약 어떤 기업소가 生産目標를 보다 잘 달성하여 이윤을 많이 내면 낼수록 다음 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만 배정받게 되어 企業의 利潤은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 競爭이 없으니 企業이 도산할 리 없고, 노동자도 웬만해서는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없으므로 보다 質 좋은 제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거나 또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 원초적으로 價格自體를 계획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 동기를 갖지못하는 기업에 가격이 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마련이다.

이러한 經濟計劃 管理構造에 대한 반성은 東歐 제국에서 먼저 일어나,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있어왔다. 그러나 공산체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中國에서 鄧小平이 實權을 잡고 實事求是의 정책을 시행하고 부터이다.

中國의 鄧小平이 1978年末 중국공산당 제11기 第3中全會議에서 「4개 현대화」의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經濟第1主義로 나가기 위해 정책노선을 재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 現代化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1981년 6월의 黨 제11기 6中全會議라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黨의 당면 課題를 계급투쟁보다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現代化를 위해서는 生産力의 발전과 개인의 創意力을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험적 조치를 먼저 農業部門부터 취하도록 하였다.

당시 中國 共產黨 總書記 胡耀邦은 包產到戶(농업생산에서 일종의 도급제로, 생산할당을 各戶에 맡기는 制度)나 自留地를 경작면적의 15%까지 올리는 조치와 함께 농촌지역에서 사유재산이나 영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中國은 經濟改革의 첫단계로 農村經濟에 새 계약제도에 의한 책임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農村의 생산소대나 농민소조, 혹은 개인이 當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양의 生産量을 달성하면 그 이상의 초과생산분은 生産者가 자의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農業部門부터 시작된 中國의 개혁조치가 工業등 다른 경제부문에 확산된 계기는 1984년 10월 黨 제12기 제3中全 회의에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고 부터이다. 이 회의에서 「經濟構造의 개혁에 관한 中國共產黨 중앙위원회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복잡하지만 요점은 市場經濟와 價格體制의 형성을 시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된 배경은 農村에서 책임제에 의한 生産과 分配制度를 실시해 본 결과,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 농산물을 대폭적으로 증산할 수 있었으므로 비슷한 改革을 工業에서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있었다.

이로써 中國은 종전의 경직된 中央統制와 계획의 강도가 완화되고, 농업과 공업등 경제의 전 부문이 그들이 말하는 商品生産體制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생산과 교환이 市場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시되도록 유도한 것이다.

기존의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농촌의 副業이나 自留地에서 생산된 물건을 처리하는데 국한하여 허용되었으나, 經濟改革 이후에는 시장거래를 도시의 기업생산품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中國에서는 도시경제의 75% 이상을 市場價格形成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는 東歐諸國의 시장기능을 능가하는 것이다. 中國에서 자율적인 競爭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價格이 수요와 공급, 혹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능률적인 資源의 배분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東歐에서는 여러가지 經濟改革案이 마련되어 1950年代말부터는 유고슬라비아에서, 1960年代에는 헝가리가 실시하였다. 東歐諸國이 실시한 經濟改革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중앙집권적 管理의 合理化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과 국가관리의 틀 속에서 「市場社會主義」의 도입이다.¹⁸⁾ 후자에 속하는 나라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는 티토의 독자노선 선언 이후 농장과 기업체를 「자주관리위원회」가 운영토록 하는등 「自主管理體制」를 바탕으로 한 시장사회주의를 제도화시키고 실시하였다.

東歐나 中國의 經濟改革에 대해 무관심했던 蘇聯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改革의 기치를 들고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에서는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침체의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과 공업생산을 제고시키고 經濟成長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中央集權의 계획경제, 스탈린식 命令經濟體制는 산업화 초기에는 基礎工業을 축성하고 農業을 근대화시키는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었

18) 安秉永, 「현대공산주의 연구」 한길사, 1983, p.188.

으나 高度産業化로 가는데에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족쇄로 되었다. 스탈린주의적 생산제도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의 투입에 비해 지극히 비경제적인 생산품이 산출되었다. 외연적 擴大成長方式에 의존으로 노동력과 자원이용에서 커다란 낭비를 거듭해 온 것이다.¹⁹⁾

소련은 軍需産業分野를 제외하고는 제조업분야 生産品의 낮은 품질로 인해 군사정치적 초강대국임에도 개발 도상국과 같은 교역패턴, 즉 연료와 에너지를 수출하고 工業製品을 수입하는 처지에 있었다.

소련의 노동자들은 근무처의 賃金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비합법적인 개인노동, 서비스등 부업에 의한 보조수입을 올리든가, 기업이 架空勞動者의 명단을 만들어 이 명의로 확보한 자금을 분배하는데 한 몫 끼는 것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데에 힘을 써왔고 근무처의 事業에는 등한하였다. 한편, 분명한 所有의 概念이 없어 직장 자재나 부품을 갖다 물물교환하거나 용돈 별이를 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스탈린의 사망후, 부분적인 經濟改革이 행해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원칙을 고수하는 범위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命令經濟體制에서는 노동자들이 형식상으로만 生産現場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원의 하나로 취급되어 勞動資源으로 관리되기는 마찬가지였다.

1986년 2월말의 소련 共產黨 제27次 大會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經濟에서의 당면課題로서

- 과학기술의 발달과 社會經濟의 발전
- 계획의 개선과 國民經濟發展의 전체적 균형
- 國家管理體系의 개선등을 제시했다.

상기의 改革方向은 종래에 항상 외쳐오던 動員 口號의 성격을 넘어서 經濟管理運營 방법의 개선에 역점이 두어진 실질적 개혁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조치에는 經濟部署에 대한 黨의 사소한

19)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고명석역, 시사영어사, 1988), p.16.

간섭을 배제하고 비전문적 개입을 방지하며 生産單位의 자율성을 넓힌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價格體制를 조정하여 가격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정가격이 아닌 계약가격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市場經濟體制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나. 經濟管理構造의 改革方向과 實態

중·소가 經濟改革을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일부 東歐國家들은 중앙통제의 합리화 및 사회주의 틀 속에서의 市場機能 확대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 그간 東歐諸國이 추진했던 經濟改革의 심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그 방향과 내용은 대체로 ① 경제계획에서 통제수치의 축소 ② 행정적 가격 결정의 완화 ③ 기업의 意思決定權 확대 ④ 물질적 자극 인정 ⑤ 기업의 실적평가 기준으로 이윤개념 도입 ⑥ 외국시장과의 연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東歐 共產國家가 이같은 방향의 경제개혁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여러나라가 중도 포기하거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와 經濟改革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中國이 더욱 큰 폭으로 改革의 방향을 설정하여 東歐보다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1987년의 中國共產黨 13차 大會에서는 효율적인 社會主義經濟를 성취하려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의 初期資本主義가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산업구조의 개편,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對外 技術交流 및 合作의 추진방침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黨大會의 보고에서 경제체제의 改革方向으로 ① 소유·경영권 분리 원칙 ② 기업간 횡적 연계 추진 ③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육성 ④ 자율경제체제 조성 ⑤ 공유제를 주체로 한 多種의 소유제 발전과 각종 個人所有制 추진 ⑥ 다종의 分配方式의 개선 방침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1988년의 제 7기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헌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所有制에 대한 재수정을 하고 相關경제 법안들을 제정하였다.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토지의 國有制原則하에 그 사용권의 讓渡가 허용되었다. 헌법 제10조 제 4 항을 “...토지를 점거·매매하거나 기타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使用權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로 개정, 토지임대나 사용권의 양도허용 조문이 첨가되었다. 실제로 中國 上海市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제를 실시할 계획이다.²⁰⁾ 한편, 個體經濟의 合法的保護를 규정한 제11조에 “...국가는 私營經濟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재·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는 조문도 추가하였다.²¹⁾

그밖에 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全人民所有制企業法도 개정하였다.

국영기업법인 全人民所有制企業法은 ①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토록 하고 ② 공장장의 經營責任制를 규정함과 동시에 ③ 개별기업들이 外國企業들과의 합작등의 협약을 정부허가없이 직접체결할 수 있도록 自主權을 대폭 허용토록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후, 소련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개혁조치의 성격을 요약한다면 정부의 과도한 經濟關係機構의 개편과 축소, 계획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와 分權化, 공장·기업과 집단농장등 생산주체의 自律權 확대, 個人營業과 부업의 허용을 들 수 있다.

각 生產主體는 자체의 책임하에 생산과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책임 생산제나 請負制를 실시하는데, 특히 農業, 輕工業,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실험되고 있다. 그 실험의 초점은 생산분야에서 자기가 낳은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생산방식, 경영방식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소득격차를 용인하고 個人的 利益 추구를 죄악시 않겠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나태한 노동자와 농민을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1986년 3월 소련공산당 27차 대회에서는 農業의 낙후 문제가 논의되고

20) 조선일보 1988. 2. 6일자.

21) 「共產圈研究」 1988. 6월호(극동 문제 연구소) 참조.

국영농장의 自律性을 부여하기 위해 농촌 작업반, 분조별, 가정별로 청부제를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 그외에 개인경작지의 확대와 농촌의 개인부업 경영허용, 일부 농업생산품을 재량으로 처분토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工業生産을 늘리기 위해 上部 課題의 축소, 기업의 獨立採算制 도입으로 經濟機關의 자율권을 확대시키고, 西方 기업과의 합작의 길도 열어 놓았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2백종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관계法令 등이 제정 공표되었는바, 특히 '86년 6월에는 「社會主義 企業法」을 채택하여 3만 7천개의 공장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어 '86년 11월에 제정된 「개인 기업법」은 '87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87년 6월에 채택된 「國營 企業法」은 적자기업을 破産宣告할 수 있도록 하여 '88년 1월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소련에서는 공장·기업에 대한 엄격한 中央統制를 완화하며, 자율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이러한 法들과 조치들에 의하여 工場들이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되지 않는 설비, 자재, 원료의 독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임금 지불도 허용되었다.

현재 共產國家들에서 進行되고 있는 經濟改革의 요체는 ① 교조적 「사회주의적 所有制」에서 개인소유의 폭을 확대하는 것 ② 농·공 분야에서 공히 생산주체들의 自律性을 높이는 실질적인 독립채산제와 민간경제의 영역 확대 ③ 노동자와 농민 개인에 대한 責任制 도입 ④ 물질적 자극에 의한 競爭 및 개인 富의 축적 허용 ⑤ 취업법에 의한 勞動의 자유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모든 국민을 赤字勞動에 투입했던 과거의 경제관리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최근의 經濟管理의 改革動向

共產圈에서는 생산력을 높여 經濟發展을 가속화시키고자 경제 관리구조의 개편이 진행중이다. 새로운 經濟管理方式은 모든 공장·기업소, 집단농장의 업무수행에 파급되고 個個勞動者의 활동과 작업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련은 1985년 말에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2000년 까지의 長期展望計劃」을 통해 앞으로 15년 이내에 국민소득과 공업생산의 2배, 농업생산의 2.5배 증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中國도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구체적 사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1980년의 250달러에서 금세기 말까지 1,000달러로 올려 국민의 衣食을 충족시키며 21세기 중반에는 4,000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소련은 '86년의 제27次 黨大會를 계기로 企業과 個人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의 확대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88년부터는 國家企業法에 따라 기업의 완전독립채산제와 資金의 自己調達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國營農場(2만2천)과 集團農場(2만6천)은 1983년부터 약 20명 단위로 集團請負制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오다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이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1987년 후반부터 2~3개 가족을 하나의 생산단위로 하는 家族請負制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農村의 소규모 生産單位에 대한 청부제를 생산수단의 장기임대(10~15년)에 의해 실시하도록하며, 集團農場등에 대해 완전독립채산제와 자금 자기조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87년 5월 부터는 일부 업종에 대해 개인영업 및 가족기업이나 3인이상의 협동조합형식의 私企業활동을 허용하였다. '88년 5월 소연방 최고회의는 私企業과 집단농장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영기업과 동등한 法的 權利를 부여하는 協同組合法을 채택하였다.

個人營業과 서비스분야에서의 계약노동제 허용으로 미장원, 이발소, 가구 수리업, 식당, 사진관, 택시의 개인 경영이 시작되었다. 물론 契約

勞動은 집단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다만 농촌에서의 소규모 家禽業과 養蜂 등은 가정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個人營業을 하는 경우에도 요금과 불입금등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분야의 個人營業 허용으로 흑해연안의 「오테사」항에는 500대의 개인택시가 운영되고 공원에는 個人商店이 문을 열어 가정에서 만든 의류와 공예품을 팔고 있다. 私企業의 등장으로 개인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자 1988년 4월에는 빈부 격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종래에 최고 13%였던 소득세율을 최고 90%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1988년초에는 기존의 中央銀行, 건설투자, 대외무역 등 3개 은행을 중앙·농업·공업·도시개발·저축·대외경제 등 6개은행으로 기능을 세분화하였다. 이와 함께 企業에 대한 대출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個人에 대한 수표발행을 허용하며 신용 카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련에서는 1987년부터 불공평한 평등주의 임금체제를 개편하여 同一勞動에 대해 30%까지의 능력격차를 두었다. 能力과 實績을 중시하는 임금체제로 전환하여 단순노동자(20~25%)와 관리기술요원(30~35%)의 임금을 차등 인상하였다.

個人營業부문 뿐 아니라 대규모 國營企業所에 대해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 자율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실험이 실시되는 예로서 2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한 건설기계공장을 들 수 있다. 이 工場의 生産計劃은 중앙에서 하지만 1년단위가 아닌 5년단위의 계획으로 전환시켰고, 同一工場이 취득한 이윤의 30%만 國家에 납입하고 나머지 이윤은 企業所 자체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하여 再投資를 하든 종업원의 처우개선을 하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中國은 1978년 말 改革·開放政策 채택 이후, 금지되어 온 私企業 및 개인 營業行爲를 인정하자 私的 營業部門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中國에는 약 1백만 이상의 국영기업이 있고 이들 기업은 약 8천만명을 고용

하고 있으며, 국가수입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²²⁾ 그런데 사기업의 장려 결과, 1987년 말 私企業의 수는 1천 3백여만개에 종업원은 약 2천 만명이나 되며, 營業實績은 연간 소매상품 판매총액의 6%를 차지하고 있다.

中國의 私企業은 대다수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手工業, 料食業, 소규모 商業등에 종사하는 영세한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都市地域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의 종업원을 채용, 대규모의 건축업, 운수업, 대외무역업에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企業(20여만개 추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國은 私企業法の 制定을 추진하여 사기업의 증가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 저임금 지급, 과중한 노동시간 등 제반문제점을 개선, 건전한 私企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中國에서는 私企業의 허용 결과,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점으로 貧富의 격차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中國의 언론들은 빈부의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

1987년 8월 「工人日報」는 中國이 보다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所得隔差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격차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가가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북경에서 발행되는 영문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도 1987년 8월 초, 해안도시와 경제특구 등의 부유한 東部地域과 사막 및 산악지대인 가난한 西部地域을 예로 들어 동서간의 소득격차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가난한 농민들이 1년에 한 사람이 200元 이하의 소득을 얻는데, 北京의 택시 운전사는 한달내에, 과일류 거래업자는 1주일 이내에 농민들의 1년분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청부제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개인경영의 도산매업, 서비스업, 수리업, 요식업 등 이른바 「個體戶」의 높은 소득이다.

22) 安秉俊, 「비교공산주의와 현대 국제질서」, 나남사, 1987, p.113.

經濟管理에 시장기능과 가격체제를 일단 도입하면 대내적으로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對外經濟開放의 필요성이 생기며 또 그것이 용이해진다. 中國은 홍콩과 인접한 深圳을 위시하여 4個의 經濟特區와 14개의 항구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山東半島등에 경제특구의 지정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1988年 3月の 제 7기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海南島를 省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經濟特別區로 하는 의안을 채택하였다.

中國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참가하고 資本主義 경제법칙과 제도에 따라 대외무역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1987년 초에 GATT에 비밀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중앙통제 계획경제체제로부터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中國은 개혁 조치의 하나로 瀋陽市등에 국영주식거래소를 개설하는 등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에 입각한 경제개혁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파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통해서만 社會主義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나, 個人간 所得隔差와 그에 따른 주민간의 위화감등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노출될 때, 教條的 보수주의로 되돌아 갈 소지는 항상 있다 하겠다.

소련에서도 中國 못지않은 새로운 經濟改革案들을 실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르바초프의 정권기반이 약화될 때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선례는 東歐國家들에서도 보여주었다. 중·소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개혁을 東歐共產國家 대부분이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共產宗主國인 소련이 앞장서서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이 東歐諸國의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헝가리는 20년 가까이 改革政策을 추진하여 이미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로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때 늦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 사회노동당의 마티아스 書記長은 소련사회의 변모

를 역사적인 사건이라 표현하는 등, 헝가리 지도자들은 소련이 헝가리의 改革을 그 모델케이스로 삼고 있는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폴란드 역시 소련에서 일고있는 經濟改革 동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폴란드 정부 대변인 우르반은 1987년 3월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에 지지를 표명하며 여러나라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갈 경우, 개혁의 성과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였고 그후 그는 폴란드는 중앙통제하의 계획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私有資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운영방식의 개혁안을 채택,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아시아의 공산후진국인 베트남도 소련식 經濟改革에 관심을 갖고 한정된 改革政策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共產政權은 사이공(현「호지명」시) 점령 이후, 물리적인 인구 재배치, 남부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기업국유화의 추진으로 경제적 재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1985년에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 1986년에는 「하노이」와 「호지명」市에서 한해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商工業의 개인 경영을 허용하였다.²³⁾ 農業部門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단위로 정부가 할당한 목표량 이상의 초과생산분에서 40%를 자유시장에 판매토록 허용하여 농업증산을 꾀하고 있다. 분배·제도에서도 1985년에 생필품의 배급제도를 폐지하여 경제적 난관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 조치로 인해 오히려 제품부족과 인플레이등의 부작용만 유발시켜 다음해에는 일부품목의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다.

23) 조선일보, 1987. 4. 30일자.

6. 社會·文化的變動

가. 社會·文化變動의 要因과 過程

多元主義에 기초한 自由民主主義體制에서의 社會문화의 變化는 일반적으로 社會의 階級으로부터 또는 社會 구성체인 각 이익집단들의 욕구와 갈등에 의해서 야기된다. 그리고 社會의 變化는 政治制度나 經濟政策에 영향을 주어 정치와 경제의 變化를 초래한다. 즉, 밑으로부터의 變化 욕구가 증대되면 상부구조에 變化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일원적인 共產體制에서의 社會 變化는 이제까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다시말해 黨權을 장악한 집단이나 집권자의 意志에 의해 變化가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變化는 政治制度나 정치방식의 變化와 경제정책이나 경제운영방법의 變化를 가져 온다. 이같은 政治方式과 經濟政策의 變化가 중국에는 社會構造나 社會 분위기, 혹은 社會意識까지 變化시킨다. 따라서 共產國家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정치나 경제는 社會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社會의 相互作用은 자유민주체제보다 미약하고,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작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소련, 中國, 東歐의 社會에서 일고 있는 社會變化는 새로운 집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의 개혁의지와 개혁정책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 中國에서는 鄧小平이 實權을 장악한후 대내개혁과 對外開放을 추진한지 10년이 되어감으로써 中國社會를 變化시키고 있다.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改革과 公開性을 원칙으로 한 개방정책의 기치를 내걸자, 소련社會의 階級에도 變化의 물결이 파급되고 있다. 東歐諸國 역시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등장함으로써 정치경제 개혁이 社會전반에 확산되어 變化를 유도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공산주의 문학이론인 社會주의적 寫實主義, 「민족

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內容」이라는 원칙이 정치·사회·경제체제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공산권에서 政治指導者가 교체되고 정치의 개혁이 이뤄짐에 따라 이 원칙에도 수정이 가해져 종래에 「형식만 민족적이었지 내용은 사회주의」였던 體制가 그 內容에서도 민족적 색채가 좀더 농후해 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견 사회문화에서는 전통으로의 회귀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소련과 중국 및 일부 동구권 국가들은 多民族國家이다. 共產體制가 소수 민족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족고유의 전통을 되살리며 나아가 民族自主權 회복을 둘러싼 마찰과 진통이 일고 있다. 민족문제와 함께 종교문제도 공산 사회에서는 잠재된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東歐를 이해하는 데에서 宗教問題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宗教와 共產主義는 양립할 수 없지만, 東歐에서 종교의 중요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國民의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이고 東獨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슬로바니아」와 「크로티아」를 주축으로 하는 북부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서구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로마 카톨릭에 귀화할 수 있었고 民主主義的 사조에 익숙해 있었다.²⁴⁾

共產國家들에서는 역사의 재평가 작업, 이데올로기의 修正作業이 정치와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된다. 소련에서는 과거 스탈린 시대의 歷史를 재평가하고 중국에서는 毛澤東 시대의 歷史를 재평가한 결과 前 시대의 社會相과는 다른 社會相을 보이고 있다. 소련과 중국에서는 과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人物을 복권시키며, 과거 금서로 되었던 저작물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 一元的 政治 이데올로기의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퇴색함에 따라 공산사회에서도 다원성의 싹이 틀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共產國家에는 다원적인 民主社會에서 볼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조직

24) 安秉永, 「현대공산주의 연구」 한길사, 1982, pp.178~179.

화된 자발적 결사체인 利益集團의 결성이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화된 대중조직의 이익표출기능이 부여되는 등, 社會的 多元主義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社會文化 變化實態

共産國家에서는 통치자(극소수 당료)만이 전체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모든 下級 黨員과 一般住民은 정보의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모든 주민들은 자기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情報만 보유하면 되었고 기타 정보는 알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왜곡된 宣傳의 틀 속에 安住토록 하였다.

소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改革은 공개성을 기초로하여 실시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최근 소련은 言論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을 허용하고 있으며, 反蘇 비방이나 선동과 관련된 형법의 개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2월 소련 언론사 대표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스탈린 統治時期를 포함하는 소련역사의 암흑기에 관해 더 많은 진실들을 國民에게 밝힐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실제로 소련의 텔레비전은 최근, 스탈린시대에 強制收容所에서 죽은 희생자의 가족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하였고, 언론들은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되어있었던 官僚의 부패상, 매춘, 마약, 청소년문제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어느 한사람도 없었던 거리의 신문게시판 앞에 지금은 市民이 운집하여 官吏의 비행을 폭로한 기사와 反體制知識人의 비판담화가 게재된 신문을 보고 있다.

소련은 出入國管理法을 보완, 자국민의 해외출국을 완화함으로써 소련계 유대인의 해외이주가 확대되고 있다. 言論은 이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등 批判機能을 갖기 시작하였다.

文藝分野에서는 예술가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져, 소련 작가동맹 대회,

작곡가동맹 대회, 영화인동맹 대회등 예술가 大會가 계속 열리어 예술활동의 民主化 路線을 선언하였다. 문예계에서는 공개성 원칙을 적용하여 파스테르나크 등 과거에 反革命 詩人, 反蘇文學家로 낙인찍힌 작가들이 재평가, 복권되고 있으며, 과거 禁書로 묶여있던 문학작품이 출판되고 있고, 소련 出版界에서는 개인 저서를 3천부 이하를 자비출판 하도록 허용했다.²⁵⁾

영화인들은 영화인동맹 제 1서기로 반체제성향의 「글리모프」를 선출하고 동맹지도부의 ⅓를 신인으로 교체하였다.

文化의 해빙을 선도한 분야는 연극이다. 약 60개의 극장에서 시범적으로 檢閱을 폐지하고 입장료를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는 등, 극장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소련의 社會改革은 간부나 현장노동자들의 무기력과 나태함을 청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알콜이야 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 규정하고 反알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社會紀綱確立을 위한 反알콜 캠페인은 1985년 5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소련市民들이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없게되어 있다. 주류의 판매는 오후 2시부터 하고, 公共場所에서의 음주는 벌금을 부과하며 「보드카」의 가격을 25% 인상하는 등, 節酒運動을 기강확립운동의 제1순위로 꼽고 있다.

共產統制社會에서 특별한 오락이나 레저생활이 없는 까닭에 소련에서는 음주가 성행하고 있었다. 소련에서 노동위반, 무단결근, 이혼의 주원인은 음주때문이며 사망원인도 심장병과 암 다음으로 알콜중독에 의한 것이었다. 심지어 술취한 노동자는 다만 職場에 출근했다는 시늉만 하거나 취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직장내에 음주투쟁위까지 설치하는 기업소, 술주정뱅이의 사고방지를 위해 기계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특별반을 설치한 工場도 생겨났다.

25) 조선일보 1988. 6. 5일자.

이같이 소련의 基層 勞動者들은 음주, 노동기피, 태만에 젖어 있었고, 한편 幹部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지시사항만 전달하며 무기력하게 군림이나 하려는 社會風潮가 병폐로써 지적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共產主義式 생활방법을 회피하며, 생산노동자가 되기 보다는 사무직이나 관리자를 지향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때문에 대학진학 희망자가 지나치게 많아 이것이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中國에서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社會問題가 야기되고 있다. 中國은 과거 10년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주력해 왔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改革·開放政策의 성공이 어렵게 되었다.

中國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問題點은 관리들의 不正腐敗이다. 최근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中國人들은 「관타오(官倒)」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공금횡령, 뇌물수수, 利權개입등의 부정부패가 官倒라는 말속에 포함되어 있다. 中國 國務院은 1988年 9月 마침내 2,000元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등 26개항에 달하는 국가행정기관 공작인원의 「貪污 행정처분 잠행규정」이라는 법규를 발효시켰다.²⁶⁾ 이어 1개월 후 中國 共產黨 總書記 趙紫陽은 黨·政 관리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다음 사회문제로는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일부계층의 불만과 中國 화폐의 2중구조에서 연유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에는 내국인용의 인민폐와 「外匯兌換卷」이라 불리는 인민폐가 동시에 통용되고 있다. 2~3년 전부터 시작된 물가폭동, 그로 인한 사재기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家電製品등을 살 수 있는 외국인용 인민폐의 가치가 높아져, 같은 가치를 갖고있는 두가지 화폐의 가치를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이때문에 中國內에는 「거리의 암달러상」들이 차츰 전

26) 조선일보 1988. 11. 24 일자.

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추세라 한다.

부정부패 이외에 中國人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 수가 3천 5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1人子女문제이다. 中國의 개혁파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1가구 1자녀」의 人口抑制 政策이 외아들-외딸을 ‘작은 황제’ 또는 ‘작은 태양’으로 만들었고, 그 여파로 학생들로 부터 수업료를 징수하는 私設學校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들이 한자녀에 대한 過保護로 인한 육아의 문제 뿐 아니라 외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教育기관을 적극 설치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의 노령화 문제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어 10억의 인구 중 1억에 가까운 8천8백만명이 60세 이상이라고 中國當局은 집계하고 있다.

中國에서는 文盲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 혼란의 증가에 따르는 대책, 交通법규의 위반을 방지해야 하는등, 수많은 社會문제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또다른 改革當局의 고민은 交通과 통신의 후진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다. 개혁과 개방정책의 결과, 流動人口가 급격히 늘어나서 中國대륙의 流動인구는 하루 5천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송과 통신은 이에 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다.

共產國家의 이러한 社會問題들은 개혁과 개방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인데, 특히 소련과 東歐에서는 자율권의 확대결과, 데모 및 폭동현상까지 빈발하고 있다.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양국에서는 民族紛爭이 발생하고 있으며, 폴란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生必需品 不足과 가격양등에 따르는 불만이 폭발하여 集團行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產國家의 社會에서도 자유민주체제의 다양한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社會 問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7. 結 言

共産主義者들은 平等指向的이라는 환상을 무기로, 어느 社會에서나 있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해소, 새로운 생활에의 약속을 내세우며 暴力革命을 일으켜 政權을 잡았다. 그러나 共産理念이 적용된 현실을 보면, 1黨支配體制의 강화와 생산수단의 私的所有 철폐만 가져왔지 착취와 소외현상, 억압된 삶은 별로 해소시키지 못했다.

스탈린주의에 기반을 둔 共産體制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 共産主義 1黨體制는 인간의 물질적 삶만 궁핍화시켰을 뿐 아니라, 개인의 基本權마저 보장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共産體制 속에서 인간은 黨이 계획한 목적에 공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데다, 인간이 수단화됨으로써 개인의 創發性은 사라져 과학기술의 낙후, 생산활동의 침체를 초래하여 共産國家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共産國家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共産主義의 틀속에서 政策의 수정을 거듭했으나 共産主義의 병폐는 치유되지 않았다.

社會와 人間을 革命하고 개조한다는 과격한 理念을 기초로 하여 탄생한 共産體制는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지 70년이 넘었으나, 그간 많은 問題點과 矛盾을 누적시켜 왔지, 문제의 해결능력은 갖지 못하였다. 共産體制가 自己修正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體制改革의 움직임은 나타난 것이다. 공산대국인 中國이 1970년대 말부터 개혁과 개방을 광범히 추진하고 있고, 공산 중주국인 소련도 1980년대 중반에 와서 公開性和 改革의 기치를 내걸고 體制의 變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體制修正의 폭과 심도는 공산주의의 變質 가능성마저 보여줄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다.

共產國家들의 지도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理念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는 그 體制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中·蘇의 새 지도자들은 종래까지 眞理라고 고수하던 共產主義의 基本原則들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마르크스의 사상, 레닌의 사상,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전반에 대한 是非와 論爭을 허용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수정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변의 共產主義 原則이라 신봉하던 「계급문제와 계급투쟁문제」, 사회주의는 共產主義로 가는 과도적단계에 불과하다는 「過渡期の 문제」, 「共產黨 1黨 독재의 기능과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와 이데올로기의 共存 문제」, 「제국주의와 植民地 解放 문제」, 「資本主義 인식 문제」, 「생산수단의 소유문제(공장·기업소와 농지 등)」,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社會의 集團主義」, 文藝에서의 「사회주의적 寫實主義」 창작 방법 등에 관한 이제까지의 교조주의적 명제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치 않게 되었다. 이런 共產主義의 원칙으로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이제까지 적용시키던 共產主義 理論들은 불가피하게 수정되고 있다.

共產主義의 원칙적인 理論들을 재해석하며 수정함에 따라 단순한 現實變化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體제도 변형 내지는 변질의 과정을 견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共產體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측면을 集約하면 ① 정치적 리더쉽의 構造 및 行態의 변화에 따른 官僚制와 統制의 완화, ② 중앙집권적 計劃體制의 완화와 市場社會主義에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체제의 構造的 변화, ③ 획일적 사회의 탈피 및 利益集團의 대두와 제반 사회문제의 노출등이라 할 수 있다.

共產國家들이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共產主義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서 變化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限界性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共產國家라도 經濟成長을 하려면 情報의 공개 없이는 불가능하며, 때문에 정보의 자유화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보의

자유화는 共產主義理念의 弛緩現象을 초래하며 共產體制의 해체와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산체제의 개혁에는 분명 限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共產體制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과 변화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共產國家들이 經濟改革을 한다하더라도 중앙의 지령을 얼마나 어떤 형태와 범위로 억제·축소하느냐 하는 것이 지령체제 그 자체를 바꿀수는 없는 것이다. 共產黨의 1당독재를 불변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體制에서 黨의 지도하에 民主的 改革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自由民主主義는 될 수 없으며 전면적인 市場經濟體制로는 되지 못할 것이다. 共產主義의 변질이란 장기적 전망을 할 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共產國家들이 體制 안에서 制度의 修正과 變化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후진공산체제는 아직도 1930년대의 스탈린 식 共產主義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金日成-金正日 父子세습체제를 구축한 北韓 共產體制는 공산세계 내에서 홀로 개혁과 변화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北韓만 언제까지나 共產圈 안에서 이단으로 있을 수는 없다. 중·소등 후진 공산국가의 변화로부터 오는 자극과 압력, 대내적으로 누적된 父子세습체제의 모순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탈피키 위해서는 體制의 과감한 改革과 開放의 길 밖에 없다.

바로 오늘의 中·蘇 개혁상황과 東歐의 변화양상이 北韓 共產體制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모습을 진단하는 데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共產體制의 실상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民族이 번영하고 世界史의 主流에 참여하는 길은 우리가 北韓 共產體制의 改革을 유도하며, 우리의 참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平和統一을 달성하는 기반조성이며, 당장은 南北에 살고 있는 우리 民族成員이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회복해 나가는 길인 것이다.

IV. 現代急進思潮

梁榮植(統一研修院教授·政博)

1. 머리말

어떤 思想이나 理論을 論할 때, 先入見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없다. 특히 外來 急進思潮의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통찰과 연구없이 특정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무조건 수용 또는 무조건 비판으로 일관하게 될 때 思想的 混迷를 가중시킬 뿐 결코 개인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또한 특정의 外來思想과 理論을 위험물로 규정하여 不可觸의 禁忌事項으로 統制하려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는 思想과 理論일수록 그 實體를 摘示함으로써 올바른 理解와 批判을 통해 選別眼目を 키우고 對應論理를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社會一角에서 강한 목소리로 주장되고 있는 「民衆革命論」과 같은 急進主義(Radicalism)의 底流에는 마르크스主義的 用語와 구호가 混在된 外來急進主義 思潮가 引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연 外來 急進思潮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狀況에서 나타난 것인가를 究明하는 것은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思料된다.

急進主義思潮라 함은 既存秩序와 體制를 否定하고 이른바 「人民」 또는 「民衆」에 의한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主張과 行動을 말한다.

本稿에서는 現代急進主義思潮中 ① 네오 마르크시즘(Neo-Marxism) ②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 ③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 ④ 解放神學(Theology of Liberation) 등 4大 思潮를 선정하여 概念과 背景, 주요논점 및 綜合評價를 試圖하고자 한다. 특히 西歐와 美國에서 풍미하고 있는 위의 급진사조들은 疏外, 현실부정과 抵抗의 表現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方法論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暴力革命論의 내용을 援

用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또한 疏外·貧困·社會的 不義와 不正, 對外依存성과 階層間·地域間 不均衡等 특수한 政治·經濟·社會的 要因이 그 背景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위와 같은 관심사항들이 구체적 理論의 實相究明을 통해 밝혀지게 되면, 歷史的 敎訓要素와 警戒要素들이 동시에 導出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分析結果는 韓國의 「民衆革命論」의 實體와 問題點을 直視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急進主義思潮의 수용가능성과 근본적 대책방향을 案出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네오 마르크시즘

가. 네오 마르크시즘의 概念과 背景

네오 마르크시즘이란 2次大戰전후에 마르크시즘에 대한 自省과 自己批判과 더불어 登場한 새로운(Neo) 마르크스主義의 新造語인데, 1960년초부터 1970년 초 까지 西歐·美國·日本등 先進資本主義 국가의 新左派學生運動의 정신적 支柱였다고 할 정도로 청년과 지식인층에 큰 영향을 미친 急進思潮이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대체로 敎條的인 正統마르크시즘뿐만 아니라 레닌主義를 비롯한 스탈린主義, 트로츠키主義, 毛澤東主義, 카스트로主義 및 기타 無政府主義的 마르크시즘을 포괄하는 이른바 續마르크스主義(Nachfolge Marxismus)와 그리고 西歐의 生産資本主義등 세가지 思想범주를 「휴머니즘的 立場」에서 비판하고 마르크시즘을 새롭게 再解釋,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이든 고도로 分業化되고 있는 곳이나 疏外의 문제가 增加되는 곳에서는 네오 마르크시즘의 受容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思想은 소련 및 東歐보다는 오히려 非共產國인 西方先進國과 제3세계에

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네오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의 教條的 폐쇄성과는 달리 理想的 개방성을 강조하며 黨과 社會團體 등의 집단보다는 個人良心의 義務를 중시한다. 분야면에서도 政治學·經濟學·社會學·心理學·美學·神學 등 人文社會科學의 거의 모든 분야와 접합되는 등 매우 복합적이고 理論이 多岐함으로 말미암아 일률적 해석과 평가가 쉽지 않다.

「네오 마르크시즘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태리의 그람SCI(A. Gramsci), 헝가리의 루카치(G. Lukács), 독일의 코르쉬(Korsch), 프랑스의 알튀세(L. Althusser) 등의 개별연구의 공통점은 대체로 레닌의 黨派性和 프롤레타리아 獨裁, 그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의 哲學不在 등에 비판의 초점을 모았다는 點이다.

또한 코민테른의 억압으로 하나의 運動으로 전개되지는 못하고 단순한 개인적 저술활동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가 1932년 독일에서 마르크스의 初期 청년시절의 作品인 『1844년의 經濟·哲學草稿』와 『독일 이데올로기』(Deutsche Ideologie)가 발견됨으로써 소련式 마르크시즘의 正統論에 대한 理論的 挑戰根據가 나타나게 되었고, 마르크시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勞動疏外論의 분석을 통하여 마르크시즘의 本質을 휴머니즘(Humanism)으로 규정하면서 既存 공산권과 西方資本主義社會의 非人間化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네오 마르크시즘이 본격적으로 토론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2차대전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學派에 의한 批判理論이 定立되면서 부터이다.

프랑크푸르트大學 부설 社會研究所(1923년 설립)의 제 2대 所長으로 취임한 청년 좌파철학자인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로부터 시작하여 아도르노(T.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폴로크(Follock), 하버마스(J. Habermas), 슈미트(Alfred Schmidt)를 거처온 네오 마르크시즘의 批判理論作業은 青年마르크스의 理想主義의 입장으로 回歸하려는 屬

성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네오 마르크시즘은 1960년대에는 주로 西歐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학생운동의 促成劑가 되었고, 1970년대 후반기 부터는 주로 非西歐資本主義국가에서 急進的 學生運動과 反體制知識人의 반체제운동의 주요 이론적 무기가 되어 왔다. 南美, 아프리카, 中東,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반체제 또는 반정부 抵抗의 理論定立에 있어서 네오 마르크시즘으로 부터 파생 또는 接木되어 나온 과격한 急進思潮가 流入·混在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1966년 英國의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 출판한 『May-day-Manifesto』, 1967년 N. Chomsky의 『美國의 權力과 새로운 꼭두각시들』(American Power and The New Mandarins), 1968년 Fromm의 『希望의 革命』(Revolution of Hope), 그리고 1969년 Marcuse의 『해방론』(An Essay on Liberation) 등은 歐美의 青年·學生 運動史에 격랑을 몰고 온 주요한 정신적 이론적 무기가 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나. 네오 마르크시즘의 主要論點

1) 共產主義와 人本主義의 等式化

네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공산주의는 곧 휴머니즘으로 보고 있다. 마르크스적 人本主義란 인간의 疏外와 그 소외의 극복으로서 인간본질의 회복과 人間性 解放을 의미한다. 즉 마르크스에 의하면, 私有財産制度 아래서는 勞動者의 노동 그 자체는 삶의 보람으로서가 아니라 生存維持 수단으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외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네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마르크스가 소외개념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사상이 人本主義의 性向이 강했던 反面, 후기의 사상은 혁명이데올로기 화함으로써 「휴머니즘」의 몰락으로 특징지워진다는 批判(프랑스의 實存主義哲學者 사르트르 Jean P. Sartre)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시즘의 思想 전체에 「휴머니즘」이 관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意志와 決斷이 중요시되는 이른바 「主意主義」(Voluntarism)의 전망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터 해방하게 되고 동시에 혁명의 가능성으로서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社會主義로 행진하는 長久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네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疏外’, ‘人間解放’, ‘人間希望’의 개념들이 마르크스의 哲學的 中心개념이라 주장하고 소련式 공산주의사회와 西方資本主義社會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공산주의국가에서나 非共產主義 국가에서나 공히 인간억압과 궁핍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 사회는 괴물과 같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적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으로 부터 헤어내기 위한 두가지 해방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천재지변등의 自然力의 강제로부터의 解放이며, 또 하나는 內的·心理的 강제로 부터의 解放이다. 前者는 완전해방은 어렵지만 科學技術文明의 발달로 상당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後者는 人間の 社會構造의 改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 해방의 수단으로 하버마스는 「대화」를 제시한다. 이는 마르크주의의 폭력적 방법과는 대치되는 것인데, 하버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인간해방을 위해 계몽함으로써 계몽된 사람들의 조직에 의해 기존 집권세력을 교체할 수 있다면, 인간의 內的·心理的 해방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희망」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지만, 종종 自由를 위한 강력한 意志(혁명, 폭동, 변혁 등)가 표시된 경우가 많았다는 觀點에서, 인간이 하먼 된다는 자신감과 洞察力을 가지게 되면 未來에 대한 希望이 내다 보인다는 것이다. 그 希望은 充分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開放된 水平線’이며, 필경 인간의 希望과 意志에 따

라 추진·活性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後期産業社會에 대한 비판 視角

마르크제를 중심으로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組織化·合理化·權威主義化·機械化현상이 뚜렷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자유는 억압되고 비인간적·비현실적인 무력감이 팽배하게 된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경제적 착취와 억압 대신에 文化心理的인 억압의 개념을 도입하여 계급간의 모순·지배와 피지배현상을 설명한다.

“이제 後期産業社會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개념인 착취로부터의 해방이라는 次元보다는 경쟁적인 市場經濟制度和 自由言論의 「혁명과 해방에 대한 허위의식」조장에 매몰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심리적, 문화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우기 생산과정도 능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데 매몰됨으로 인하여 개개인은 그러한 메카니즘속에서 한낱 도구로 전락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그 결과 산업사회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와 욕구를 질식시키고 있으므로 실로 새로운 全體主義的 社會의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批判마저 가능케 한다.

西歐資本主義국가의 광범한 市民階層들의 生活水準의 향상은 사실상 더이상 경제적인 영역에만 해방의 命題를 局限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視角에서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資本家와 勞動者 사이에는 고도로 발달된 科學기술 특히 情報技術의 방법을 동원한 새롭고 기묘한 형태의 간접조정방식의 支配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支配階級이 피지배 계층인 勞動者들을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통제·감시·支配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배·착취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하여 이른바 ‘사이비 自由狀態’에 만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産業社會의 消費主義와 선전에 노예가 되고 있으며 自由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社會革命을 해야 할 主體的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의식마비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혁명과 解放에 대한 진정한 意識을

깨닫지 못하고 허위허식에 마취됨으로써 革命階級の 解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現代人の 삶이란 사실상 노예이면서 마치 自由人인 것처럼 착각하는 「허위허식」에 빠져 있으며 社會의 風潮에 휩쓸려 그저 맹종하는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더이상 革命意識을 지닌 革命階級으로서의 主體勢力은 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에 있어서 美國社會에 대한 新左派的 批判을 대표했던 마르쿠제는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科學的 社會主義」는 「空想的 社會主義」로 환원되어 버렸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黃金萬能主義’가 풍미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소외현상 그 자체가 社會化하고 있기 때문에 個人의 自由回復이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의식을 되찾으려면, 多元主義的 產業社會의 主流에 끼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解放과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르쿠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사회는 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저개발사회이기 때문에 싸울 가치조차도 없다고 비판함) 그는 西歐先進社會와 투쟁해야 할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論理를 내세우고 있다. 즉 그 社會속에 內在하고 있는 인간욕구에 대한 억압과 새로운 소비성향욕구에 대한 고의적 충동 등으로 先進國들은 後進國들을 무존자원·경제적 利得을 최대한으로 착취함으로써 新植民地化와 流血的 抑壓까지도 불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는 혁명을 통해서 타도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주도세력은 혁명의식이 결여되고 無氣力하게 된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아니라 知識人과 學生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革命의 主導勢力으로서의 知識人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해방과 혁명을 위한 주도세력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知識人과 青年·學生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가 말한 勞動者階級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체제가 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賃金도 조금씩 올려 주며, 그저 편안하게 소비생활에 젖도록 사회를 이끌어 가며, 더우기 제반 社會福祉

對策을 配慮하기 때문에 혁명의식은 커녕 오히려 體制의 維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革命에 대한 知識人의 責任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初期理論에 큰 영향을 준 이태리 공산주의자 그람씨(Antonio Gramsci)는 이미 그의 獄中手記에서 “未來의 혁명은 知識人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現代社會는 高度로 발달된 科學技術社會로서 과학발달과 기술창조의 주역인 知識人과 正義感과 行動을 겸비한 青年學生들이 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가설적 命題는 左派性向의 歐美大學生들에게 큰 정신적 支柱가 되었고 新左派運動의 論理的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知識人중에서도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科學·기술분야의 종사자들은 企業위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조하게 됨으로써 은폐된 모순을 파악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시하지 않는다. 대신에 교육에 종사하는 知識人, 그리고 體制에 영합·安住하는 것을 拒否하는 批判的·革新的 青年學生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더우기 暴力使用 不辭論을 주장함으로써 이들의 혁명론은 歐美學生運動史에 과격한 暴力示威와 테러의 물결을 몰고 왔다.

결국 네오 마르크시즘은 理論的으로는 소의를 극복하고 人間解放과 自由를 찬양하고, 개방적이며 民主的인 知識人의 大衆運動을 표방했으나, 行動에 있어서는 抗拒와 暴力示威와 테러등의 反知性的·非人道主義的·反文明的 挑戰樣相을 드러내고 만 셈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68년 8월 美國의 콜롬비아大學의 경우, 大學生들이 越南戰반대와 大學의 自由를 요구하며 總長室을 점거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學生組織은 「民主社會를 위한 學生들의 모임」(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SDS)으로 밝혀졌다. 이 團體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연계하여 黑人中心의 人權運動과도 제휴했으며 反戰運動의 大衆化를 시도했다. 反戰運動은 黑人解放運動과 결합됨으로써 폭력

적 충돌사건을 빈발했다. 이 組織을 주도한 學生 지도자들은 마르크제와 파농의 理論과 用語들을 즐겨 引用했으며 억압 대신에 自由를, 기성권력 대신에 參與民主主義(Participatory Democracy)를, 자본주의 대신에 社會主義의인 分配의 正義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戰爭 대신에 平和와 사랑을 강렬하게 내세웠다.

또한 1968년 프랑스의 경우, 대학생들이 大學當局에 항의하는 運動을 전개하다가 勞動者들과 단결하여 社會革命을 시도한 運動이 나타났다. 이밖에도 日本의 경우, 全學聯에도 新左派運動이 고개를 들다가 赤軍派의 분열로 점차 쇠퇴해 간 사례를 볼 수 있다.

다.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評價

위에서 일별한 바와 같이, 네오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 양편을 비판하는 비교적 中道主義의인듯한 性向 때문에 그 理論的 論據나 現實的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洞察하기 보다는 無批判的으로 거의 一方的으로 受容을 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젊은 지식인의 경우에 現代資本主義의 逆機能的 쪼꺼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 소외의 문제, 재벌기업(否定的 현상 노출시)의 횡포, 환경오염, 한탕주의 등의 문제들이 開發途上國에서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네오 마르크시즘의 날카로운 비판적인 주장에 매료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젊은 知識人들의 正義感과 抵抗意識에 불을 붙임으로써 네오 마르크시즘은 反體制·反政府的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暴力革命論者들의 理論的 선전 무기로 동원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네오 마르크시즘의 본질을 비판적 視角에서 整理해 보면 다음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네오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시즘으로부터의 脫出이 아니라 反資本主義的 青年 마르크스의 理性的 人間觀에로의 回歸를 志向하는 마르크시즘의 一分派라고 할 수 있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과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政治的·社會的·狀況變化에 적응해 보려는 修正과 自己省察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續마르크시즘의 基本立場의 골격을 受容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네오 마르크시즘은 正統마르크시즘이나 續마르크시즘에서 일관되게 견지한 反資本主義의 否定的 시각을 견지하나 그 批判論理와 方法에 있어서는 보다 知的이며 體系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네오 마르크시즘의 批判的 시각은 분명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지도층에 대하여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自己省察과 制度改善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後期産業社會는 사실상 高度産業化의 결과로 人間의 道具化 내지 脫人間化, 疏外 등의 역기능적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② 네오 마르크시즘은 一見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變形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즈, 드브레이, 마르크제와 같은 네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先進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보다는 第3世界에 먼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며, 大都市圈에서의 투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적대관계라는 계급적 二分法을 구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네오 마르크시즘도 産業國家와 저개발국가의 區分에 계급적 二分法을 구사하고 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부분은 鬭爭과 革命을 통하지 않고서는 階級の 變化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階級解放을 위한 계급투쟁과 혁명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③ 네오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의 疏外論을 휴머니즘으로 해석, 마치 마르크시즘 전체에 일관되게 貫流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슈페터(T.A.Schumpeter), 시드니 훅크(Sidney Hook),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의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青年期 著述에 나타난 人間疏外문제는 당시의 한낱 理想主義的 관심의 表現이었을 뿐, 후기저술에 나타나고 있는 철저

한 革命鬭爭理論과는 무관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즉 青年期の 마르크스가 理想主義였다면, 장년기의 마르크스는 現實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휴머니즘(Humanism)적 思想이 특히 프랑크프르트學派에 의하여 批判理論의 中核的 命題로 되기 시작하면서 네오 마르크시즘의 휴머니즘 旗幟는 反나치 抵抗運動의 기본이념으로 動員되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크프르트學派의 中心人物이었던 마르크제와 프롬등이 美國으로 건너간 이후 西歐에서는 휴머니즘을 가장한 공산주의 革命活動이 더욱 積極化되었다.

일부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주의적 社會主義 또는 社會主義的 人間主義가 공산주의와 그 脈을 달리하는 양 선전함으로써, 非共產국가들의 青年學生, 知識人階層의 휴머니즘志向의 성격에 호소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暴力革命을 위한 意識化 工作을 積極化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共產主義者 내지 그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 스스로가 때로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체제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 解釋이 쉽지 않고 思想的 흥미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결국, 현대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의 亞流的 解釋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批判的 視角이 올바르게 定立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몇가지 觀點에서 고찰할 때, 네오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는 修正·反省·補完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資本主義에 대해서는 철저히 否定的이고 消滅論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으며 青年學生들과 進步的인 知識人중심의 暴力革命을 주장하고 있음을 認知하게 된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자본주의 비판이 착취론을 그 準據로 삼았다고 한다면, 先進資本主義圈域인 西歐와 美國을 중심으로 한 네오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자본주의 批判은 疏外論을 그 準據로 삼고 있다는 差異가 있다. 그러나 兩者 공히 資本主義 消滅과 社會主義化에로의 志向을

提起함으로써 共通性을 보이고 있다.

60년대와 70년대 初에 美國·西獨·프랑스·日本등에서의 좌파적 學生運動의 급류에 영합하였다가 사라져 간 네오 마르크시즘이 開發途上國에서 뒤늦게 社會變革의 理論的 武器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開發途上國의 國內정치적·경제적 逆機能 要因과 더불어 現代共產主義의 전개과정과 전략전술적 推移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말하자면, 先進國은 네오 마르크시즘의 理想主義的 논리가 현실성·合理性의 側面에서 먹혀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後進國에서 혁명을 點火하여 先進國으로 비화케 해 보려는 戰略的 底意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풍요한 産業社會에 대한 비판과 항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건설적인 대안보다는 오히려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行動은 新保守主義(Neo-Conservatism)의 세력을 강화해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실은 네오 마르크시즘이 그 目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點에서 急進的 青年學生·知識人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네오 마르크시즘은 産業化 과정 또는 産業化를 이룬 先進産業社會에서 왕왕 문제가 되고 있는 非人間的 現象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現代社會가 안고있는 소외문제를 어떻게 극소화 또는 消滅시키느냐의 철학적·도덕적 問題意識을 提起하는 가운데 自制와 克服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는 點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接近은 脫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섭렵하여 受容할 경우, 오히려 現代資本主義와 自由民主主義體制를 發展시켜 나가는데 一種의 補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유로코뮤니즘

가.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의 概念과 背景

「유로코뮤니즘」이라는 新造語가 나타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그 뜻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歐洲共產主義이다. 「유로」(Euro)라는 접두사를 붙인 것은 소련식 공산주의 또는 東歐式 공산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등 西歐共產黨을 중심으로 1974년 이후에 주장해 온 서구식 共產主義로 西歐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새로운 思潮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제 3의 「변용된 共產主義」라 할 수 있다.

소련으로부터의 獨自路線 표방과 西歐民主主義의 制度와 절차를 통한 社會主義에로의 길을 선언함으로써 소비에트형 東方世界에는 충격을, 西方世界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 셈이다.

1975년 6월 26일자 이태리 日刊紙 II Giornale Nuova의 論說委員인 Frane Barbieri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유로코뮤니즘」이라는 新造語는 그해 11월 이태리 共產黨 書記長 베를링게르(Enrico Berlinguer)와 프랑스 共產黨 書記長 마르셰(Georges Marchais)의 共同宣言발표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모스크바를 추종해 왔던 프랑스공산당은 크레믈린에 등을 돌림과 동시에 이태리공산당 路線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 여름 東베를린에서 개최된 歐洲共產黨大會에 이르러서는 유로코뮤니즘이 하나의 엄연한 정치현실로서 제 3의 공산주의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회에서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소련의 宗主權 내지 指導權이 拒否되었고, 선거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틀속에서 政權을 장악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공식 표방했다.

물론, 西歐의 모든 공산당이 이 유로코뮤니즘의 路線과 合致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西歐공산당지도자들이 가끔 會同하는 것 이외에 공동 조직이나 강령을 갖고있지 않으며, 獨自路線의 수준과 입장도 같지 아니하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共産黨이 대체로 유로코뮤니즘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트로이카 體制」를 굳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로코뮤니즘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두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68년의 「프라하의 봄」으로 상징되는 체코의 自由化 運動이다. 中央集權적이고 관료주의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적 모습을 지닌 사회주의」(Socialism with a human face)를 주장한 自由化 運動의 기수인 두브체크(A. Dubcek)의 改革運動은 바르샤바 條約軍의 무력개입으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이 크며 특히 유로코뮤니즘의 정치철학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칠레에서 마르크스主義를 표방했던 아엔데政權의 좌초이다. 공산주의자 주도하의 民族戰線에 대한 칠레국민의 支持기반 취약이 실패 원인이었다는 교훈은 폭넓은 同盟政策의 구사가 필요함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칠레의 교훈은 1973년 이태리공산당이 카톨릭세계에 대해 「역사적 화해」를 제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大聯政, 西歐統合에의 공헌, 歐洲共同體의 民主的 전환 등을 표방함과 동시에 소련과 東歐의 관료독재 체제에 대한 批判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의 多元化 내지는 국제공산주의 運動에 있어서의 分化현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나. 유로코뮤니즘의 理念과 路線

유로코뮤니스트들이 표방하는 理念과 路線은 마르크스의 「理想社會論」을 이미 공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놓은 西歐産業社會에서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한 실현방법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태리, 프랑스, 스

페인공산당의 理念과 路線의 共通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1) 單一宗主權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拒否

유로코뮤니즘은 세계의 모든 공산당의 自主性和 동등권을 주장한다. 이념과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모스크바로부터 독립적이고, 「사회주의를 향한 민족적인 길」을 표방한다. 그리하여 세계공산주의의 中心體의 존재를 부정하고, 소련의 理念을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사실상 소련의 지배·통제를 의미하므로 反對하며, 각국 공산당간의 관계는 互惠平等과 內政不干涉의 원칙에 따라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적 유대」라는 개념을 부각시킨다. 각국의 전통,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특수성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民族的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운동의 多中心主義를 표방한다.

2) 議會民主主義를 가미한 社會主義 建設의 標榜

社會主義 건설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의 채택을 유로코뮤니즘은 주장한다.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등의 流血革命의 방법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라는 민주주의방식과 절차에 따라 政權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 獨裁 대신에 進歩的 民主主義라는 개념을 선호함으로써 종래의 “부르주아계급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라는 代議政治에 대한 非難을 철회하고 民主選舉와 복수정당제도를 인정하며, 더 나가서는 人權과 基本權의 보장을 약속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中立까지 公言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서 敗北시에는 공산당은 代議政治의 규범에 따라 平和的으로 정권을 이양한 후 다시 野黨의 위치로 복귀할 것을 公言하고 있다.

3) 教條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拒否

유로코뮤니즘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獨善的이고 全體主義的인 이념을 국가이데올로기로 강요할 의사가 없으며, 모든 哲學的 思潮를 탐구하고 토론할 自由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이론일 수 없으며, 더우기 黨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해석된 敎義의 무오류성이나 절대성의 요구를 拒否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개방화 氣運은 자연히 다른 世界觀을 가진 세력과의 대화·접촉을 促進시킴으로써 급기야 종교집단과의 이념투쟁을 포기하는 傾向을 가져왔다.

전통적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관점에서 볼 때, 유로코뮤니즘의 주장은 改良主義的이며 反蘇의인 異端으로 비난받을만 하다. 그러나 전통적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고정된 敎條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이요, 各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創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을 想起할 때, 유로코뮤니즘이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으로부터의 完全 離脫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理念과 政策路線을 표방하여 生成·展開된 유로코뮤니즘은 소련과 서방민주세계에게 공히 하나의 機會이자 동시에 挑戰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西歐共產黨이 政權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西方同盟體制 내부의 균열요인으로 作用할 수 있는 反面, 유로코뮤니즘의 獨自路線으로 말미암아 세계공산주의운동의 分極化와 內燃化의 우려가 큰 것이다.

또한 西方世界の 입장에서 볼 때에는, 西歐共產黨의 變質과 民主的 自我意識이 成長이라는 順기능적 요인을 想定할 수 있는 反面, 西歐의 經濟·政治的 統合의 저해요인 및 NATO의 弱化를 촉진하는 逆기능적 요인을 상징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危險信號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은 과연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 환영할만한 改革이며 社會主義의 民主化現狀을 몰고온 하나의 新紀元인지 아니면, 民主主義의 외투를 입은 共產革命의 政治的 陰謀와 戰略的 變容인지를 판가름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유로코뮤니즘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도 西歐共產黨이 執權後에도 계속 민주선거의 규칙을 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꺼리는 傾向이 강하다.(예 : 밀로반 질라스는 직접적인 답을 피한

채 “그思潮안에 민주주의적 성격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소극적인反應을 보인바 있다.)

그렇다면,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不信의 뿌리는 무엇인가?

不信의 뿌리는 유로코뮤니스트들이 공산주의의 目標을 민주주의에 대한 信念보다는 훨씬 더 重視할 것이라는 前提에 있다. 黨內 民主主義의 실천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유로코뮤니스트들의 公言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獨自路線, 反教條의 性向, 非暴力的 民主化 노력주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체화됨으로써 괄목할만한 變化를 가져올 것이라는 希望的 期待가 또한 내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西歐의 社會民主主義者 (Social Democrats)들이 특히 今世紀에 들어와 점진적 社會改良을 추구하는 民主主義 勢力으로 탈바꿈한 생생한 變化의 모습을 지켜보아 온 사람들은 「환상적 기대」마저 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과 후반을 풍미했던 유로코뮤니즘의 熱風은 바로 이와같이 社會民主主義者들의 變身의 再現을 西歐공산당에게도 기대했던 서구인들의 긍정적 관심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성원에 힘입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프랑스공산당을 비롯한 西歐共産黨의 變轉無常한 政治行態는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환상적 기대에 충격을 주었고, 이 思潮가 몰고 온 일종의 神話性을 크게 퇴색시켰다고 할 것이다.

다. 유로코뮤니즘의 展開와 評價

1) 유로코뮤니즘의 展開

가) 이태리 共産黨

원래 유로코뮤니즘의 발전을 주도한 것이 이태리 공산당이였다. 유럽 최대의 공산당으로서 유권자의 약 30%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 이태리 공산당이다. 이렇게 공산당이 급성장한 데는 그 노선이 점차 修正主義傾向

을 따랐고 변동해 온 국내외여건에 재치있게 적응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戰後에도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1920년대에 그람시(A. Gramsci)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공산주의를 이태리에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는 마르크스主義의 決定論과는 달리 상부구조인 國家가 자율권과 주도권을 갖고 경제와 사회를 變革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國家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것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共產黨이 일방적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해야 한다는 프롤레타리아독재권과 상치된 견해인 것이다.

자본주의계급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반드시 資本만을 독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족, 교육 등 社會制度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장악함으로써 가능했다고 그람시는 보았다. 즉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부르주아가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이러한 상태를 「패권」(hegemony)이라 불렀다. 觀念이나 文化 등 사회에 통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자본가들이 통제하여 기타 계급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람시는 지식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의 활동이 시민사회를 서서히 변혁해서 결국 자본주의제도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마침내 혁명없이도 공산주의革命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사실상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부르주아를 대화와 설득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부터 1967년까지 이태리 공산당을 영도했던 톨리아티(Polmiro Togliatti)는 그람시의 사상을 계승하여 엘리트 당보다도 大衆黨으로서 공산당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스탈린 格下運動도 지지했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多元主義를 적극 추구했으며 비공산당과 연합전선도 기도했다. 그는 이태리에서 대다수였던 카톨릭 신자들과 제휴했고 중산층까지 포섭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1950년대부터 그는 소련 공산당으

로부터 獨立을 서서히 추구했고 이태리 내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를 계승한 버어링거(Enrico Berlinguer)도 이 전통을 계승하여 기독교민주당과 타협을 모색해 왔다. 1984년까지 그는 이태리 공산당을 지휘했는데 그의 노력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증대할 수 있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그는 이른바 「역사적 타협」을 성사시켜서 기독교민주당과 협조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계급투쟁론을 지양하고 민주주의적인 정치과정을 통하여 공산당이 자본가세력과도 聯合政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北大西洋條約機構도 지지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그것을 침략행위로 비판했으며, 폴란드에서 군사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비난한 바 있다. 1974년의 선거에서 이태리 공산당은 유권자의 34%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 최고의 득표율이었다. 그 뒤에 이태리 공산당은 매우 책임있는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이태리 경제가 악화되자 유권자들은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을 지지하면서 여전히 공산당을 불신했고 그 결과 공산당의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나) 프랑스 共產黨

프랑스 공산당은 오랫동안 소련 공산당에게 충성을 표시해 왔으며 적극 스탈린주의자로 행동해 왔다. 1930년대부터 토레즈(Maurice Thorez)는 1964년까지 당을 영도하면서 스탈린의 노선에 순종해 왔다. 가끔 그는 사회당과도 제휴했지만 階級鬪爭論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항상 잊지 않고 소련의 정책을 잘 반영해 왔다. 그러나 마르세(Georges Marchais)가 당의 영도권을 행사한 뒤에는 사회당과의 협력을 신중히 개척해 왔던 것이다.

공산당을 지지해온 노동조합(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CGT)은 점차 革命보다는 임금상승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자, 프랑스 공산당도 노선을 수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마르세는 1975년에 이태리를 방문했고 1976년에는 프롤레타리아獨裁論도 포기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증대할 수 있었는데, 1978년 3월의

선거에서 공산당은 20.5%의 지지를 넘게 되었다. 이것이 최고수준의 지지율이었는데 그 뒤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차차 잃게 되었다. 마르세는 아프가니스탄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소련을 지지했으나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입장을 공격했던 것이다.

1981년의 선거에서 공산당은 사회당과 제휴했으나, 약 15% 정도밖에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미테랑의 사회당정부의 內閣에 공산당이 참여했지만 厚生省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서만 맡게 되었다. 국방이나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미테랑 대통령과 그 측근이 여전히 공산당 각료들에게는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984년 6월에 歐洲議會의 선거에서 참패하자 공산당은 사회당과의 聯立政府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1986년의 선거에서도 공산당은 그 세력을 만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마르세의 지도력이 급변하는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파지도자인 시락이 首相으로 임명된 뒤 國有化되었던 회사들을 다시 民營化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공산당은 종래 사회당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市政府 등 지방단위에서는 프랑스 공산당이 아직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保守化의 물결을 타고 있으므로 공산당의 인기가 만회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특히 미테랑은 소련의 軍事力 강화를 공격하면서 미국과 安保協力을 다시 조심성 있게 시도하고 있으므로 공산당의 위치는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다) 스페인 共產黨

스페인 공산당은 프랑코가 사망한 뒤 回生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파리에 망명했다가 귀국했던 카리요(Santiago Carrillo)가 소련에 반기를 들고 民族主義的인 共產主義를 표방했다. 그는 1977년 3월에 마드리드에 이태리와 프랑스의 공산당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共同戰線을 개시했다. 1982년의 선거에서 스페인 공산당은 3.8%의 득표율을 받았으나 그 뒤부터는 지도자들간의 갈등과 스페인의 歐洲共同市場 가입으로 인하여 큰 신장을 보이지 못해 왔다.

스페인 공산당이 스페인의 의회 정치과정에 참여한 것은 큰 변화였던 것이다. 다만 사회당과 기독교민주당 등이 공산당의 세력이 성장할 수 없게끔 서로 提携해 왔고 미국과의 友好關係를 강화한 것은 공산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스페인 공산당은 이미 계급투쟁론이나 소련의 지도력을 부인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스페인은 美國에게 해군기지까지 제공하고 있는 처지에서 공산당의 충성과 安保意識에 대하여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2) 유로코뮤니즘의 評價

유로코뮤니즘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거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西歐的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에의 신념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즘이 분명히 계급투쟁의 원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다. 거기서 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목표가 社會主義인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확실하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이러한 궁극목표, 곧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서 정통파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채택되고 있는 중요한 방법 일부를 배제하고 있는 바,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이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거리를 취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방도의 이용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길”도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계급투쟁의 한 方途라고 본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들에게서 표현되고 있는 民主主義 信念의 고백은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대계급간의 화해불가능한 투쟁이 역사발전의 動因이요, 사회적 정치적 構造의 원인이라는 이 계급투쟁의 원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그들이 표하는 온갖 신념을 근본적으로 의문시되게 한다.

民主主義는 그 제도와 절차, 그리고 그 헌법과 인권의 보장에 의해서, 이른바 階級利益이 아니라 一般利益에 봉사하고, 사회적 정치적 대결 내

지 갈등을 법치국가의 정치과정에서 또는 평화와 정의를 가능케 하는 궤도에서 조정시키는 하나의 지배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계급투쟁의 원리가 고수된다면 平和와 社會正義, 그리고 人權은 결국 소수의 특권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될 때 폭력은 여전히 정치의 수단으로 머물게 된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그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對抗暴力’이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유로코뮤니즘에서는 個人的 이익과 社會的 利益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부단히 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유로코뮤니스트들의 민주주의 고백을 의심케 하는 요소가 된다. 유로코뮤니스트 정당들의 경우 예외없이 이런 의도가 발견된다. 즉, 黨에 의해서 조종되는 대중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전체를 集積 組織”하고 각종의 단체적 분열, 무규율성을 “새로운 규율”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극복하고, “私的인 것”을 새로운 토대 위에 놓으려는 의도가 발견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바로 이것을 그 법치국가적 제도들과 절차에 의거해서 저지시키고자 한다. 특히 권력의 분립과 기본권이 시민이나 사회집단들로 하여금 憲法과 不可讓의 基本價値를 초월하는 ‘공직’ 또는 ‘국가직’ 이익에 구속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유로코뮤니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고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前衛의 역할에 대한 집착이다.

유로코뮤니즘의 路線을 따르는 정당들은 모두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뿌리는 레닌에 소급될 뿐만 아니라 1848년의 「공산당 선언」에 까지 거슬러 오른다.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歷史의 條件들, 과정,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서 여타의 인간들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주장했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이 주장을 다소간에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그리고 그람시와 톨리아티의 敎說에 의거해서, 革命的 투쟁방법과 民主的 중앙집권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당의 조직에 의

지해서 그들은 사회주의에 이르는 역사의 끊임없는 진행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정당들과 세력들에게 이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모든 共產主義的 革命黨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연 후에는 全體主義的 黨이 되게 하였고, 自由와 民主主義를 파괴했던 것이다.

라. 유로코뮤니즘의 將來

적지않은 사람들이 유로코뮤니즘의 장래를 전망할 때에 社會民主主義化에로의 길을 상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판단은 아직은 너무 안이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추호도 그들의 최종목표 즉, 社會主義 建設을 포기한다는 公言이나 態度 표명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社會主義로 향한 過程과 그 수단의 變改를 논의해 왔으나 최종목표의 실질적인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한 社會主義의 實現을 언급하고 있으나 議會民主主義를 통한 政權장악·유지를 唯一 最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중투쟁」, 「자기방어적 폭력사용론」은 유로코뮤니즘의 잠재적 폭력혁명노선의 불포기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그들이 정권장악의 경우,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규칙을 준수할 것인가의 논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유로코뮤니즘은 앞으로의 進路에 있어서 스스로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계급투쟁 이외에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정책과 지도층을 내세워 支持를 획득할 것인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유로코뮤니즘은 여전히 기존 정당에 대하여 不滿을 품은 자들의 反對와 不滿에 편승하여 支持를 획득할 가능성은 크겠지만,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

하게 될 것이다.

필경, 공산당이(그것이 소련·東歐공산국가이든 우리 민족 내부의 공산세력이든) 공산주의에 대한 약속을 팽개친다면, 이미 공산권으로 부터는 異端이거나, 社會民主主義派에로의 진영이탈이라는 규탄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西方의 立場을 支持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左翼의 支援에 混線을 빚게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내용에 있어서 急進主義를 止揚하고 分化現象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유로코뮤니즘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의 本質이 과연 이것이다 라고 斷定하는 黑白論理的 結論도, 그리고 이러한 方向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決定論的인 斷定도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 하면, 유로코뮤니즘 자체가 兩面的 屬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主張, 文章, 語句라도 보는 視角에 따라 正反對의 立場과 解釋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 時機尙早이나 유로코뮤니즘은 현대 공산주의의 심각한 危機의 한 표현이며, 流動的인 變化의 概念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이를 民主社會主義(demokratischer Sozialismus)化에로의 과정으로 결론지으려는 樂觀論도, 赤化戰略차원의 위장전술로 낙인찍음으로써 위협시키는 本性不變論의 悲觀論도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4. 從屬理論

가. 從屬理論의 概念과 背景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이란 歐美의 經濟發展理論으로는 제 3 세계 특히 中南美의 低發展현상을 究明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하에, 15세

기 重商主義 이래 지금까지 中南美經濟가 第1世界에 종속되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종속구조의 실상과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종속에 따른 第3세계의 경제사회적·政治的 病理현상을 분석 비판하고 中南美的 視角의 發展方案을 모색하려는 일련의 論理體系를 말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프랑크(André Gunder Frank)와 산토스(Theotonio dos Santos) 등의 南美學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속이론은 低開發의 原因을 국내적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적 요인에서 찾으며, 對內志向의이고 社會主義的인 혁명적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속이론에서 말하는 從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 국가의 경제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自國民의 희망과 의지 또는 필요에 부응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他國의 경제 또는 歐美中心의 국제경제의 영향에 좌우됨으로써 결국 政治·社會·文化·軍事的으로도 他國에 예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從屬理論은 제3세계의 低發展 原因을 「西方帝國主義에 의한 세계자본주의체제에로의 편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中心部인 先進資本主義국가들의 成長과 發展은 그들 내부의 勞動者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周邊部인 제3세계의 低開發國家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에 크게 힘입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前者의 利益을 위하여 後者의 經濟·社會構造를 재편성하여 從屬시킴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支配·被支配階級關係를 형성, 결국 제3세계는 被搾取의 명에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中心·周邊關係(Center-Periphery Relations)의 국제적 종속관계의 구조를 단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종속이론은 어떠한 背景과 過程을 거쳐 成立한 것인가?

中南美는 15세기 중상주의이래 16세기를 거치는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帝國의 植民地時代를 맞이함으로써 사실상 從屬的經濟體制의 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설탕, 코코아, 담배 등의 열대농작물과 銀, 구리, 석탄 등의 抽出산업이 主宗을 이루는 經濟體制를 이룸으

로써 自主的 經濟成長에 필요한 社會構造의 革命이나 產業構造上의 변화도 없이 南美的 경제는 歐洲經濟의 周邊的 從屬關係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中南美 국가들의 대부분이 獨立後에도 經濟적 종속관계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農場, 鑛山, 銀行에 이르기 까지 歐洲와 美國人 產業의 영향권하에 있었고 저렴한 1次產品의 輸出과 高價 工產品의 輸入이라는 무역구조가 계속되는 한, 獨立後 1世紀가 지나도록 中南美는 자국의 經濟 발전에 필요한 資本蓄積의 기회는 封鎖당한채 原料공급자와 상품소비시장이라는 구조적 종속상태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한편, 대공황과 2次세계대전은 南美諸國의 정치·經濟적 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하였으며, 中心과 周邊의 종속관계의 이완을 가져왔다. 또한 필연적으로 外國資本과 연계된 國內세력이 약화되고 민족주의 발전론자들과 「산업부르주아계급」이 政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支配階級」으로서 자신의 利益保護를 위해서도 종래의 對外依存的 經濟政策을 修正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1948년 칠레에 설치된 UN의 中南美經濟委員會 (UNECLA=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發展戰略路線에 따라 「輸入代替産業化戰略」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美國과 EC의 經濟체제에 종속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ECLA의 初代會長인 프레비쉬(Raúl Prébisch)의 1949년 UN報告書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는 南美的 經濟발전 不振 原因은 先進國과의 不平等 交易關係에 있으며 그 是正代案으로 輸入代替産業의 強化를 건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代案의 제시에 따른 수입대체산업개발전략의 案出에도 불구하고, 成功은 커녕 실패로 끝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南美的 對外從屬은 심화현상을 노정하게 되었고, 정치·經濟적 혼란은 加重되었다. 水平的 產

業化(horizontal industrialization)의 失敗은 엄청난 外債, 인플레이션, 빈곤, 정치적 不安定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多國籍企業을 비롯한 外國資本의 獨占的 현상은 더욱 대외적 종속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狀況展開속에서 쿠바혁명의 성공과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反資本主義的 革命理論 및 南美固有의 民族主義의 熱氣가 混在되는 가운데, 프랑크를 비롯한 南美의 소장학자들이 종속현상을 중심으로 ECLA의 開發論을 비판하고 레닌의 「帝國主義論」의인 시각의 反美·反資本主義的 종속이론의 기틀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속이론은 대체로 4단계의 形成過程을 거쳐왔다고 分析되고 있다.

제 1 단계는 1940년~1950년대의 發想期로서 푸레비쉬가 構造的 觀點에서 南美國가들과 先進國과의 不平等 交換關係에 따르는 경제적 잉여분의 海外流出이 低發展의 주요원인이며, 輸入代替產業의 강화야말로 是正方案이라는 主張과 실천이 중심을 이루었다.

제 2 단계는 1960년대 중반 프랑크를 중심으로 南美의 低開發원인이 先進國과의 「支配·從屬關係」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제 3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公式理論 定立에 力點을 두었다.

특히 1960년에 들어서면서 先進國에 본거지를 둔 多國籍企業들이 南美諸國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中小 민족자본기업들이 몰락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종속상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南美全域을 휩쓰는 가운데 유독 쿠바만이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1959년 카스트로혁명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종속이론가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할 수 있다. 初期의 쿠바혁명은 피압박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民族解放運動의 성격이 강했으나, 美·蘇대결사태와 관련, 1962년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선회하고 反美親蘇路線을 견지, 급진주의적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쿠바혁명은 그후 퇴색하여 설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고, 미국 대신에 소련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1인장기독재체제로 변모함으로써 비판을 받게 되었지만, 적어도 1960년대초에는 유일한 성공적 발

전모델인 것처럼 많은 진보적 중남미 지식인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제 3 단계는 1970년대 초 선켈(Oswaldo Sunkel), 카르도소(Fernando Hennque Cardoso), 에반스(Peter Evans) 등과 같은 從屬的 發展論者들의 온건론적 논리정립이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南美國가들의 個別的 特殊性을 간과한 채 機械論的인 입장에서 南美國國의 低開發현상을 일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현실성과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종속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종속구조하에서도 成長과 發展의 가능성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온건론을 주장한다.

제 4 단계는 '70년대 중반부터 계량분석가들의 實證的인 검증이 시도되기 시작했는 바,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70년대 말에 이르러 라클로(Laclau)와 같은 네오 마르크스시스트들에 의해서도 심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低開發理論의 한계를 自認, 새로운 變形을 모색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 從屬理論의 主要 論點

종속이론가들은 크게 강경론자와 온건론자의 두 部類로 구분된다.

강경론자의 범주에는 파젠하임, 산토스, 프랑크 등이 속한다. 그리고 온건론자의 범주에는 선켈, 카르도소, 에반스 등이 속한다.

강경론자들은 社會主義暴力革命을 선호하는 親社會主義者들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南美國의 경우, 자본주의 발달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면서, ① 사회세력으로서의 「민족부르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종속적 자본주의는 노동착취를 전제로 한다. ③ 다국적 기업의 침투는 南美國를 準帝國主義的 팽창정책의 祭物로 만들었다. ④ 종속경제는 사회주의나 파시즘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필경 社會主義革命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해야 低發展의 後進性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中心部와 周邊部와

의 관계’, ‘不平等 交換’ 및 ‘착취와 피착취관계’ ‘低發展의 發展’ 등의 標語的 규정에서 보듯이, 결국 “中心部와 周邊部の 同時同伴 발전은 불가능하며, 前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後者の 低發展을 낳기 때문에 종속구조는 폭력혁명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주의적 강경론과는 달리 온건론자들은 다소간 修正資本主義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中心部와 周邊部の 관계에 있어서 同伴發展 가능성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兩者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逆機能 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각국의 특수한 狀況與件을 감안하여 어떤 기계론적인 公式理論의 定立보다는 狀況分析을 중시한다. ② 발전의 主體는 人民·民衆이라기 보다는 國家와 民族資本家이며,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發展戰略을 표방한다.

강경론자이든 온건론자이든 종속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통적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종속의 개념은 지배국과 종속국, 착취국과 피착취국 또는 中心部와 周邊部の 二分法으로 구분하며, 양자관계는 상호 대등한 의존관계 보다는 사실상 경제·사회·문화·정치·군사적인 면에서 支配·從屬關係인 것으로 일단 규정하고 있다. 또한 南美의 低開發 原因을 內的인 측면보다는 外的인 측면에서 찾으려 한다. 다만, 代案의 개발에 있어서 서로 視角이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종속이론의 주요 논점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從屬的인 貿易構造의 問題

“1次產品의 輸出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무역의존구조는 주변국의 전형적인 從屬構造이며 低開發의 主原因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中心國으로부터의 投資는 一次產品의 생산과 수출에 직결된 철도, 전신, 항만 등의 社會間接資本施設에 집중함으로써 중심국경제에 연결시키게 되며, 따라서 주변국의 産業과 統合에는 오히려 逆機能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주변국의 大地主와 獨占企業등은 買辦的 성향을 보이게 되고 자본낭비, 재산의 해외도피등으로 주변국 경제는 침체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소득분배의 不平等과 갈등현상 및 산업부문간 불균형이

노출되는 등 종속구조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무역의존도는 輸出商品構造의 集中度와 輸出入對象國의 集中度 및 그 나라의 總經濟規模에 대비한 輸出入의 相對的 규모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주변국경제가 單一農產物이나 鑛物, 또는 몇 個의 輸出 主宗品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經濟의 不安要因으로 作用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과거의 植民地와 宗主國간에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低開發 국가들의 輸出構造가 1次 產品 위주의 구조에서 부터 다양한 輕工業제품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1次產品 위주의 수출구조를 전제로 하는 이 종속적인 무역구조론의 주장은 점차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무역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경제발전은 어렵게 되고 종속구조가 더욱 악화된다는 주장도 反論에 부딪치고 있다. 즉 輸出入에 있어서의 一方的인 의존관계는 產業構造의 改編과 수출입대상국의 다변화 등 적극적인 政策 추진으로 장기적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며, 또한 무역의존도의 크기와 경제성장의 實績值간에는 오히려 正比例의인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규모가 커지고 국제경제에의 참여도와 統合度가 높을수록 그나라의 體制發展은 促進될 수 있으며, 무역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通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시장을 포함한 광대한 국제시장을 수출대상시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低開發國은 좁은 국내시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력의 확장, 전문화에 따르는 기술향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所得의 증대등 經濟發展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貿易은 互惠의인 관계가 아니라, 중심국이 일방적인 利得을 취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국의 所得이 不當하게 중심국으로 移轉되는 不等價交換의 관계로 轉落되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不等價交換의 메카니즘은 “自由主義發展論자들이 신봉하는 擴散論理와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결국에는 주변국을

영원한 低開發·低所得狀態로 묶어버리는 機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不等價交換관계가 주변국에 계속 不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批判되고 있다.

첫째, 실제로 交易條件上 장기적으로 1次產品에 대하여 不利하게만 變動되어 왔는가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결코 단정할 수 없다는 點이 지적되고 있다. 石油價格의 폭등과 컴퓨터 등 電子製品價格의 급락현상을 보인 근래의 국제시장 추세를 감안할 때, 장차 어느 방향이든 一方的인 추세만을 단정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 최근에 이르러 低開發국가들의 수출구조가 점차 工業製品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次產品을 수출하는 저개발국과 工業製品을 수출하는 先進國간의 무역모형을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産業構造의 차이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工業製品 對 1次產品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需要의 변화에 대한 供給의 조정능력의 유연성 缺如問題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특성을 지닌 輸出産業이 先進國보다는 低開發國에 주로 몰려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外債를 통한 資本의 支配構造 問題

중속이론가들은 “外債를 통한 支配와 간섭을 중심국의 債權銀行團과 政府 및 그들의 대변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등이 債務國인 주변국정부에 대하여 外債상환을 구실로 경제정책의 변경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論點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범주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債權團側の 요구사항이 상환기간의 단기성, 무리한 條件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低成長政策 및 多國籍企業의 活性化를 재촉함으로써,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급기야 민족적 감정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주변국의 外債누증을 불가피하게 초래한 석유파동, 국제적 高金利化 현상, 1次產品價格의 下落, 先進國中心의 新保護主義 傾向등은 中心部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거나 惡利用함으로써 더욱 주변부국가들의 경제상황을 惡化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채의존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한 국내경제인과 정치인들은 매판세력이며 新植民地추종세력으로서 外勢와 함께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한 反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理論적으로 볼 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利率을 증가하는 수익률이 확실히 기대되는 國內産業部分에는 外資를 도입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貧困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國民經濟를 확대·성장·순환시키기 위해서는 外資導入의 효율적 이용은 결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마치 국제자본의 강요에 의하여 低開發國들이 外債依存型 경제구조를 불가피하게 定着시킨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발전초기에 대규모의 外國資本을 끌어들여 자국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外資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外資와 관련된 實物生産施設과 社會間接資本 및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人的資源과 能力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보고 이를 마련하는 노력을 倍加하는 일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자본의 공여국 보다는 실질적인 생산능력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나라들이 결국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中心에 서게된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外債로 인한 支配의 永續化 주장에 대해서는 現代의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상황하에서는 심각히 우려만 할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한 元利金 상환을 比較的 適期에 할 수 있다면, 支配와 간섭의 여지는 거의 없으며, 또 약속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상환조건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常識水準에서 경제정책의

修正要求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通例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債務不履行이란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現代國際政治에 있어서는 債權管理團이 파견되어 그나라의 財政權을 접수하거나 감독한다는 것은 容認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多國籍企業을 통한 新從屬化 構造의 問題

中心國에 본거지를 둔 多國籍企業이 주변국에 대하여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新帝國主義의 支配體制와 경제적 예측을 가져오는 현대판 從屬現象을 의미한다는 것이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이다.

과거 식민지시대의 종속체제는 1次產品을 중심으로 政治·軍事的 支配를 수반했다고 볼 때, 다국적 企業을 통한 新從屬體制는 製造業을 비롯한 現代的 産業분야의 실질적인 경제지배체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政治·文化的인 理念支配體制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업구조의 종속화, 資本의 逆流出현상 및 技術의 종속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民族企業들은 몰락하게 되고 영세기업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주변국 산업구조의 종속화과정은 다국적기업이 기술집약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분야에 새로운 企業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企業을 買入·흡수하여 獨占力을 키우는 방법과 막대한 자금조달을 배경으로 현지 민족기업을 압도해버린다는 것이다.

資本의 逆流出 문제는 다국적기업이 주변국의 자본을 수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觀點에서 비판하고 있다. 즉 높은 이윤율과 「로알티」, 그리고 輸出入價格 조작을 통한 음성적 수입등의 형태로 流出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資本總額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資本의 逆流出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技術從屬의 구조적 문제란 “주변국의 산업발전영향이나 성격이 주변국 상황에 부합되는 결정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차원의 企業戰略의 一環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도록 構造化되어 있다”는 點이라고 한다. 新

技術의 개발·연구 中心이 中心國企業에 있으며, 既存 技術의 대부분을 국제적 特許權制度를 통해 多國籍企業들이 支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技術제휴·협정 추진 및 高價의 技術 販賣등이 指摘되고 있다.

多國籍企業에 의한 정치·문화적 理念支配體制는 中心國型 소비풍조의 移植과 權威主義的 정치체계의 옹호와 관련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前者는 民族의 主體意識을 흐리게 만들며 대외의존적 文化意識構造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後者는 종속극복을 위한 社會主義 革命勢力이 싹트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한 政治體制를 옹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상과 같은 종속이론가들의 입장에 대한 反論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多國籍企業이 新帝國主義的 從屬化의 도구로 利用되고 있다는 論點은 다국적기업의 실제활동과는 거리가 먼 理想的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의 경향은 주로 先進國간에 상호진출하는 형태가 그 主流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開途國에 본거지를 둔 세계적규모의 다국적기업들이 선진국경제권에서 적극적인 企業活動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를 新植民主義·新帝國主義의 등장으로 볼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아무리 弱小國이라고 하더라도 政策的의 意志만 있다면, 多國籍企業을 전면배척, 조건부 수용규제, 강제 철수 내지 국유화를 위한 수용 조치에 이르기까지 행동의 自由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帝國主義的 발상에 초점을 모으기 보다는 受容國의 政策的 입장이나 產業政策의 타당성과 능력문제에 評價의 力點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慮된다.

둘째, 資金의 逆流出 論點에 관해서는 임의로 선정한 일정한 기간중에만 행해진 新規投資규모와 과실송금규모를 단순히 비교하여 다국적기업의 국제수지 결과를 따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기간 이전에 투자된 부분과 기업내에 유보된 利潤의 再投資分을 합산한 總投資규모와 總부가가치의 흐름에 대비한 과실송금의 규모가 分析

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價格引下效果, 政府의 稅收效果, 기업경영 능력 확산효과 등의 부수효과도 고려하여 正當하게 다국적기업의 의미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技術從屬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적지않은 逆機能的 현상을 보임으로써 해결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제기구에서 技術移轉과 관련, 다국적기업의 制限的 商慣行이 구체적으로 問題가되고 있으며, 적절한 국제적 統制·對應方案들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기술도입국측의 交渉力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올바른 해결방법으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政治·文化的 측면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政治指導者들을 비롯한 社會各界 지도층이 술선수범하여 民族自主意識과 民主主義 守護意志를 가다듬고, 국민화합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問題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적기업의 긍정적인 요인의 섭취가 중요한 것이지, 역기능적 잠재 요인에 대한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國際的 從屬化에 따른 國內的 從屬化 招來現象의 問題

종속이론가들은 국제적 종속구조가 周邊國의 국내에 있어서도 지역간, 產業部門間 그리고 社會階級·階層間의 支配從屬關係로 再現될 수 밖에 없다고 主張한다.

종속화된 주변국 경제의 특징은 국제경제에 흡입됨으로 말미암아 몇가지 특징적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첫째, 기존 국내경제구조의 改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工業의 파괴, 農業의 商業化 경향과 식량의 自給自足體制가 붕괴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둘째, 1次產品에로의 特化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나 공업발전에 대한 誘發效果가 극히 限定的이라는 것이다.

셋째, 3次部門의 확대와 특히 行政部門의 비정상적인 확장현상으로 말

미암아 國家資本主義的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넷째, 정상적인 工業化過程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치型 內需用 消費財工業부터 진행되기 쉬우며, 기술축적없는 제한된 공업화가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다섯번째의 특징은 產業別 生産性的 分布나 임금·가격 체계에 있어서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노정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의 自律的 市場經濟秩序와 動態的 成長메카니즘이 作動하지 못함으로써 成長통로가 폐쇄되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내적 종속관계구조는 국제적 종속관계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한 영속화된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地域的 종속관계는 대도시와 농촌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中心地域은 상대적으로 발전하거나 부유해지는 反面, 周邊地域은 低發展과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論點은 問題가 있다. 왜냐 하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의 문제는 支配·從屬관계라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低開發國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문제는 先進國이나 開發國이나를 불문하고 공통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原因도 多樣多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부분의 先進國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全國土의 균형발전을 政策의 基本目標로 설정하여 社會間接資本施設計劃, 工業化地域 선정이나 地方財政의 조정등을 통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南美的 경우, 산업부문간의 中心·周邊관계와 사회계층간 支配·從屬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寡頭的 大地主集團과 外國資本과 연계된 소위 ‘買辦的 商人부르주아’, 多國籍企業과 연계된 新興‘民族부르주아 그리고 官僚集團등의 세력이 支配階級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종속 이론가들은 지적하면서 이들이 국내지배와 외적 지배의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규모의 土地所有를 근간으로 하는 과두적 지배계급의 존재는 南美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속이론가들의 해석과 관계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民主化에로의 政治發展, 정상적인 市場經濟秩序의 확립, 효율적인 土地改革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곧 이들 特權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권적 지위는 과거 植民地時代의 歷史的 產物로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南美의 特殊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과도적 지배층의 권력독점체제의 개혁과 급성장하고 있는 광범한 中產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중에게 權力과 富를 正義롭게 民主的으로 分散·配分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南美諸國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重大課題라 할 것이다. 이 改革課業이 議會民主主義의 틀속에서 달성해 낼 수 있다는 先例가 오늘날 南美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다. 從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연계성

종속이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를 分析·批判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分析視角과 유사점이 많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時代的 배경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論點上의 차이가 있으나 強硬論者들의 시각은 공통점이 많다. 특히 파켄하임(Packenheim)과 같은 強硬論者들은 자본주의 體制를 착취체제로 간주하고, 계급구조의 兩極化와 對立關係의 침체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支配階級을 착취의 下手人으로 간주하는 點에서 마르크스의 論理와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從屬理論이나 레닌의 帝國主義 理論이나 주변국에 대한 中心國의 경제침략과 支配를 문제로 삼고 주변국을 중심국이 지배·착취하는 희생의 祭物로 간주한다는 點에서 같은 立場에 서고 있다. 팔마(Palma)와 같은 사람은 레닌을 「종속이론의 개척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兩者는 論點의 視角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몇가지 差異點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크스의 階級鬭爭論이 국내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종속이론은 국제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마르크스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 利益을 강조한 데 반해 종속이론가들은 民族利益을 강조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前者가 계급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後者는 民族主義的 성격이 강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지을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마르크스主義가 社會主義의 건설을 주요목표로 상징하고 있는데 반해, 종속이론은 人間解放과 경제主權의 회복을 주요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後者는 社會主義 발전을 위한 手段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帝國主義論이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볼 때, 政治와 軍事力을 動員한 힘의 관계로 설정하는데 반해, 從屬理論은 정치와 군사력은 거의 무시한 채 經濟的인 관계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는 點이다. 즉 前者는 政治와 軍事力을 앞세운 先進國의 강제적 침략행위요 수탈이라고 한다면, 後者는 先進國의 경제팽창을 후진국이 거의 자발적으로 受容하거나 誤用한 결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종속이론은 先·後進國간의 支配·從屬關係는 양국의 中心階層간에 성립된 共生關係를 前提로 하며, 이 공생관계가 종속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기초라고 보는 것이다.

다섯째, 마르크스·레닌主義는 資本主義를 역사발전과정에서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상징하는 데 반해, 종속이론은 이를 否定하고 社會主義에로의 비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쿠바혁명의 성공으로 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視角을 견지하고 있는 종속이론가들은 결국 국내경제체제와 국제경제체제의 構造的인 變革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과 방법에 있다.

강경론자들은 再言의 여지없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필수불가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본주의보다는 社會主義, 국제적 開放體制보다는 폐쇄적 民族主義的 체제, 市場原理 보다는 統制原理를 基本戰略으

로 상정하고 있다. 「혁명적 민족주의」야말로 그들의 口號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온건론자들은 현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점을 是正하는 데 더 力點을 두고 있으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진적 改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制度改革을 통한 構造變化로서, 계획과 통제를 市場原理보다 중시하는 이른 바 「國家資本主義」 또는 「민족자본주의」를 그들의 口號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속이론가들은 手段과 方法의 面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脫從屬과 自主的 發展을 강조하고 있다는 點에서 결국 志向點은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 從屬理論의 問題點과 受容可能性

중속이론가들이 제 3 세계의 低開發현상의 요인을 主體的이고 進步的인 視角에서 고찰하고 從屬關係構造의 力學作用을 分析의 초점으로 浮刻시킨 點은 評價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問題點을 露呈하고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그 주요 문제점을 몇가지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從屬理論의 命題와 假說이 經驗主義的 實證性의 側面에서 볼 때,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南美특유의 反資本主義的 民族主義論에 입각한 이론전개 특히 강경론자들의 경우, 一種의 교조주의적 獨斷論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기계론적이고 黑白論理的인 가설은 논리적 실제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예컨대, 제 3 세계의 빈곤은 과거 帝國主義의 수탈정책과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모순에 기인된 것이지 제 3 세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가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제 3 세계가 지니고 있는 각국의 고유한 文化的인 屬性이나 人口증가율은 低發展의 原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戰後日本과 西獨의 位相은 오늘

의 제 3 세계와 견줄만큼 미약한 것이었고 敗戰의 참상은 帝國主義 植民統治 이상으로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세계의 中心국가로 탈바꿈해 있는 것이다. 국제경제의 구조적 모순만이 低發展의 원인이라는 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종속이론은 제 3 세계의 低發展에 대한 책임을 제 1 세계에 돌리려는 일종의 責任회피론이라는 批判을 면치 못한다.

둘째, 종속이론은 外國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하는 자유경제의 擴散理論을 拒否하고 外債의 누증, 多國籍企業의 新帝國主義的 屬性등을 들어 오히려 低發展의 永續化 原因으로 상정하고 있음은 잘못된 視角이라는 사실이다.

外資 가운데에는 長期低利借款처럼 경제기반의 구축·확장에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否定하는 태도는 옳치 않으며, 오히려 止揚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技術導入의 경우에 있어서도, 日本의 事例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受容하느냐에 따라 順機能的 要因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이론이 기술도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결코 보편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특히 強硬論者들의 發展戰略은 몇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① 수단과 方法의 不道德性으로서 暴力革命은 결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② 社會主義 自力更生路線의 허구성으로서 資本과 기술의 결핍과 賦存資源이 不足한 제 3 세계국가의 발전전략으로는 부적합하고, 政治的 動員이라는 特定 目的外에는 쓸모가 없다 할 것이다. ③ 가공의 미래상에 관한 논리적 허구성으로서 자가당착의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평등과 正義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社會主義를 채택하자는 主張은 메아리없는 허공속의 외침일 뿐이다.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少數支配계층과 黨의 專權화로 인한 국민적 불행과 불만이 심화되고 있으며, 民主化보다는 獨裁化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人間解放 대신에 인간의 예속화와 고통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종속이론은 理想主義的 發想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한 非現實의 主張이며 少數政治集團을 위한 권력의 方便的 論理일 수는 있어도 수많은 국민대중의 삶의 質을 向上하거나 經濟發展을 기하는 데는 별로 공헌하고 있지 못하는 非人間的인 代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問題點을 감안할 때, 從屬理論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正面 否定하며, 국제협력주의 보다는 배타적·국수주의적 民族主義를 선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취향으로부터 나타나는 反抗的 批判과 暴力革命鬪爭 및 觀念論的 理想論을 중시하는 屬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과 비판을 종합적으로 分析·評價할 때, 從屬理論은 새로운 研究方法의 하나로서는 受容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지언정 實踐原理로서 수용할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方法論視角에 있어서의 教訓은 前述한 바와 같이 自國의 歷史와 현실을 주체적인 시각으로 조명하여 발전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자세와 노력의 噴出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입장에서 外債와 多國籍企業의 영향요인과 문제점 제기는 음미할만한 것이다.

한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分斷의 特殊狀況下에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마르크스主義的 思想과 연계된 從屬理論의 受容은 각별한 신중성과 批判을 요한다고 하겠다.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受容은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暴力革命論의 受容과 맥을 같이 하는 愚를 犯할 수 있기 때문이다.

南美의 특수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形成된 이론이라는 點에서 우리의 현실상황과는 出發點과 過程이 다른 이상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를 客觀的으로 접근 分析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이다.

5. 解放神學

가. 解放神學의 概念과 背景

解放神學(A Theology of Liberation)이란 무엇인가?

兩次大戰 이후 급속한 産業發達과 복잡한 社會變化 속에서 극심한 貧富의 문제, 思想的 混迷, 人間性 상실과 不平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면서, 이러한 現代社會의 構造的 문제해결에 직접 관심을 갖는 急進的 自由主義神學思想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解放神學은 바로 이러한 급진적 신학사상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로 1960년대 南美의 극심한 가난과 所得의 불평등 從屬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政治·經濟·社會的 상황에서 정립된 神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방신학을 정의하는 데는 두가지 觀點이 있다.

하나는 협의의 개념으로 南美의 現代急進神學思潮로 보는 觀點이다. 또 하나는 광의의 개념으로 협의의 解放神學을 포함하는 정치·사회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일체의 급진신학사조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觀點에서 해방신학이란 南美의 카톨릭과 自由主義改新敎神學者들을 中心으로 전개된 급진적 신학으로서 억압당하고 있는 民衆들을 해방하기 위한 運動의 理論的 기반이라고 定義하려고 한다. 또한 解放神學의 경우에도 南美의 類型 뿐만 아니라 西歐의 해방신학, 美國 黑人의 해방신학, 아프리카의 해방신학 및 女性해방신학 등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나, 韓國에서 關心과 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는 南美中心의 해방신학의 배경과 論點을 整理하고자 한다.

解放神學의 起源은 그 이론적 바탕이 19세기의 휴머니즘的 自由主義神學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직접적으로 해방신학이 태동한 것은 몰트

만(Jürgen Moltmann)과 쇼울(Richard Shaull)등의 神學者들이 「革命神學」과 「政治神學」을 주장함으로써 神學의 政治化를 企圖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혁명의 神學」을 主唱한 쇼울은 「解放神學의 元祖」라고 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南美에서 宣敎活動을 하면서 목격한 가난과 빈부격차, 疎外와 權力의 壓迫 그리고 國際的 國內的 支配 從屬의 構造를 근본적인 社會變革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쇼울은 혁명의 당위성을 聖書에서 찾고 있다. 舊約時代의 豫言者들이 현상유지적인 社會秩序에 도전함으로써 革命家로 變身했다는 것이며, 예수의 復活은 낡은 것을 깨고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혁명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聖書의 역사적 사실에서도 혁명신학의 토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출애굽記의 事件이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百姓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과정을 억압으로 부터의 民族解放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해방자로 보는 觀點이다. 참된 人間化를 위해서는 權力에 도전하여 그 억압을 제거함으로써만이 自由케 된다는 시각에서 「메시아」의 강림을 갈구하며, 支配者의 不義를 응징하려 했던 舊約時代의 용감한 예언자들 처럼 解放을 위한 줄기찬 투쟁과 폭력에 대한 폭력동원을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쇼울의 革命神學은 곧바로 解放神學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南美에서 해방신학에 자극을 준 神學者는 Columbia國立大學의 교수이며 교목사제였던 토레스(Camib Torres)로서 經濟 및 社會構造의 改革과 革命的 行動이야말로 기독교적 투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추방당한 뒤 직접 게릴라運動에 가담하였다가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思想中 많은 부분이 해방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解放神學의 대표자로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神學者는 神父인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로 評價된다. 그의 著書인 『解放神學』은

「해방신학운동의 聖書」라는 評을 받고 있다. 그는 카톨릭 해방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改新教를 포함한 全體解放神學의 대표격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해방신학에 대한 定義는 “現存하는 不平等·不公正한 狀況을 없애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인간적인 社會를 건설하려는 공동노력의 體驗에서 생겨난 神學思想이다”. 이 定義에서 ‘民衆에 의한 神學’이라는 해방신학의 기본 路線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神의 선도 보다는 人間中心의, 人間的 社會의 建設이라는 분명한 志向點이 나타나고 있다. 古典的 의미의 구원론이나 선교관으로 부터 政治的 해방을 위한 敎회의 使命이 강조되고 있으며, 神學的이기 보다는 社會學的이며, 그 출발점과 構造도 低開發國의 社會·經濟的 및 政治的 實相에 있다는 입장에 서있다. 美國의 경우, 카톨릭敎會는 植民主義를 支持·옹호하거나 獨裁者의 편에 영거주춤하게 서왔기 때문에 대중은 政治的·社會的으로 가톨릭에 등을 돌리게 되었으며 카톨릭은 南美의 民衆의 마음과 가슴으로 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背景속에서 카톨릭敎회의 神父들이 從屬理論의 主張과 論理와 더불어 社會問題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 콜롬비아의 Mandellin에서 열린 南美主敎會議에서는 南美의 빈곤, 不正과 不義, 疎外, 압박, 文盲과 연관된 敎育不在등의 社會問題를 集中的으로 討議하였다. 南美人口의 거의 90%가 가톨릭信者라는 특수성과 低發展현상, 人種문제, 빈부격차문제를 놓고 “돈도, 희망도, 文化도, 參政權도 없는 불쌍한 民衆을 구원하는 唯一한 方法은 이들을 解放하는 것”이라는 意見이 본격적으로 開陳되었다. 이때 그들은 자본주의가 수탈과 억압의 근원이며, 美國을 帝國主義 세력이라고 보고 平和維持와 빈곤퇴치를 위한 文書를 작성했다. 그후 1979년 멕시코의 Puebla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혜택代案」이라는 文書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로마 敎皇廳에서도 暴力主義는 비판하지만 약한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敎會의 使命中的 하나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南美의 카톨릭主教들은 心情的으로 解放主義神學의 主流에 이끌려 갔으며, 1980년 멕시코 모임에서는 멘델린의 理念을 活性化하기로 뜻을 모았다. 中南美국가들의 聖職者모임이 解放神學의 主導勢力이 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카톨릭계통의 解放神學者 가운데 과격파의 先鋒은 우루과이 태생의 아스만(Hugo Assmann)을 들 수 있다. 그는 神學과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神學이란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투쟁이요, 정치적 行動 그 자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건파로는 아르헨티나의 게라(Lucio Gera)를 들 수 있다. 그는 教會의 使命은 福音傳播과 世俗世界에서의 人間性 함양이며 이 두가지 使命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카톨릭계 해방신학자들 외에 改新教쪽의 人物로는 브라질의 알베스(Rubem Aalves)와 아르헨티나의 보니노(Jose Miguez Bonino)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解放神學이 世界的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를 보면,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역할이 컸다. WCC는 1948년 네델란드 創立總會 이래 매 4년마다 定期總會를 가져왔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 「革命的 神學」이라는 新學術用語들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解放」이라는 神學的 命題도 1966년 제네바會議에서 관심을 받은 이래, 1973년 방콕會議에서는 中心主題로 채택되었다. 이로 부터 해방신학은 제 3 세계의 발상지에서부터 점차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에 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 解放神學의 主要 論點

1) 中心概念으로서의 解放의 意味

解放神學의 中心概念인 解放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人間の 「참 人間化」를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의 단절과 해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南美低開發과 貧困과 從屬”이라는 특수상황의 극복을 의미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해방신학은 資本主義를 不合理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곧 해방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다.

예수가 해방자·혁명가로 해석되며, 교회는 소외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피압박계급의 정치·경제·사회적 해방을 위한 使命을 行動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혁명이 불가피하며, 그 혁명은 필요할 경우 폭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폭력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行動主義的 神學의 관점은 神本主義的 保守神學과 구별되는 휴머니즘的 自由神學으로서 個人구원에서부터 社會구원으로, ‘저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교회의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解放神學은 罪를 政治·社會的인 억압적 구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支配와 被支配, 人種差別과 계층구조등 現存社會의 構造惡으로 規定하기 때문에 正統神學의 個人의 靈的 구원관을 거부하고 構造惡의 제거에 의한 현실 世界에서의 사회구원관을 옹호하는 것이다. 필경 이러한 관점은 政治神學, 革命神學, 民衆神學, 階級主義的 神學을 志向케 되기 때문에 行動神學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思料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신학의 관점은 그 근본 原理는 聖書에서 찾고 있지만, 傳統的 기독교에서와 같이 罪로 부터의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논리보다는 가난과 압제로 부터의 解放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논리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解放의 대상은 貧者와 피압박계층이 되고, 억압·착취의 사회·착취의 社會構造를 顛覆시키지 않고는 罪로 부터의 人間解放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이른다. 그런데, 權力과 富를 獨占한 支配勢力은 暴力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폭력사용에 대해 罪意

識을 갖기보다는 正義의 응징, 참된 구원의 解放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引用되는 聖書의 내용은 舊約성서의 경우, 이스라엘民族의 解放史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記와 社會正義를 위한 先知者들의 외침을 기록한 아모스書등이고, 新約聖書의 경우, 누가복음과 야고보書 등을 例로 들 수 있다.

예컨대, 누가복음 4장18절의 경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내용들은 政治的 民主化와 人權運動에 改革과 解放의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

2) 解放神學의 이데올로기의 성격

일반적으로 基督教信仰이나 宗教는 超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 하면, 宗教는 사이비적인 것이 아닌 한, 상대적인 自己를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인 眞理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神學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자기 속에 끌어들이거나 특정의 이데올로기에 一致化시키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내포한 그릇된 사상이나 害毒要因을 發見하고 거둬낼 수 있도록 自己反省과 自己批判을 할 수 있는 正義의 準據가 되어 줌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의 硬直化·絶對化현상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特定の 神學이 특정 이데올로기와 同一視되거나 또는 혼동될 경우, 이미 그 神學은 神學으로서의 本領으로 부터 離脫됨으로써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色彩가 농후하다는 批判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解放神學이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性格을 질게 풍기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實踐을 통한 인간해방은 참다운 神學이고 그렇지 못한 理論은 참 神學이 아니라는 强硬論者들의 입장은 獨斷論의 性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全人類를 대상으로 福音的 입장에서 社會正義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착취받고 있는 특수상황하에 있는 빈자와 약자만을 위한 解放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계급주의적 입장에서 社會正義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해방신학은 마르크스主義的 시각과 方法論을 일부 受容하거나 연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세가지 要素는 解放神學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屬性을 內包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으로서 神學的인 순수성을 상실하고 政治的 이데올로기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解放神學은 學者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자들과 共同戰線을 펴야 한다는 社會革命論者로 부터 精神的 革命을 강조하는 온건론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해방신학은 곧 마르크스主義와 直結되고 있다고 全體的으로 斷定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해방신학은 그 動機와 意圖, 출발점과 目標設定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前者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계의 實現을 目標로 하나님의 約束과 戒命을 動機로 하고 있는 反面, 後者인 마르크시즘은 共產社會의 실현을 目標로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否定되고 계급없는 社會와 私有財產制度를 철폐하자고 하며, 또 휴머니즘을 그 動機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해방신학과 마르크시즘은 理論과 實踐에 있어서 解放의 出發點이 階級鬭爭에 있으며 해방의 方法으로 暴力使用을 正當化하고 있다는 點에서 接合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르크스主義的 社會分析視角에서는 理論은 어디까지나 社會變革을 위한 것이며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피압박·피착취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實踐이 수반되지 않는 理論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방신학자들은 正統敎理보다는 正統實踐을 표방하며, 마르크스主義的 社會分析의 시각으로 南美의 社會構造와 狀況을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解放神學者들은 기존의 질서나 經濟體制內에서 점진적인 改革을 통한 狀況의 改善은 불가능하며, 투쟁없이 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순한 體制改革이 아닌 構造的 變革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혁명은 곧 歷史의 原動力이라는 마르크시즘의 論理에 同調한다.

또한 解放神學은 上述한 바와 같이 支配層이 피지배층을 지배함에 있어서 暴力的 수단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에 있어서도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마르크시즘의 주장을 受容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방신학자들은 빈민층을 교육하고 조직하며 意識化하여 자신의 權利와 自由를 투쟁으로 쟁취하도록 教會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教會는 宣敎活動 뿐만 아니라 社會活動을 통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社會主義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神父와 목사가 근로자와 농민과 함께 社會革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적지 않은 종교인들이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에서 左翼세력과 제휴하여 혁명운동에 가담하거나 그 一部는 직접 게릴라戰에도 同調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南美의 解放神學의 여파로 教會가 急進主義化하는데 대하여 로마 敎皇廳은 우려를 表明하고 있다.

요컨대, 教會가 빈곤한 자만을 대상으로 活動한다든지, 계급투쟁을 정당화한다든지, 직접 교역자들이 정치현장에 가담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 解放神學에 대한 評價

解放神學이 南美와 필리핀에서 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불균형과 갈등이 만성적이라 할만큼 장기간 계속된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否定과 反抗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으로 評價되고 있다. 즉 南美의 특수한 社會에서 거세게 일어난 현상타파운동의 일환으로서 解放神學은 從屬理論과 함께 또하나의 急進思潮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神學에도 社會에 대한 관심과 社會의 不正을 正面에서 批判해야 할 使命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기독교인들의 良心과 正義感을 일깨워 순수 信仰의 側面뿐만 아니라 政治·經濟·社會的 行動律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성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음은 분명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南美가 안고 있었던 역사와 狀況전개과정의 逆機能的 문제들을 설명하며 기독교가 새롭게 대응해 나가는 한 方式일 수 있다는 論據를 신중하게 인정할 때, 解放神學은 그 나름대로 效用價値를 가지고 實在하면서 影響力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換言하면, 해방신학은 南美를 비롯한 제 3 세계의 「피압박 소외계층」에게 위로와 希望이 되고 삶의 意味를 주며 未來志向의 自由爭取를 위한 구체적 투쟁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극소수이겠지만, 世俗化된 教會가 先知者的 使命에 충실하지 못하고 社會의 不義·不條理를 批判하거나 改善하는 노력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등한시한 채, 教會自體의 外的 成長이나 個人영혼 구원의 名分을 내세워 社會救援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는 狀況이 없는가를 反省해봐야 할 것이다.

民衆神學의 등장을 무조건 경원시하는 黑白論理的 부정일변도에서 벗어나 現代教會와 基督教人 그리고 社會各界各層에게 많은 省察과 각성을 촉구하는 신선한 충격과 역사적 교훈요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면이 있다. 이는 해방신학의 主張과 立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意味가 아니라, 政治·經濟·社會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病理的 현상의 지적에 대한 겸허한 평가와 問題解消 노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해방신학은 理論的 근거나 實踐方法에 있어서 批判받아야 할 誤謬와 問題點이 적지 않으며, 점차 神學의 범주를 벗어난 革命이데올로기 性格을 露呈함으로써 憂慮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解放神學을 위요한 주요 문제점과 역기능적 요인에 대한 批判을 집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신학은 解放神學者들이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傳統的 기독교의 神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神學」, 「民衆神學」으로서 政治的 이데올로기성을 內包하고 있다는 點이다.

해방신학이 반드시 마르크시즘과 一致한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社會革命理論의 기독교적 적용은 「政治神學」 자체의 마르크스主義化에로의 위험성과 우려를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방신학은 聖書を 지나치게 政治現實의 解釋을 하는데 適用한 나머지 宗教의 政治化·社會化 경향과 종교영역과 정치영역의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큰 것이다. 예수를 혁명가나 民族解放을 위한 政治的 메시아로 규정한다든지 예수의 復活事件을 革命不可避論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편협적 해석이라는 批判이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暴力使用의 正當論理는 과연 기독교적 發想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批判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이다. 예수는 분명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사랑의 道를 가르치지 않았던가? 기독교神學이 폭력의 정당성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마르크시즘의 핵심부분인 폭력혁명론을 受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써 兩者는 같은 陣營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 해방신학은 解放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세속화·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구원의 종교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點이다.

罪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원의 본래적 의미를 制度的 矛盾, 構造的 加難과 不條理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편협적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흐리게 만들었다. 聖書에 나타나는 罪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全人類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신학은 罪를 資本主義의 構造惡에서 基因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特定體制만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社會의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個人的 구원이나 實存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社會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個人이 重生하여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自己革新이 없는 革命이 일어날 때, 그것은 또다른 社會革命이 正當化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셋째, 해방신학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은 언제나 옳다는 獨斷論的 立場에서 있다는 點이다. 해방신학은 解放의 대상을 가난한 者와 억눌린 者로서 마치 善한 존재로 규정하는 反面, 그 대칭적 존재는 惡의 세력으로 斷罪하는 黨派性을 노정하고 있다는 批判이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富者와 貧者, 主人과 종의 구별없이 별거벗은 존재이며,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聖書가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타도대상과 혁명의 주체세력,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과 革命鬭爭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적 觀點인 것이다. 階級意識을 助長하며 심화시키는 것은 혁명투쟁을 위한 계획적인 論理의 발상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二分法的 對立개념은 從屬理論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主義的 分析視角을 受容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政治的으로 人權이 유린되고, 經濟的으로 착취당하고, 社會的으로 소외된 者만을 解放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解放神學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협소화·왜곡시키는 愚를 犯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신학은 南美的 貧困과 低發展 및 압제의 책임을 先進資本主義국가들에 轉嫁하는 오류를 犯하고 있다. 解放神學理論家들은 從屬理論에 근거하여 國內支配階級の 타도와 先進資本主義국가와의 支配·從屬關係의 청산없이는 불평등과 低發展의 극복과 참다운 人間解放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발전과 독립은 국민적 단합을 기초로 하여 근면성을 발휘하고 未來志向的 意志와 智慧의 結集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自國

의 落後狀況의 원인을 先進國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책임전가는 결코 타당한 접근태도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要컨대, 解放神學은 마르크스主義의 毒素要因을 神學的 입장에서 재검토·評價하여, 政治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최소화하여 나갈 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 기존교회와 宗教界를 비롯한 社會 指導層은 오늘의 時代的 狀況에 비추어 解放神學이 제기하는 問題들을 진지하게 吟味함으로써 敎訓要素를 導出, 對策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맺는말

어떤 思潮나 理論이 아무런 뜻이나 목적 없이 그리고 어떤 特定의 狀況의 要因 없이 胎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의 價値와 正當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思潮나 理論이 逆機能的이거나 體制批判的이라고 하여 이를 처음부터 무조건 否定하거나 禁忌視함으로써 地下化, 抵抗·鬭爭을 위한 이론적 武器化로 치닫게 한다면, 이는 결코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일수록 그 理論과 實體를 究明하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要素를 摘示함으로써 止揚과 受容의 妙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叙述한 現代急進思潮의 몇가지 理論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共通點과 特徵을 含蓄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現實否定과 既存體制의 變革 및 社會革命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點이다. 유로코뮤니즘도 執權戰略으로서 議會를 통한 政權掌握을 公言하고 있으나 暴力拋棄宣言과 그것에 대한 信賴의 保證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둘째, 따라서 마르크스主義의 立場에 서있거나, 또는 그 理論의 一部를 受容하고 있다는 點이다.

셋째, 西歐資本主義와 南美的 社會構造를 중심으로 人間疎外·解放의 문제, 貧富격차의 문제, 社會正義 實現의 문제들을 階級主義視角에서 口號的으로 또는 黑白論的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資本主義體制的 병폐적 要素를 浮刻시킴으로써 이른바 階級주의적 民衆革命論을 자극하는 것으로 評價된다. 환언하면, 歐州的인 소외의 문제와 南美的인 빈곤·不平等·不條理·압제로 부터의 解放과 支配·從屬의 문제를 主要 論點으로 하고 있는 現代急進思潮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질타라는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呼訴力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경우, 外來急進思潮를 反體制·反政府 運動·鬪爭에 口號的으로 引用하거나 一部 大學生, 宗教人 및 知識人들이 現實批判의 한 方便으로 援用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急進主義的 思潮의 逆機能的 現象은 民主的 正統性을 갖춘 政府와 議會 民主主義를 통한 政治發展, 社會福祉와 社會正義의 具現 그리고 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한 統一政策과 自主外交를 착실하게 實踐해 나감으로써 근본적으로 克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急進思潮의 위험요인이 아니라, 「適用의 터」로서 모순과 弱點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社會의 健全化가 眞實하다는 事實이다.

〈參考文獻〉

(單行本)

1. Daniel Bell, The End of Ideology.(The Free Press of Glencoe. Illinois, 1960)
2. Andreass von Weiss, Neo-Marxismus. (Verlag Karl Aalber GmbH. Freiburg, München, 1970)
3. Ernst Mandel, From Stalinism to Eurocommunism. (New Left Books, London, 1978)
4. Carl Boggs & David Plotke, The Politics of Eurocommunism. (South End Press, Boston, 1980)
5. Cardoso, Fernando Henriigue & Enzo Fali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6.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Tr. C. Ina & J. Eagleson(London, 1974)
7. 國民倫理學會 編, 「現代社會思想의 諸潮流」 左傾思想을 中心으로 - (서울, 螢雪出版社, 1984)
8. 金玟河·金善亨 共著, 「現代社會와 이데올로기」(서울, 大旺社, 1982)
9. 大學이데올로기批判敎育敎授協議會 編, 「現代思潮와 韓國社會」 (서울, 형설출판사, 1986)
10. 宋大晟, 「左傾이데올로기」-그 主張과 現場- (서울, 明成出版社, 1987)
11. 安秉永, 「現代共產主義 研究」(서울, 한길사, 1982)
12. 安秉俊, 「比較共產主義와 現代國際秩序」(서울, 도서출판 나남, 1987)
13. 염홍철, 「從屬理論」-低發展의 政治經濟學(서울, 法文社, 1983)

14. 陸軍士官學校, 「現代左傾急進思想—理論과 現實」(서울, 博英社, 1984)
15. 全得柱外, 「過激急進主義와 自由民主主義」(서울, 平民社, 1985)
16. 全得柱外, 「이데올로기論」(서울, 博英社, 1982)
17. 민진영外, 「한국민중신학의 조명」 (서울,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출판사, 1983)
18. 고범서外, 「이데올로기와 神學」(서울, 범하사, 1983)
19. 나용화, 「解放神學 批判」(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0. 統一思想研究所, 「解放神學과 共產主義」(서울, 平凡書堂, 1983)

(論 文)

1. Kevin Devlin, "The Challenge of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77.
2. T.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 2, 1970.
3. 최정호, "유로코뮤니즘~공산주의의 수정", 「현대이데올로기의 제문제」, (민음사, 1982)
4. 라학진, "폭력혁명과 신학의 정치화", 「해방신학과 도시산업선교」(경향신문사, 1982)
5. 金浩鎭, "獨斷과 革命의 論理: 從屬理論", 「政經研究」(1984년 2월호)
6. 孔鍾源, "마르크스主義화된 解放神學", 「政經研究」(1984년 2월호)

共產主義와 現代急進思潮

1989年 1月 20日 印刷

1989年 2月 3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 2街 山5-19
電話 234-4102 · 236-4143

印刷處 廷文社文化株式會社
電話 734-2236~9

